중근당
Under the authority of
ROCHE DIAGNOSTICS GmbH.,GERMANY



제품은 모방할 수 있지만
약효와 신뢰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10여년간, 70여개국에서 검증받은 오리지널 카르베딜롤 제제 - 딜라트렌

- 국내에는 95년 처음 소개되었고, 현재 70여개국에서 처방을 통해 검증받고 있는 오리지널 카르베딜롤 제제입니다.
- 고혈압은 물론, 만성 안정형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증 등 3가지 증상에 모두 적응증을 가진 유일한 제제입니다.
- 25mg은 물론, 환자의 상황에 따라 12.5mg, 6.25mg 등 다양한 제형으로 처방할 수 있어 처방이 더욱 용이하고, 경제적입니다.



오리지널 카르베딜롤 제제

딜라트렌® 정

Carvedilol 6.25mg, 12.5mg, 25mg

경북의사회지

2009년
33호



경상북도의사회

첨단기술·개량신약
Hanmi 한미약품

더 안전해졌다! 더 빨라졌다!

해열시럽제 맥시부펜

순수 활성성분만 추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했습니다



상용처방 용법 · 용량

체중 1kg당 하루에
맥시부펜 시럽 1mL를 처방하시면 됩니다

맥시부펜 시럽 1mL에는 순수 활성형
덱시부프로펜 12mg이 함유돼,
기존 시럽제와 같이 '체중 1kg당 1mL를 1일
3~4회 분복' 용법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신개념 유소아 해열제
맥시부펜® 시럽
(덱시부프로펜)



기존 이부프로펜 시럽제에 비해 약효발현 시간을 2배이상 단축
유소아 임상으로 안전성을 입증한 세계최초의 Dexibuprofen 시럽제

▶500mL용량도 출시 되었습니다

"과체중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한미약품 살빼기캠페인 살빼기캠페인.com / bimaninfo.co.kr

경북의사회지

2009년 33호



경상북도의사회

새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칩시다



이원기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에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애환이 녹아있는 제33호『경상북도 의사회지』를 펴냅니다.

지난 3년간 저희 집행부는 전통에 빛나는 경북의사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가을에 터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이미 우리 의료계에도 캄캄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래환자의 급격한 감소, 중소병원의 도산 증가, 의원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700명의 의사가 배출이 되는데도 의원 증가율은 제자리인 것을 보면 분명 의료계도 이미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 여러분!

그토록 열망하던 정부가 탄생한지도 해를 넘겼지만, 우리 의료계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질곡을 헤매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수가 인상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앞길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답답한 사실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새 정부가 고쳐줄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거나, 정부와의 오랜 투쟁으로 패배감에 젖어 체념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 어려움으로 소위 '무임승차'를 하시는, 즉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일 전 대한의협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새 회장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그 분은 이제 대한의협의 수장으로서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야 할 분입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 뽑힌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합시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의료계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임을 잊지 맙시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이번에 발간된 제33호『경북의사회지』를 통하여 소홀했던 회원들간의 우의를 다지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본회의 크고 작은 회무소식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중한 옥고를 내어주신 많은 회원님들, 훌륭하고 재미있는 회지를 만들어주느라 애써주신 편집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내실을 다지며



이석균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기축년 소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다산과 다복의 해에 부자되라는 기원은 연말에 불어온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반토막 경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소처럼 말없이 자신의 길을 인내와 근면, 소의 뚝심으로 꾸준히 개척하여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고, 회원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33호『경북의사회지』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권세홍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옥고를 투고해 주신 회원과 사무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을 했으나 10년 동안 변화된 사회의 틀을 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용산 철거민 화재사건, 국회에서의 폭력 투쟁, 세계금융위기 대처에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신뢰와 믿음, 타협과 화합, 전체를 융화할 수 있는 설득력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료계도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막론하고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재정은 수진율 감소로 인해 2조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했다니 의료계의 어려움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작금에 환자가 진료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음을 읽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회원수 10만의 의사협회가 2008년 창립 100년을 맞이 했습니다. 국민 1인당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과 의료의 신기술에서도 세계에 뒤지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향후 100년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의료인 과잉배출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의 부족현상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과 같이 1차 의료의 붕괴 조짐과 전문의 왜곡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의협과 병협, 모든 의료 직능단체가 국민의료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없이 소신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의협과 경상북도의사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해입니다. 누가 회장이 되어도 의료계의 목표를 위해 회원 모두가 단합하고 합심해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회원님들의 도움은 바로 집행부를 믿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 · 경북에 꼭 유치되기를 회원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겠습니다.

지난 3년 임기동안 회원님들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전국의사회중 가장 모범적인 의사회로 이끌어 주신 이원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이사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모두가 지난 해 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합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내실을 다지며 지역민을 위해 성실히 진료에 충실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올해는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꼭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새해 기축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의료계 상황 역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몇몇 진료 과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은 서울행 KTX 열차로 더욱 취약해져 가는 지역 의료환경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지만, 제도 개선의 벽은 높아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버티고 선 통제 위주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저수가 정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대한민국의 의사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도록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18개월 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진의가 어떻든 최종적으로는 횡령과 불법 로비라는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그야말로 고립무원,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경멸과 냉소의 시선 속에서 그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였습니다. 과연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역사가 깊으며,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국민복리 지향적인,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복원할 수 있을까 협회 안팎의 뜻있는 모든 분들이 걱정해주셨습니다.

저희 제35대 집행부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협회 자체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방만한 운영,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회무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계정의 개발과 인건비 및 예산절감이라는 성과도 거두면서 떳떳하고 긴장감 있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안정된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고언을 경청하고, 우리 의료계 전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길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우리 협회의 의견과 주장에 조금씩 귀를 열게 되었습니다. 각 업무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모두 다 회원 여러분의 우리 의사협회가 바로서야 한다는 염원을 저희 집행부가 한시도 잊지 않았기에 18개월여의 단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여러 대책과 성과 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등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차근차근 마련하여, 입법청원 등 전략적 방안을 기획하고 있으며 차기 집행부의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1차 진료 활성화 방안, 전문의 지원 기피과 해결,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인상, 산재보험 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 영상판독 소견서 개선 등과 함께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간접세의 확보, 의사장터 개설, 세무관련 서비스, 각종 인증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이 이미 진행되었고, 새로운 기획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의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의협은 '한센인 대상 의료봉사활동', '은평의 마을 수용자 진료 봉사', '네이버 온라인 의료상담 사업'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의사와 의사협회의 봉사하는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2008 회계연도의 의협회비 납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10% 이상 증가한 것은 지역의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회원들의 의협 사랑의 결실이라 생각하기에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해 창립 100주년이라는 감격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100년의 첫 해인 올해는 그 뿌리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단체에 합당한 전방위적인 활동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선진 국가입니다.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회적 위상을 정당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10만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어떤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사사회가 "지역의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으로 지역의료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수도권의 거대 기업화한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지역의료의 공동화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이런 양극화의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가 앞으로 의협 차원에서 1차 진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의협은 진료 일선에서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 그리고 믿음으로 의협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제33호 의사회지 발간을 즈음해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Contents



| 발간사 | 새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칩시다 · 이원기 _ 2
| 축 사 | 어려움을 기회로 내실을 다지며 · 이석균 _ 4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주수호 _ 6

사진으로 본 2008년 경북의사회 _ 10

| 지상갤러리 | 노을 속의 겨울 연지 · 박종각 _ 28 윤태권 _ 29
| 포토에세이 | 경주읍성과 회화나무 · 김장희 _ 30

원로 초대석

의사회의 산 증인 이병채 원장님 _ 64
취재_ 이봉구



특집 나의 어머니

三從之義를 실천하신 나의 어머니, 朴鉉順 마리아 · 이원기 _ 36
술빵의 추억 · 이종규 _ 39
아직도 무릎을 주시는 내 마음의 어머니 · 조영철 _ 43
엄동설한 기러기처럼 평생을 헤쳐나오신 당신 · 김성수 _ 45
300원짜리 개구장이의 어머니 · 백승인 _ 48
어머님 눈물로 만든 진주목걸이 · 정능수 _ 51
내가 너희 내외 너무 애먹인 것 같구나 · 배경일 _ 55
무언과 묵언으로 가르치신 어머니 · 박봉기 _ 57
내 인생의 등대이신 어머니 · 권오양 _ 60
어머니, 나의 어머니 · 김철기 _ 62

의사회 탐방
문경시 의사회를 찾아서 · 권세홍 _ 72

초대석 · 시론 · 논단
| 초대석 | 변호사가 본 의사 · 김인수 _ 80
| 시론 | 대한의사협회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합시다 · 한규섭 _ 82
| 논단 | 의사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 · 정만진 _ 85
경북지역 개원 의사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행태와 관련요인 연구 · 권순길 _ 101

회원 문예작품
| 회 원 시 | 은행잎 외 1 · 손장락 _ 110 흐른다 외 1 · 김의홍 _ 112
알맹이와 껍데기 · 최해곤 _ 114 묵계 · 권세홍 _ 115
시사 사행시 입선작 _ 116
| 수 필 | 꽃다발 · 추성수 _ 118 헛꽃 · 박무근 _ 120
까치 가족의 수난 · 전경홍 _ 125 공기업 경영대상 · 최동하 _ 128
클릭 한 번 잘못하여 모가지 날아갈 뻔 · 정만진 _ 130 구멍 · 이종규 _ 133
20년 전 포항의 추억 · 박대환 _ 136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 사공정규 _ 139
행복한 죽음 · 금민수 _ 142 화장지에 싸인 만원 · 전우진 _ 147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조기 유학! · 이덕영 _ 152
믿기지 않는 일 하나 · 김은용 _ 160
| 가족의 글 | 낙동강 1300리 도보 순례기 · 손혜영 _ 163
| 여 행 기 | 황산 산행기 · 전민 _ 168
| 체 험 기 | 산이 거기 있어 산에 오르네 · 하달봉 _ 174

회무 소식(2008년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임원 명단 _ 184 대의원회 의장단 _ 185 시군의사회 회장 명단 _ 186 각종 위원회 _ 187
회무 소식 _ 190

편집을 마치고 _ 214



본문 일러스트 · 이영철

제57차 정기대의원 총회

2008. 3. 22(토) 제이스호텔



의사윤리 선서를 하고 있는 대의원



정기대의원 총회 광경















1	2	3
4	5	
6	7	

1. 이석균 본회 의장
2. 이원기 본회 회장
3. 주수호 의협회장
4.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5. 최유근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6. 천종욱 감사
7. 의협 100주년 준비위원회 임태환 사무총장















회원 · 가족 등반대회

2008. 5. 20(일) 속리산



등반대회 단체 사진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 춘계 종합학술대회

2008. 5. 24(토)~25(일) 경주 코오롱호텔



내빈 및 초청강사들 ▲



◀ 학술대회 모습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 경북의학제

2008. 5. 25(일) 경주 코오롱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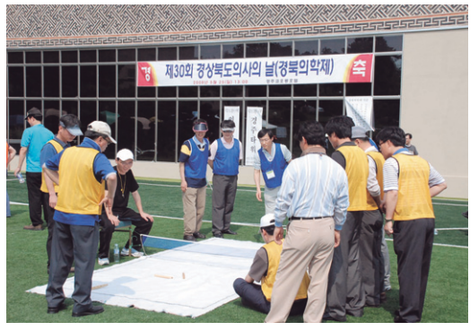








1. 전년도 우승팀(남부)의 우승기 반환
2. 본부석 내빈
3. '무조건' 반주로 맞춘 준비체조

























▲ 다함께 준비체조



◀ 시사 사행시 장원 강준오 회원





◀ 남부지구 우승

▼ 폐회식 광경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 회원 친선의 밤

2008. 5. 24(토) 경주 코오롱호텔



1. 서현호 회원 자녀(경산)
2. 이동규 회원 자녀(울진)
3. 색소폰 연주/이경섭 회원(경주)
4. 심사위원 채점


1


2


3


4



5


6

5. 안동시의사회 중창단
6. 신명준 회원(포항)
7. 기타 연주/임지훈 회원(경주)
8. 목관악 연주/심진규 회원(예천)
9. 색소폰 연주/이동규 회원(울진)


7


8


9










1


2


3


4

1.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2. 김도권 회원(구미)
3. 아코디언 연주/김동주 회원(구미)
4. 안동시의사회 중창단 대상 수상
5. 스포츠댄스/정원모 회원 부부(영주)

5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2008. 10. 12(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테니스장



1. 이원기 회장 개회사
2. 이석균 의장 축사











▲ 우승/김성연, 김태진 회원(문경)



준우승/문종세, 윤영묵 회원(안동) ▼





제23회 경북 · 전북의사회 친선 행사

2008. 9. 27(토)~28(일) 김천파크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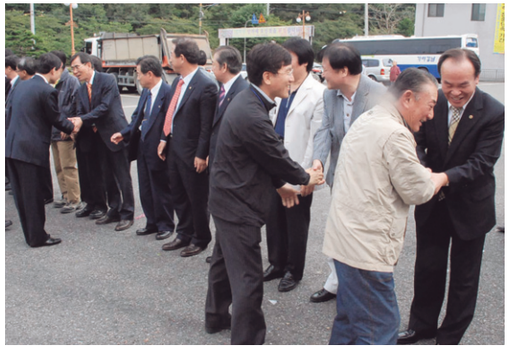
1. 경북의사회 이원기 회장
2. 전북의사회 양형식 회장
3. 의협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

















사진으로 본 2008년 경북의사회



노을 속의 겨울 연지

한 여름 예쁜 자태를 뽐내던 탐스런 연꽃이 떨어지고 마냥 쓸쓸하고 볼품 없을 것 같던 겨울연지엔 따사로운 저녁노을과 더불어 한 폭의 '칸딘스키'가 그린 듯한 추상화와 오선지 위의 악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정열적인 교향곡의 장엄한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해질녘 겨울 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 어느 12월 청도 혼신지에서



박종각(박종각비뇨기과의원, 경산)





윤태권(윤의원, 안동)

경주읍성과 회화나무



아침 출근길에 병원 근처의 현재 계림초등학교 담장으로 되어버린 성벽인 경주 읍성을 둘러 보았다.



성벽으로 사용된 돌과 함께 시멘트로 학교 담장을 이루고 있다. 성벽 위에는 회화나무가 몇 그루 우뚝 솟아 있다.

계림초등학교 정문 옆으로 들어가서 성벽(담장) 위에서 보면 성벽은 학교 울타리가 되고 학교 안쪽에는 시멘트로 만든 운동장 스탠드가 보인다.





정문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면 제법 잘 보수된 경주읍성의 치(성곽 방어를 위하여 돌출 된 부분)와 성벽이 보이고 성벽 위에는 두 그루의 회화나무가 운치를 더해준다.



성벽을 따라 가면 성벽이 끝나는 부근에 사잇길이 나타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초라해 보이기까지한 '경주읍성' 표지석이 나타난다.



성벽 보수 때 발견된 유구들과 주춧돌이 보인다.



회화나무는 회나무, 혹은 괴나무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회목(懷木) 또는 괴목(槐木)으로도 쓴다. 또는 회화목(懷花木), 괴화목(槐花木)으로도 쓴다.

회화나무는 그 용모가 대담무쌍하고 호연한 자세를 나타내고 무게가 있고 깨끗하며 조화가 있고 위엄이 있는 나무이다. 이러한 당당한 용모에서 학자들이 서당이나 서원에 즐겨 심었기 때문에 '학자수(영문명으로 Chinese scholar tree)' 라 불린다.

예로부터 이 나무를 심으면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 이름을 얻고 관직에서 물러날 때 이를 기념하여 심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다. 또 회화나무 3그루를 집 앞문에 세워두면 행복이 찾아 온다고들 믿었다. 혹자는 회초리라는 말이 이 회화나무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한다.

회화나무는 예전부터 고궁이나 서원, 혹은 고택에서 보아 오던 나무이다. 둘레는 1~2m, 높이는 25~30m에 달하며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낙엽교목으로 본래는 중국이 원산지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회화나무는 가꾸기가 쉽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나오며 뿌리를 잘 내리고 꺾꽂이나 접붙이기나 이식을 하여도 잘 자란다. 콩과식물이므로 뿌리혹박테리아가 질소를 만들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성장한다. 단, 습기가 많은 땅에서는 꽃을 잘 피우지 않는다.

요즈음은 공원에도 가로수로 더러 보이는 나무이다. 회화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이 땅에 자라온 역사가 천년이 넘어 우리 문화와 함께 자라온 나무이므로 우리나라가 자생지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회화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당차게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이다.

경주에도 회화나무 노거수들이 많이 있다. 특히 계림의 동쪽 정문 옆의 회화나무는 수령이 약 13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속통은 거의 죽고 일부 수피에서 자란 가지 하나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안강 육통의 수령 약 600년된 회화나무는 고려 공민왕 때 전쟁터에 나가던 젊은이가 심어놓고 부모님에게 잘 키워달라고 하였고 아들이 장렬한 전사후 자식처럼 키워 지금에 이러렀다고한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부근이 그런대로 옛 흔적이 보존된 성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 읍성은 고려시대(1012년, 현종 3년)에 쌓았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 무너져 1632년(인조 10년)에 다시 개축하였고, 1746년 (영조 22년)에 둘레 2300m로 확장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지금은 약 90m만 남아 있다. 백상승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 2004년부터 보수에 들어갔으며 현재 성벽 부근의 사유지를 경주시에서 매년 조금씩 매입하여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경주 읍성은 조선 선조 25년(1592) 4월 21일에 왜병에게 쫓겨 안강(安康)으로 진을 옮긴 경상좌병사 박진(朴晋)이 9월 8일 경주읍성 탈환 작전에 경주 판관 박의장(朴毅長)을 선봉으로 하여 군기시(軍器寺)의 화포장(火砲匠) 이장손(李長孫)이 발명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하여 큰 성과를 올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그 외에도 경주 지역에는 경주시 보호수로 지정된 회화나무가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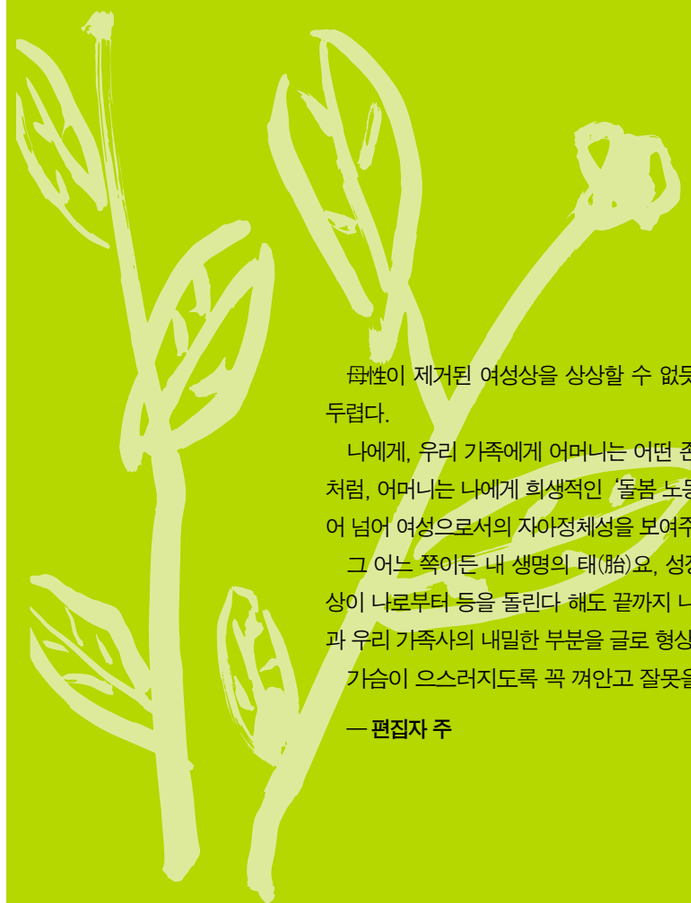
앞으로 회화나무 노거수들은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경주의 자연유산으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김장희(김장희산부인과의원, 경주)

특집

낳아 주신 어머니



母性이 제거된 여성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모성을 상실한 가족 형태 또한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닳아 사라짐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비누처럼, 어머니는 나에게 희생적인 '돌봄 노동자' 였던가, 아니면 일찍이 가부장 사회의 벽을 뛰어 넘어 여성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보여주셨던 현대적 어머니상인가?

그 어느 쪽이든 내 생명의 태(胎)요, 성장의 물관이자 존재의 영원한 아랫목인 어머니. 세상이 나로부터 등을 돌린다 해도 끝까지 나를 지지해줄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우리 가족사의 내밀한 부분을 글로 형상화하여 여기 思母曲을 지어 바치며 고백한다.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꼭 껴안고 잘못을 용서하시던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 편집자 주

어머니의 눈물

박목월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 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 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 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三從之義*를 실천하신 나의 어머니, 朴鉉順 마리아



이원기 | 이원기외과의원(포항)

나의 어머니는 1923년 음력 9월 15일 高靈郡 牛谷面 沙田洞에서 高靈 朴氏 小尹公派 漢學을 하신 在字 源字와 晉陽 鄭씨 사이에서 8녀 1남 중 넷째 딸로 태어나셨다.

4대 독자이신 외조부님께서 딸 셋을 내리낳으신 후 5대 독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후이었으니, 다음 애기가 아들이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 그러나 운명의 장난으로 또 딸이 태어나니 그가 나의 어머니시다.

여리신 天性과 조용하신 性品으로, 세 언니들 밑에서 자라 날 때 야단을 맞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넓은 집 어느 구석에 가셔서 홀로 '홀짝홀짝' 울기만 하였더란다.

당시에는 여자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흔치도 않았지만, 넷째 딸로 태어나 부모님을 서운하게 한 죄(?)로 더더욱 외조부님께 "소학교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하였다고 하며 학교 문 앞에는 가보지 못하였지만 언문을 익히고, 수를 놓거나 길쌈을 배우며 오로지 언니들과 함께 신부수업을 배우며 성장하였다.

중매를 통하여 신랑의 얼굴도 모른 채 1941년 18세의 처녀는 30리 산길의 재를 넘어 첩첩산중인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셨다.

신행온지 사흘 만에 눈이 많이 내린 날 아침, 새 새댁이가 힘센 장골이 해다 놓은 바깥마당에 있던 갈비(솔잎) 한 짐을 등에 지고 안채부엌으로 날라 오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도진댁 며느리 잘 봤다더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었단다.

그 당시 경북도청 토목기사로 포항에 근무하시던 先考와 3년간 떨어져 사셨는데, 체구가 적어 약체이신 나의 조모님은 "며느리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시며 도무지 새 색시를 남편에게 보내려 하지 않으셨더란다. 그러나 그 후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포항으로 와 신접살림을 하였는데, "그때의 3년이 나의 가장 행복한 신혼시절이었다."라고 들었다.

그 후 8.15광복이 되어, 부모님은 해인사 아래에 있는 陜川郡 冶爐面 河濱里 고향으로 돌아 오셨다.

해방이 되던 해 내가 태어나고, 그 후 아들 딸 5남매를 낳으셨으며, 불같은 성격으로 눈빛이 무서워 호랑이로 소문난 나의 조부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셨는데, 힘이 좋으신 어머니는 과히 큰머슴처럼 일을 하셨다.

나의 부모님께서 근 50년을 사시는 동안, 나는 두 분이 한 번도 싸우신 기억이 없을 뿐 아니라, 어쩌다가 先考께서 기분이 좋지 못하여 야단을 치시면 당신은 그냥 참으시기만 하셨다.

또한 나의 어머님은 항상 당신의 못남과 부족함을 탓하시며, '정월 초하루에서 섣달 그믐날까지 변함이 없으신' 한 살 위의 남편의 인품을 지극히 존경하고 따르셨다.

50세가 되시던 비교적 젊은 시절, 先考께서 뇌졸중으로 만 26년을 병석에 계시는





◀ 팔순기념 제주도 여행 중

동안 줄곧 당신께서 수발을 하셨으니 그 고생이 오죽 하셨을까?

그러나 나의 어머님은, 항상 모든 일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며 자신의 처지를 달래셨다.

그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며, 대구 남산성당에서 병환 중인 先考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1985년 내가 사는 포항 큰아들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

先考께서 재발을 하시어 완전히 출입을 못하신 만 6년 동안, 나의 어머님은 과히 방에 갇히다시피 함께 계시다가, 1987년 12월 31일 온 가족의 임종경(천주교에서 돌아가실 때 드리는 기도)을 들으시며 先考께서 돌아가셨다.

先考께서 돌아가신 후 10년이 넘도록 매일 성당미사를 빠지지 않으시며, 새벽 일찍 일어나시어 열 사람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와 15명의 친외손과, 3인의 증손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묵주알을 돌리고 계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40대에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 요추에 생긴 압박골절로 인하여 완전히 허리가 굽으시어 실버 코치를 밀고 다니시는 일이다.

"주님, 저희 어머니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 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 三從之義란 봉건시대에 여성의 덕목으로 일컬어지는 말로 어려서는 부모님을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복종하며, 홀로 되어서는 아들을 좇아 사는 것을 말한다.

술빵의 추억



이종규 |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수~~~~ㄹ 빵!"

"수~~~~ㄹ 빵!"

잠시도 쉬지 않고 확성기로 틀어대는 소리에 질려 버렸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보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생기려던 입맛조차도 달아날 지경이다. 장날이면 하루 온종일 진료실 앞에서 아예 진을 치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사 먹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소리에 짜증이 난다. 조심스럽게 청진을 하다가도 그 "수~~~~ㄹ 빵"하는 소리만 들리면 청진기는 가차 없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고막을 후려친다. 그 바람에 여러 차례나 깜짝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근래 의료기도 많이 발달해서 전자 청진기가 보급되었다. 전자청진기는 성능이 아주 좋아서 미처 포착하지 못하던 호흡기관의 미세한 소리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다. 좁은 진료실이 그래도 장날만은 소란스럽고 웅성거리며 시끄럽기 때문에 전자청진기의 성능을 최고 감도로 조절을 해 놓는다. 그 상태에서 "수~~~~ㄹ 빵"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서 얼른 청진기를 귀에서 빼내곤 한다. 때로 통증이 따르기도 해서 무척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개원 초창기에 하루 종일 반복해서 틀어놓는 싸구려 오디오 테이프 소리에 그만 기가 질려버렸다.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변함없이 "오빠는 자~ㄹ 있단다."를 골백 번도 더 듣다보면 절로 내 입에서도 응당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는 자~ㄹ 있단다." 를 읊어대게 된다. 그것도 더욱 기가 막힌 건 제대로 노래를 처음부터 다 하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오빠는 자~ㄹ 있단다."란 소절만 읊어 댈 뿐이다. 직원들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피식 웃기도 했다.

우리 집안에는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가 두 분 계셨다. 그리고 또 증조부께서도 증조할머니가 두 분 계셨다. 아버지는 3대째 대를 이은 독자셨다. 아버지는 그 덕에 군 복무는 현역대신 후방방위대로 편성되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설날과 추석날에 또 차례가 있으니 도합 여덟 차례나 기제든 차례든 치러야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가난한 삶에 찌들었지만 어머니는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신 걸 자랑삼아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셨다. 어머니는 모든 일에 무리가 없이 항상 올바르고 심성 곧게 집안일을 이끌고 가셨다. 한겨울에 지독한 독감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놋그릇을 닦고 새로 물김치를 담그곤 하셨다.

여름철의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오는 날이면 양잿물과 아궁이에서 나뭇재를 모아가지고 오셨다. 지푸라기에 재와 양잿물을 적당히 묻혀가지고 놋그릇을 열심히 닦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름철 할아버지 제사에는 항상 특별 음식이 꼭 한 가지 만들어져 놓이곤 했다. 할아버지 제사 때는 어김없이 증편(술빵)이 놓여졌다. 제일 앞의 과일 줄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세 번째에 증편이 놓이면 오남매는 할아버지 제사쯤으로 기억하기도 했다. 물론 다른 제사 때에도 놓여지긴 했지만 할아버지 제사 때는 거의 빠짐이 없었다.

6.25전쟁 때 폭격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막걸리를 아주 좋아하셨다. 그런 할아버지를 잘 아는 어머니는 가끔 막걸리를 대접하시곤 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무척 자상하셨다고 한다. 외동아들은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이었지만 며느리 사랑이 아주 극진하셨다고 한다. 약주를 좋아하시는 할아버지는 떡을 싫어했다. 그저 막걸리 한 사발에 오이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동동주 한 잔에 김치 한 조각으로 하루가 행복하기도 하셨다. 할아버지는 소탈한 마음으로 집안을 어루만지고 외아들의 장래를 기원하는 게 농사를 제외한 일생의 과업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와중에 인근에 참한 처자가 있다며 매파가 오고 가고 혼사 말을 주고받고 나서 어른들끼리 정혼을 하셨다. 그날로 어머니는 고달픈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외아들로 자란 아버지는 허구한 날 속을 썩여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그런 아버지의 생활을 아주 크게 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었다. 임종 후에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제사만큼은 잘 모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만큼 약주를 즐기지는 않으셨다. 그저 한두 잔 드시면서 담소하는 것만으로 주안상을 물리는 게 보통이셨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늘 "술을 좋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떡을 좋아한다."고 하셨다. 기실 이런 식생활은 부엌살림을 떠맡은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법이다. 할머니는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에게 "술은 살로 가지도 않아요."라며 잔소리가 심했다고 하셨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푸짐한 음식이나 씹는 맛을 즐기기 보다는 마시고 취기에 흥이 나는 일을 더 좋아하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아들만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가능한 입에서 우물거릴 수 있는 음식으로 아버지를 키우셨다고 했다. 어릴 때의 식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법이다. 해외생활을 하거나 이민 간 한국인들이 김치를 그리워하고 김치를 먹지 않으면 식사가 불편하다며 유달리 한국식당을 찾아서 중요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많이도 보아왔다. 더구나 겨우 입맛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습관이 된 음식은 평생을 좌우한다. 가능한 군것질이 다양하지 않던 시대에 어머니는 주로 아버지를 위해서 떡을 빚었다. 송편이나 떡국 떡처럼 계절적 성향이 짙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인절미나 술빵을 잘 만드셨다. 할아버지가 드시고 남은 막걸리가 시어지기 전에 밀가루와 쌀가루를 배합해서 빵을 만드셨다.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할아버지도 술떡은 제법 맛있게 잘 드셨다. 아버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술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에게는 술로 만든 떡으로 막걸리를 대신했고, 떡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는 또 술 대신 떡을 만들어 대접하셨다.



우측이 필자와 어머니 ▲

어머니는 감성이 아주 풍부하셨다. 우물가나 토담 밑, 또는 울타리 옆에 심어놓은 빨간 맨드라미꽃을 한 송이 꺾어 오시곤 했다. 작고 예쁘게 썰어서 증편을 찔 때 떡

위에 곱게 올려놓으시던 모습도 기억난다. 으레 검은 참깨와 더불어……. 솥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증편은 맨드라미와 검은 참깨로 예쁘게 수놓아져 부풀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고왔는지 모른다. 할아버지 제사 때면 우리들 오남매는 술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술떡을 먹으면서 즐겁기만 했다. 증편은 아버지에게도 아주 좋은 간식인 동시에 추모하는 마음도 유별나신 듯했다. 두 어른의 개성이 강하고 세대간의 불협화음이 많던 시절에 어머니는 서로 다른 개성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아주 절묘한 기지를 발휘하셨다. 물론 의도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이미 여섯 해가 된다. 얼마 후면 또 어머니 기제가 돌아온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기억하도록 정성들여 술빵을 만드셨다. 우리들에겐 아버지를 기억하도록 또 술빵을 빚으셨다. 기제를 수 차례나 지내면서도 어머니의 따듯하고 깊은 속뜻을 이제야 어렴풋이나마 알듯하니 참으로 부끄럽기만 하다.

진료실 앞에서 장날이면 진을 치고 확성기를 틀어놓던 술빵가게 주인은 이동식 판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아예 본거지는 진료실 앞에 두고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이동식 술빵가게가 온 동네를 휘저으며 연실 "수~~~~ㄹ 빵"을 외쳐댔다. 근래 한참이나 불경기가 지속되어서인지 장날인데도 술빵 장사는 오지 않는다. 어머니 기제일이 다가오니 소란스럽고 불편하기만 했던 술빵 장사도 소록소록 새삼스러워진다.

아직도 무릎을 주시는 내 마음의 어머니



조영철 | 파티마내과의원(경산)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나의 마음은 넉넉하고 평온해집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휘청거릴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손을 내밀어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셨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순이 다 된 아들의 어리광을 받아주며 잠을 청할 수 있게 무릎을 내어주십니다. 항상 내 마음의 어머니는 무릎을 베고 잠을 청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심한 세월은 흘러서 고우신 어머니의 얼굴과 이마에 주름살이 패이고 아리따운 몸매는 자식들을 낳고 기르느라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구십에 가까워지신 어머니께서도 세월을 이기시지 못하고 허리가 굽어져서 보행에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4년 전 경미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현재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시지 못하고 잊어버리시는 어머니, 그러나 항상 자식들을 염려하여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위하여 매일 기도와 미사에 참석하시면서 자기 혼자 남겨두고 먼저 홀로 가신 어버님께 자신을 두고 가신 것을 원망하시는(야속한 임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부릅니다) 나의 어머니, 어머니 당신을 불러봅니다.

우리 문중의 종부로서 충청도 영동지방에서 낯선 대구로 시집오셔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육남매 아들 딸 잘 키워 짝을 맞추어서 모두 분가시키시고, 모든 것에 엄격하시고 까다로운 아버님에 대한 극진한 내조. 4명의 시누이와 2명의 시동생을 뒷바라지하시고 대학교육까지 시키신 어머니, 조상님에 대한 깊은 효심으로 4대 기제사 봉사를 기꺼이 하신 어머니, 우리집안과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신 어머니, 노심



초사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념하신 어머니,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어머니는 이제 자식의 도움이 꼭 필요할 정도로 육신과 정신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철이 들어 어머니를 대하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는지 생각해보아도 지금 어머니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무의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늙고 병이 들어서 자신의 육신조차 가누기 힘드시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듯이 이제 어머니께서는 일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 걱정 근심 다 놓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님께 기도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생겨난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과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으면 모두를 관용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맑고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쳐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상태로라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 드립니다.

어머니는 형님댁에 계십니다. 어머니를 가끔 찾아뵙지만 헤어질 때는 항상 어머니께서는 아쉬움 때문에, 혹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 혹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자식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15층 복도 난간에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얼굴을 내밀어서 빠이빠이를 외치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옛말에 100살 된 부모가 80된 자식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보살핌은 유효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는지 숙제를 간직하고 조금씩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효자부모에게서 효자 자식 난다고 했습니다.

엄동설한 기러기처럼 평생을 헤쳐나오신 당신



김성수 | 청송군보건의료원장(청송)

바람이 조금 부네. 집무실 창에서 내다 본 깃대에 걸린 깃발들이 출렁인다. 며칠 전 내린 눈 탓일까, 건너편 방광산 자락은 군데군데 잔설로 희끗하다. 좌측으로 용머리 부분을 따라 흐르는 용전천 맑은 물에 비친 모습이 비석처럼 보인다고 이름 부쳐진 현비암이 보이고, 바위틈 속살을 드러내는 나목 사이로 학들이 한가로이 햇볕을 쬐면서 졸고 있다. 용머리, 정수리 혼이 모이는 곳에 자리잡은 성황당, 고독할 때 늘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 수직으로 내리꽂는 두 갈래 폭포, 때로는 용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 존재 가치를 부각시킨다. 현비암을 감아도는 용전천 강물 위 연기처럼 피어나는 물안개 속, 마른 나무 가지 위로 맴도는 얼굴, 굽어진 등과 허리, 튀어나온 아랫배, 바람결에 날리는 백발 너머 얼굴의 깊게 패인 일그러진 주름살 위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을까.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형형한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 구십사세의 나이답지 않게 또렷한 정신으로 예사롭지 않은 표정 속에 잔잔한 슬픔이 묻어난다. 광막한 우주 공간 속에서 신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온몸으로 세파를 헤쳐나와 이제 한 세기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고 계시는 어머니, 당신을 통해 전생과 내세가 있고, 당신의 자궁으로 나를 있게 하신 어머니.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삼년 후, 삼십이세의 늦은 나이로 아내와 결혼한 이후 이십사년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의사인 이 아들 곁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행은 물론 외식, 아이들 유치원, 학교 졸업식 등 모든 행사에 우리는 함께 했습니



다. 저 또한 의존심 많은 막내아들인지라 아내의 심정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러던 당신께서 제가 청송에서 근무하게 되니, 할 수 없이 제 곁을 떠나 서울 형님네로 가시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못난 막내놈을 잊지 못하시고 제 곁에 오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어머니, 이제 불효막심한 이놈을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명리(命理)에 따른 순리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서른일곱에 저를 낳고, 서른아홉에 동생을 생산하시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부모님 모셔오라 할 때는 어머니 연세가 많은 것을 부끄러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쪽진 머리 가지런히 하시고 늘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타나신 깔끔하고 청아하신 당신을 부끄러워 한 저는 못난 아들입니다. 철부지 어린 녀석은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애들이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이는걸까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지금은 아닙니다. 꼬치 영감, 마늘 할매,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청렴한 공직생활 박봉에 수많은 형제들을 대학까지 다 시키시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진 아들딸로 키워주신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어린 어느 날, 제 생일이었던가요. 어머니와 단 둘이 따스한 햇살 아래 먹던 짜장면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얼음 갈라지는 소리 들리는 추운 겨울날 저녁,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된장 풀어넣은 시래기찌개를 가운데 두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신 김장김치 찢어 더운밥에 걸쳐 먹던 추억이 이젠 아련하고 서서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때로는 까닭모를 설움에 복받쳐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을 때, 양념 냄새 뒤섞인 구수한 향기가 못내 그리워집니다. 달을 보고 우는데 별빛이 녹아 든 눈물을 삼킨 기억도 이젠 아스라이 멀어져 갑니다. K중학에 입학해서 동복 소매자락에 백색 삼선을 두른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요. 의과 대학에 다니는 저를 마치 의사가 다 된 것처럼 가슴 부풀어 하시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대학시절, 공부에는 별 뜻이 없고, 술에 젖어 갈등을 치유하던 그 시절, 향촌동 뒷골목 대폿집에서 실컷 퍼마시고 지친 몸을 막차에 싣고 오면서 듣던 유행가 가락은 왜 그다지도 제 가슴을 파고 들던지요. 애절한 노랫말은 거친 청춘의 젊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따뜻이 데워 주었지요. 희뿌연 불빛 속에 서서히 떠오르는 어머니 얼굴, 인생의 슬픔을 미리 안 탓일까요. 질곡의 삶을 견뎌 오신 당신 앞에 저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제가 공수특전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변해버린 모습과 과격한 행동에 크게 실망하여 걱정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염려 놓으십시오. 혹독한 훈련 속 땀방울 통해서 의지를 굳건히 하고, 인간으로서 의리를 배웠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낙하산에서 용기를 터득하고 환희를 보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도 서 보았습니다. 양파가 한 꺼풀을 벗기듯 당신의 막내아들은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손자 손녀, 연준이, 재은이, 재곤이, 은지, 수진이 모두 다 훌륭히 잘 자라 사회구성원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저 또한 청송에서 아내와 더불어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생활패턴이 다른 시골에서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불효막심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편히 지내십시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시고 당신께서 평생 몰두해 오시는 대승불교에 진정으로 귀의해 주십시오. 어머니, 어느 선각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운명에 저항하면 이끌려 가고, 운명에 순응하면 업혀서 간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엄동설한 온 몸으로 창공의 얼음깨고 날으는 기러기처럼 평생을 헤쳐 나오신 어머니,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이 스며들어 목줄기를 타고 오르면서 목이 메이고, 매케한 내음이 제 코를 찔러 두 눈이 젖어 옵니다. 희미해진 시야에도 보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당신의 얼굴이. 그러나 어머니 그냥 계십시오. 지금 그대로가 좋습니다. 먼 훗날, 서로의 영혼끼리 어디에선가 한 점으로 만나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서로 알아 볼 수는 없겠지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300원짜리 개구장이의 어머니



백승인 | 백승인소아청소년과의원(경주)

편집위원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불효자가 어떻게 글을 씁니까?" 하니 그러니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한다. 몇 번을 거절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는데 어머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먼저 밝힌다.

어머니는 1919년 기미년에 인천 덕적도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개화 초기에 기독교를 믿어 덕적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 겸 전도사로 교회를 일평생 지키셨고, 외삼촌과 큰 이모와 작은 이모 모두 평양신학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이화학당을 졸업하셨으니 그 당시로는 모두 신교육을 받은 집안이었다.

어릴 때는 유관순 누나가 어머니 동기생쯤되는 줄 알고 항상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지냈으며, 어떤 날은 꿈에 3.1운동 때 만세사건으로 잡힌 어머니를 보고 꿈에서 놀라 깨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보니 기미년 만세사건이 나던 해에 어머니께서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졸업후 소사(부천)에서 작은 이모님이 전도사로 시무하던 교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모아서 야학을 담당하셨다. 그 후에 지금은 인천 신공항이 들어선 영종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옆반 선생님인 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하셨고 인천에 사시면서 누님과 형님 두 분을 낳으셨다.

6.25전쟁이 터지고 빨갱이들이 교인들을 잡아 만행을 저지르자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몸을 이끌고 부산행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국도로 걸어서 경주로 피난오게 되었으니, 내가 경주에 태어나서 현재도 경주에서 개원을 하고있는 원인 제공은 바로 6.25전쟁인 셈이다.

경주에는 산파를 하고 계시던 고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경주로 피난을 오셨단다. 고모님은 나를 보면 "이까대학(의과대학) 가라" 하셨고, 나는 이까대학에 가면 좋아하던 오징어를 마음껏 먹을 줄 알고 늘 이까대학에 간다고 대답하였는데 결국 의사가 되었다.

경주에 정착하여 일본 나라상업고보 출신인 아버님은 경주세무서에 2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세무서 주사자리를 사표내시고 가난하지만 교육자의 길을 다시 택하여 교편을 잡으셨고, 34세 때 산내에 있는 의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 훗날 이야기를 들으니 세무서에 근무하실 때 과수원 주인이 사과박스를 갖다 주셨는데 그 속에는 돈이 많이 들어있었고 아버지는 호되게 나무라며 돌려주셨다고 한다.

전쟁중에도 아이들은 태어나는 것이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1952년 임진년에 경주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어머님과 형님들은 현재 인천과 서울에서 살고 계시고 나는 고향인 경주에 살고 있으니 나이가 들면 전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것인가?

아버님께서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생각난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교육시켜 대학을 보냈는데 정작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 내자(어머니)에게 장사를 시켰다는 내용이다. 사실 어머니는 여러가지 일을 하셨다. 미장원도 하셨고, 현 경주시내의 월성초등학교 옆에 그 당시 경주에서 가장 큰 여관인 안동여관이 있었는데 그 앞 건물에서 다보상회라는 기념품 가게도 하셨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저녁을 먹고 들이닥치면 어머니와 누나, 큰형은 기념품을 팔고 손재주가 좋았던 작은형은 필통에 다보탑, 첨성대도 새기고 경주기념이라는 글도 새겼는데 나는 어리니까 높은데 올라서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는가 지키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신앙심이 깊으셨던 어머님께서는 교회에 가실 때면 늘 어린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어머님 품에서나 옆자리에서 자다가 추워서 깬 기억들이 문득문득 난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집 옆에는 미나리꽝들이 많았다. 나는 학교를 마치면 매일 호박철이, 메뚜리, 개구리들을 잡으러 다녔다. 하루라도 미나리꽝에 빠지지 않은 날들이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꾸지람 한번 안하시고 매일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집에는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나는 방과후면 토끼풀을 뜯으러 다니곤 하였다. 하루는 풀을 뜯으러 갔다가 보리를 뜯어온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짐해 놓고 또 한짐 더하러 갔다가 주인한테 잡혀서 바지와 신발을 뺏긴 채



집으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300원을 주고 무마를 시키셨다. 그래서 한 동안 내 별명이 '300원짜리' 가 되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커튼해 올 사람하고 물으면 나는 항상 저요하고 손을 들었다. 집에 와서 얘기하면 어머니께선 별꾸지람을 하지 않고 학교 비품을 해주셨다. 한번은 길에서 동전 하나를 주워서 가져오니 파출소에 갖다주라고 해서 파출소로 가져갔는데 주인을 찾을 수 없다고 도로 주어 받아 온 일도 있었다. 또 서천내 근처에서 고추를 따다가 어머니께 드렸다가 혼이 나고 그 자리에 갖다 두고 온 일도 있다. 아마 이것은 남의 물건이나 돈을 욕심내지 말라는 무언의 교육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 형님들이 공부를 잘 안하니까 내가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께서 나를 대구에 있는 계성중학교에 입학시키면서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개학 첫날 계성학교의 상징인 50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뛰어 내려오다가 그만 가속도가 붙어서 넘어지면서 복숭씨가 박살이 나게 되었고 캐스트를 하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한달 이상을 나를 업고 버스를 타고 학교 교실까지 데려다 주셨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인천 길병원 응급실을 다녀오셨다. 혈당이 500이 넘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였다. 마침 응급처치를 받고 호전되어 집으로 오셨다. 그주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인천에 가서 뵙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인슐린 맞았던 자리가 곪아서 또 응급실에 갔다고 한다. 그래서 평일날 내가 인천으로 갈 수가 없어서 막내아들을 인천으로 보내서 모시고 와서 경주에 한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을 것이고 어머님께서는 구순이 된다.

어머님! 개구장이였던 막내가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고집만 부렸는데 저도 자식을 셋 낳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다보니 이제야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군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백살까지는 사셔야죠, 권사님! 봉사하던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구요. 며칠후 구정이 되면 뵙겠습니다.

어머님 눈물로 만든 진주목걸이



정능수 | 동산연합의원(의성)

"따르릉"

약 6년 전 초가을 오후 진료실 정적을 깨는 전화기 벨소리가 들린 뒤 얼마 후 간호사가 전해주던 수화기에서 10년 만에 듣게 되는 고등학교 친구 목소리가 다급하였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의사인 나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할 때는 퍽이나 딱한 병에 대한 것이겠지하는 우려가 나의 뇌리를 스쳤다. 내용인즉 위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결과 위암 3기로 판정받았다고 향후 치료 및 예후에 대해 문의하였다.

위암 3기의 수술가능성 여부 및 5년 생존율을 설명하고, 부모님 중 어느 분인지 여쭈어보니 부모님이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 본인의 이야기라는 말에 깜짝 놀랐으며, 더구나 수술을 거부하고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말에 다시 한 번 당혹스러웠다.

퇴근 후 만나서 상의하자고 설득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 나의 손은 잠시 힘겨웠다. 친구 말에 의하면 봄에 대구 모 내과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상 만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내과적 치료를 받아 조금은 증세가 호전되다가, 약을 중지한 후 증세가 재발하여 한방치료를 받아도 별 변화가 없어 며칠 전 위내시경 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단다. 복부CT상 위암 3기로 추정되어 수술해도 가망 없다고 친구 스스로 판단한 상태였다.

그 날 오후 나는 대구 모처에서 친구와 만나서 모친에 대한 추억에 대해 언급해주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부친 장례를 치른 후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외삼촌(전 제남병원 송오달 이사장)께서 모친의 병에 대해 내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모친이 처음에 잇몸에 피고름이 나서 개인 치과의원에서 치주농양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동산의료원 치과에 입원하여 조직검사 받은 결과 좌 하악골에 악성종양(골육종, osteosarcoma)으로 진단받았으며, 수술을 하면 안면기형이 심하고 예후도 불확실하여 치료를 더 이상 거부하고 포기한 상태로 지내던 중, 느닷없이 외과전문의로 개원중이던 부친(정운학, 전 동산의원 원장)이 먼저 간경변증 악화로 갑자기 사망해서 곧 줄초상을 당해 5남매가 고아가 될 것이라고 걱정이 늘어졌다. 그 당시 나의 나이 16세, 어머님의 연세는 38세였다.

부친 사망 후 어머님은 본인의 병으로 힘들었으나 어떻게든 우리 5남매를 고아로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투병을 시작하였다. 주위에서 권유하는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시던 어머님이 굿판도 벌렸으며, 월남전 당시 베트남에서 가지고 온 벌레 종류도 병에 좋다고 먹었다. 일본 의과대학 암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실험용 항암주사(현재 추론해보면 tubercin Ⅲ 같은 면역요법제로 추정)를 구입하여 실험대상으로 주사를 맞았으며, 중국에서 구입한 확인되지 않는 쓰디쓴 중국약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당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어머님은 생을 포기하려고도 하였으나, 이내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의지력으로 동산의료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는 지속되어 생명이 연장되었다.

여러 가지 치료를 총동원하여 받던 중 두통이 심해 Brain CT시행하니 뇌저부에까지 전이된 암 세포가 발견되었다. 재입원 후 여러 가지 치료에 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좌측 대퇴골 상단에 암세포 전이에 의한 병적골절(pathoiogic fracture)의 합병증이 발병하였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해줄 것이 없다고 Hopeless discharge를 권유 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하였다. 가족들은 거의 포기 상태였다. 그 당시 내 나이 19세(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대구지역에서 그 당시 동산의료원 치료방사선과를 수련하고 계시던 외사촌 형수님인 김명세(현 영남대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선생님과 상의하여 마지막 치료수단으로 코발트방사선 치료를 방사선 조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무릅쓰고 실시해보기로 하였다.

주위사람들의 격려 덕분인지, 여러 가지 항암치료 덕분인지, 코발트방사선 치료 덕분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면역계통의 NK cell(nature killer cell)의 조화인지 암세포 조직의 전이가 멈추고 건강이 호전되어지고 있었다. 다시 시행한 Brain CT상 암세포의 뇌전이도 점차 없어지고 원발소 하악골 암종에서 나오던 분비물(discharge)도 멈추게 되었다. 마치 로또복권의 1등 당첨된 듯한 확률을 얻은 기쁨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내가 의과대학 2년 때 갑자기 호흡곤란 및 전신 부종으로 다시 경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다. 고혈압, 승모판탈출증(mitral valve prolapse)에 의한 심부전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승모판탈출증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내과적 치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남편을 일찍 사별한 어머님의 장남에 대한 기대는 무척이나 커서 나의 인생 항로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으며, 나는 주위사람으로부터 '애 어른' 이란 별칭을 갖게 되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저의 기둥이 무너지므로 같이 이겨내어 집안을 일으키자고 어머님께 애원해서인지 어머님은 다시 병마를 뚫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시게 되었다.

암이나 불치의 병과 투병하는 사람에게 늘 저희 어머님의 이런 병상기를 소개하여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권유하고, 위암 병기가 진행되어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낮더라도 로또복권 사서 당첨되기를 바라는 기대치보다는 훨

씬 높다는 경대 외과 유완식 교수님의 확률 이야기를 같이 들려주곤 한다.

모친에 대한 나의 회고를 다 듣고 난 나의 고등학교 친구(위암 3기)는 드디어 위암 수술받기를 결정하고, 나에게 위암 수술 받을 병원과 외과교수님 소개를 부탁하며 포기하려던 인생을 다시 살아보려는 의지로 재충전하였다.

지금부터 4년 전 투병을 계속해오시던 어머님은 방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응급 두부MRI 촬영결과 양측 측두부 경막하 두개내 출혈(subdural hemorrhage)으로 영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1주간 인공호흡기로 버티다가 승모판탈출증(mitral valve prolapse)에 의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73세의 연세로 사망하게 되지만, 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의지력이 인생 후반의 병마를 싸우는 튼튼한 버팀목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어머님의 힘의 원동력은 어머님의 자식에 대한 모성애임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현재 우리 형제들의 모습은 이러한 어머님의 고통의 눈물을 꿰어 만든 진주목걸이가 아닐까 반추해본다.

내가 너희 내외 너무 애먹인 것 같구나



배경일 | 경일의원(영천)

나는 시골에서 외동아들로 자랐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한 반에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는 절반 정도였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옥수수 가래떡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러나 나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뒤 담장으로 가서 어머니가 전해주는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서 교실로 향했었다.

어머니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항상 새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시어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형제가 많았던 시절이었고, 부모님들이 농사일이 바빠 친구집에 갔을 때 살갑게 맞아주는 집이 거의 없을 때였다. 심지어 농사일이 바쁜 철에는 많은 아이들이 농사일을 돕느라고 결석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우리 집에 놀러오는 것을 좋아했다. 다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잠깐 들을 각오는 되어 있어야 했다.

나는 이렇게 어머니께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나 나는 내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립 서비스에 불과한지를 작년에 느낄 수 있었다.

작년 여름 어느 저녁, 전화에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내일 어머니 집으로 들리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퇴근 후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또 당신의 예민한 신경에 무언가 못마땅한 것이 있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요즈음 내가 너무 어머니께 뜸했었다고 반성하고, 내가 좀 더 자주 찾아 뵙고 재롱을 부리면 곧 괜찮아진다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어머니는 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무수한 complain을 쏟아내셨고, 혹시나 해서 하는 여러 검사에도 별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달 이상 집사람과 번갈아

거의 매일 어머니께 들르고, 약 챙겨드리고 소위 이야기 하는 영양제 주사도 놓고 했으나, 매일 달라지는 complain에 드디어 나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지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퇴근 후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은 그 많은 complain의 source가 어딘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날 알았다. 벌써 일흔을 훨씬 넘으신 어머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백내장으로 시력도 많이 흐려지고, 청력도 많이 떨어져 모임에 갔을 때 애매한 웃음을 지어야 했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치료한 치아가 시원찮아 요즈음은 식욕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불편함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세요' 하며 아는 병원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나를. 그날 도저히 아프고 기운이 없어 못하겠다고 미루어 두었던 백내장 수술부터 하자고 설득했다.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어머니의 최고 잘난 아들이 최고의 선생님께 직접 부탁하고, 다른 많은 증상도 입원해 있는 동안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몇 달 못 본 서울에 있는 딸도 내려오라고 하겠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해 간신히 수술 허락을 받고, 마음 변할까봐 초스피드로 입원, 수술을 하였다. 그 후 거의 한 달 이상 지나는 동안 반대편 백내장 수술하고, 며느리 손잡고 치과 치료도 다니시고, 보청기 착용도 연습하시고 하며 어머니는 조금씩 그 여러 가지 이상했던 증상이 하나씩 없어져 가고 있었다.

그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집사람과 같이 어머니께 갔었던 날,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나서 이것저것 불편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내가 몇 달간 너희 내외를 너무 애먹인 것 같구나. 이제 그만 추슬러야 하겠는데"라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씩씩해지시고 기분도 너무 좋아 보였다. 나는 또 한 번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본인의 병이 신경성이라고 절대로 안하시는 분이, 본인의 여러 가지 증상이 신체의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고 가족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우울증인데, 자식의 고생이 마음이 아파 스스로 떨쳐내셨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수 없이 되뇌이며 앞으로는 정말 착하고 살뜰한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이제 겨우 1년 정도 지난 세월이지만 나의 태도는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맞장구칠 줄도 모르고, 조금만 거슬려도 여전히 짜증을 부린다. 작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10년, 20년 뒤 나는 어떨까? 우리 아이들은 내게 어떤 존재일까?

오늘 이 글을 쓰며 다시 한 번 반성해 보지만 나는 얼마나 변할까? 자신이 없다.



무언과 묵언으로 가르치신 어머니



박봉기 | 박내과의원(문경)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는 '엄마'라는 말보다는 '어머니'라고 불렀고, 한살 씩 나이 들어가면서도 '엄마'라고 하던 친구에게 '아직도 애기처럼 엄마'냐 하는 기분이 들곤 하였다.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입학한 시골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라고 부르던 호칭 때문에 꽤나 놀림을 받기도 하였지만 나로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면 '엄마'라는 것보다 푸근함과 친근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대신 나의 성장존재를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또한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한다는 책임감도 따랐기에 당연한 용어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무렵,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1960년대, 모두의 삶이 어려웠듯이 공무원이던 아버지의 월급만으로는 자식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칠성시장에 조그마한 단칸방이 딸린 식당을 차리셨다. 시끌벅적한 시장이 파장으로 넘어가고 시장 사람들이 각자 뒷정리를 할 즈음 학교에서 돌아왔다. 두어 시간 눈을 붙이고 시장이 완전히 조용해지면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잠 많던 시절이라 몸은 일어나도 눈이 떨어지질 않아 앉아서 졸고 있으면 행여 잠자리에 도로 누워 아들이 이 밤을 놓칠까봐 어머니는 늘 염려하였다.

어느 날부터는 앉아서 졸고 있는 내게 반대쪽으로 등을 붙이고 내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잠이 잘 깨질 않아 눈이 채 떠지질 않은 까까머리 중학생과 내일 새벽 네 시에 가게 문을 열어야하는 초저녁잠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어머니가 둘이서 잠을 완전히 바꿀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등을 기대어 있곤 하였다. 그런 어머니의 등이 내게는 누웠던 잠자리보다도 좋았고, 새벽 일찍 가게

문이 열리면서 아직 따뜻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어머니가 주무셨던 자리에 누울 때의 그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무언과 묵언으로 어머니는 나를 키우셨다.

반면에 아버지는 잘잘못을 엄하게 구분하셨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벌을 받는 과정이 일련의 의식과도 같았다. 맨 먼저 벌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얼마만큼 잘못을 하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다. 그리고 벌을 받고 나면 내가 왜 벌을 받았는지, 벌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실하게 알아야 하였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벌을 받았음을 아버지께 분명한 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했고 이 말은 내게는 긴 기도후의 아멘의 의미와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냉정하고 분석적인 체벌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감성적이었던 어머니에게도 그 시간만큼이나 벌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방문 쪽으로 돌아앉아서 한마디 말도 없이 소리죽여 내내 같이 울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는 한 번도 큰 소리로 야단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나는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다. 사랑한다든지 애틋하다든지, 아니면 그립다든지 하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느낌보다는 어머니의 나에 대한 느낌이 더 쉽게 와 닿는다. 자식들이 빨리 자라지 않아 지나가고 있는 어머니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애써 감추면서 자식들에게 보여 주었던 안타까움, 애틋함, 기다림, 관심어린 눈길…….



그렇게 긴 힘들고 고된 여정은 남편을 사별하고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면서 끝이 났다. 여든이 다 되어 많이 쇠약해지신 몸으로 집안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하는 자식들 입에서 양로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홀로 된 몇 명의 친구들과 두런두런 교통 좋은 조그마한 아파트에 일찌감치 자리 잡으신 걸 보면 밥해 먹을 기력이라도 남아 있을 때 어릴 적부터의 오랜 친구들과 지내고 싶어 하는 눈치였는지 모른다. 점심에는 이 집에서 국수 먹고, 저녁은 저 집에서 떡국 먹고, 또 그러다가 누구 네 생일이나 기념할 일이라도 생기면 외식도 한번씩 할 수 있는 가까이 사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된 셈이다.



두어 해 전부터는 경전을 공부하신다고 불교대학에 다니셨다. 그저 한글을 깨칠 정도로 학교를 다니신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하시었다. 노인대학에서 노인네들 끼리 모여 공부하는 동안 불교 설화 속의 빈자일등(貧者一燈, 가난한 자의 조그마한 등불공양)처럼 처음으로 조금씩 깨달음을 얻어가는 초등학생처럼 그 모습이 참으로 간절하고 천진스럽게 보였다. 내가 고등학교나 대학시험을 치를 때도 아마도 어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당시로는 꽤나 멀고 험했던 갓바위를 올랐을 것이다.

이제는 용돈을 드려도 쓸 힘도 쓸 곳도 점점 없어져가는 자그마한 노인이 된 어머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꼭 안아주는 것 밖에는 없을지 모른다. 마치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할 지를 몰라 그냥 나를 살며시 껴안아 주셨듯이.

아! 어머니—

내 인생의 등대이신 어머니



권오양 | 권오양신경정신과의원(영천)

어둠이 내린 퇴근길에 동구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았다. 날씨도 추운데 나와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왜 나와서 기다리시느냐고 여쭈니까 젊은 날 늦게 귀가하시던 네 아버지를 기다린 일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내가 늦게 집에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구나 하시며 웃으셨다.

대학시절 친구와 긴 겨울 등산을 하고 돌아 왔을 때도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반겨 맞으시며 집에 돌아오기까지 하루도 편히 자지 못했다는 어머니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팔순 할머니가 되셨다.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4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한 번도 자식들에게 시부모 원망을 하신 적이 없었고 항상 아껴주어 감사하고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고만 하시는 어머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팔남매를 키우시고 회갑도 되기 전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지난 해 팔순이 되셨다.

지금까지 앞만 보며 살아온 내 자신이 부끄럽고 어머니와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조차 없다는 사실에 더욱 더 마음이 아팠다. 더 연로하시기 전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동생가족과 함께 뱃부 온천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여행은 내내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고 고성을 오르고 화산고지를 돌아보는 빠듯한 여정이었는데 지친 마지막 날 저녁이 되어서야 잠시 온천욕을 했다.

사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머니께 즐거우셨는지 여쭈니까 힘들어서 다시는 여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모처럼 준비한 효도관광이 지치고 멀미나는 고생관광이 되었고, 내가 한 일이 어릴 적 베개 머리맡에서 들었던 청개구리가 한 행동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고생만 잔뜩 시켜 드린 온천 여행이 되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낯선 음식도 먹어보고 사진도 찍고 같이 경치를 구경하며 얘기를 나누었던 며칠간의 일정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언젠가 중국에서 칠순 노인이 아흔 노모를 자전거에 태워 몇 년에 걸쳐 중국횡단 여행을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모곡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졌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번은 꼭 어머니와 함께하는 가깝고도 편안한 여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항상 등대처럼 나를 비추고 계실 어머니를 위해 나는 오늘도 힘껏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김철기 | 김철기소아청소년과의원(구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오신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 만지고

그리고 한번 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을 읽으며 지난 4월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85세의 연세에도 아침 운동 빠짐없이 나가시며, 식사 거르지 않으시고, 감기 크게 안하실 정도로 건강하셨기에 갑작스런 죽음으로 생긴 빈자리는 한참동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5남매의 막내로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 곁을 떠나 형과 대구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짐을 싸서, 포플러 가로수가 길게 늘어선 털털거리는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려서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시골에 혼자 남아 있을 때에 객지로 떠난 형들이 방학 때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 큰 나무 아래에서, 하루에 몇 번 밖에 오지 않는 버스를 어머니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하염없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손수 키우신 아끼던 씨암탉의 목을 비틀어서 가마솥에 끓여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때 잠들면서 어렴풋이 느꼈던 어머니 가슴의 따뜻함이 지금도 손끝으로 아련히 느껴집니다.

막내라서 같이 있을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애처롭게 여기셨는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셔 식구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며 기력을 잃으실 때도 제가 옆에 가면 눈빛으로 끄덕여주시며 손을 꼬옥 잡아주셨습니다.

유달리 꽃을 좋아하셔서 "벚꽃 구경가자" 하셨는데 4월 어느날, 고통 없이 환하게 웃으시며 주무시듯이 어머님은 우리 곁을 따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들 걱정일랑 마시고, 아버님과 함께 평소에 좋아하셨던 세상구경, 꽃구경 다니시며 편안하게 잘 지내십시오.



【원로 초대석】

의사회의 산 증인 이병채 원장님

취재_ 이봉구 · 편집위원

이병채 선생님은 경상북도의사회의 산 증인이고, 생생한 의사회 역사이시다.
도의사회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그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정열을 바쳐 오셨다.
이병채산부인과의원을 폐원하고 포항 소재 고려요양병원 관리원장으로
공기 좋은 곳에서 노인들과 지내시며 노인요양 진료를 맡고 있는 이병채 선생님을 찾아가
남다른 의사회 사랑 얘기를 들어본다.

온 세계가 경제 불황의 늪에 점점 빠져드는 느낌이다.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 의료계도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참으로 힘든 시기이다. 그러다 보니 회비 납부며 회원들의 의사회 참여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 집행부조차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 의료계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회원들의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대다수가 개인 일, 진료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래도 뜻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의사회는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으리라.

이병채 원장님은 경상북도의사회의 산 증인이시고, 생생한 의사회 역사이시다. 도의사회의 창립을 주도하시고 그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정열을 바쳐 오신 분이다. 원장님의 남다른 의사회 사랑 얘기를 통해 우리 의사회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해 보자.

"할 말도 없는데 뭘 나같은 사람얘길 쓰느냐"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사양하셔서 어렵사리 만나 뵐 수 있었음을 밝혀 둔다.

4년간의 긴 투병생활

이병채 원장님은 본적이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동이지만, 공무원이던 아버님의 근무지였던 청송군 안덕면에서 1931년에 출생하셨으니 올해 연세가 일흔 여덟이시다. 소학교(초등학교)는 부친의 직장을 따라 세 군데 소학교를 전학 다니다가 대구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 1943년 대구 대륜중학교에 진학하여 재학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어 감격스런 해방을 맞이하였다. 1949년 6월, 중학 6년 졸업(그 당시는 6년제 중학학제)과 동시에 대구의과대학 예과로 진학하였다.

1학년 중간쯤인 그해 11월에 늑막염이 발병하여 학교를 휴학하고 긴 투병생활에 들어가시게 된다. 늑막염 증상이 너무 심해 대구의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인 1950년 6월 북한군의 남침으로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인다. 그러자 국가에서 의대교수 동원령이 내려져 교수님들이 군에 동원되니 진료가 사실상 마비되며 부속병원이 자동 폐쇄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퇴원하여 자가치료를 시작하였고, 약 4년간 부모님의 극진하고 열성어린 간호와 치료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힘들었던 복교, 그리고 의대 졸업

건강이 회복되어 복학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대구의과대학 예과는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로 학제가 변경되었고, 또 전쟁의 혼란스런 와중에 서류들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갖은 고생 끝에 1953년 의예과에 복교가 허락되었다.

복교 후 나이 어린 후배들과 같이 공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순조롭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59년 4월 20일 의사국시에 응시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셨다. 졸업 후 동기들과 같이 마산 군의학교에 입교하였으나 신병의 후유증으로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퇴교되었다. 그 후 모교 산부인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1964년 8월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1968년 8월 31일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동안 경북의대 산부인과 외래강사, 외래조교수, 외래교수를 역임하셨다.

포항에서 개원, 의사회 활동 시작

1974년 10월 포항시에서 이병채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시면서 과의 특성상 밤낮 가리지 않고 종일 병원을 지켜야하는 처지임에도 시간을 쪼개 대민 봉사 활동, 의사회 활동을 시작하셨다.

1981년 행정적으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상북도의사회도 자동 분리되어 대구의사회가 경북의사회에서 독립되어 나가게 되니 800명 이상이던 회원수가 200명 남짓으로 줄어들어 회 존립 자체까지 걱정할 형편이었다. 그 때 경상북도의사회 재건위원으로 선출되어 회칙 개정(재정의 어려움으로 회비인상 등) 및 사무국 구성, 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느라 당시 김태수 도회장님과 함께 전력투구하셨다.



▲ 개원 초기의 이병채산부인과의원

포항시의사회장, 도의사회장, 중앙대의원회 부의장, 대한의협 감사, 고문

1982년에 포항시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처음으로 회사무국을 개설하여 오늘날의 포항시의사회 사무국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1991년 4월 경상북도의사회 35대 회장에 피선되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려 도의사회 회무운영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데 이바지하셨다.

또한 1985년 4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도의사회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하셨고, 1994년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회 부의장으로 피선되어 활약하셨다. 1997년~2000년 대한의사협회 감사로 피선되어 중앙회 운영의 초석을 놓는 데도 크게 공헌하셨다.

그동안 CIMMAO(아시아, 대양주 의사회연맹) 총회 인도회의(1995. 10. 5~10. 10)와 태국회의(1997. 12. 5~12. 10)에 참석하셨으며 WMA(세계의사회) 캐나다 총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셨다. 이같이 다양하게 의료계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사부장관 표창 2회 등 많은 수상을 하셨다.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2003. 5~현재)으로 직간접으로 의사회 회무에 참여하고 계시다.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1992. 3) ▲



▲ 대의원 총회 단상, 남주현 의장과 함께(1994. 3. 24)



대한의협 수석감사 재임시 질의 모습(1998. 4) ▲



◀ 유공회원에게 공로패 수여

▼ 경북·전북의사회 친선의 밤, 전북 이국재 회장과 함께



▼ 경북의사회 상임이사들과 함께(1991. 10)





▲ CIMMAO총회 인도회의(1995. 10. 7)



CIMMAO총회 인도회의(1995. 10. 7) ▲

의사회 활동하시면서있었던 뒷얘기 좀 들려주세요.

"포항시의사회장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포항시 대마지구 주택단지 조성 매립지에 사람 하퇴부가 발견되어 토막살인사건 발생이란 비상조치가 발령되어 전 경찰을 긴장시켰는데, 알고 보니 시내 모 병원에서 적출된 인체 부위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적출물 처리업자(상이용사회에서 맡고 있었음)의 불법처리로 판명되어 의사회장인 본인과 해당 병원장, 처리업자 등이 경주지검에 입건되어 수 차례 검찰지청에 출두하여 조서작성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어 의사회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적출물 처리가 완전치 못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때라 의사회에 '적출물처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를 관리하였고 전국에서 모범기관으로 인정되어 타 시도에서 설립개설과 운영방법을 확인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차츰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의사회 자체에서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이기에 적출물처리 관리위원회를 본의사회에서 분리하여 당시 운전기사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전문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의사회 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남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살려면 본인은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제가 매사에 적당히 하지 못하고 꼼꼼한 편입니다. 굳이 좌우명을 들라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지요.

또한 의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간혹 관계가 소원해진 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건이 터졌을 때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수습해 놓으면, 어떤 회원들은 엉뚱하게 뒷말을 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 허탈하기조차 했습니다.

만혼

원장님께서 의대 다닐 때 돌아가신 아버님은 늘 "결혼은 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아버님 말씀대로 1967년 1월 21일, 나이 37세에 만혼으로 10년 연하인 사모님(유향자 여사)과 중매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를 두셨다. 아드님은 서울에서 모기업의 중견간부로 근무



포항시 의사회원들과 경주조선CC에서(1997. 6. 15) ▲



▲ CIMMAO 태국회의, 유성흠, 문태준, 유성희 선생님과 함께(1997. 12. 5)

CIMMAO 태국회의, 유성희 의협회장과 함께(1997. 12. 5) ▼



"민주주의 한다고 윤리, 도덕마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윤리관, 도덕관을 전승하여야 하며 그 기초위에 민주주의를 접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전국민 일치단결하여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나보다 남을 도울 줄 아는 희생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고 있으며 손자 2명을 두었고, 따님은 미국에 살고 있고 외손주 하나를 두었다.

완고한 성격이셔서 사모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 같다고 여쭙자 요즘은 사모님 목소리가 부쩍 커지셨다며 껄껄 웃으신다.



▲ 괌 여행 중 사모님과 다정하게 한 컷

건강은 어떠십니까?

지난 2008년 여름, 의대입학과 동시에 얻은 늑막염의 후유증으로(COPD) 3주간 영남대학병원에 입원가료하였으며 지금은 회복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병채산부인과의원은 폐원하고 포항소재 고려요양병원 관리원장으로서 노인요양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노인들과 지내니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사들은 자기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데, 무엇보다 자기건강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요즘의 사회와 의료계를 바라보시며 충고해 주신다면?

의과대학 학제가 예과 2년을 더 이수하는 것은 의술은 인명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의사의 인성교육이 강조되어 2년을 더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이란 유년기부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듣고, 보고 느껴지는 마음의 교육으로서 비단 의사에게만 강요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에 강요되는 것으로 오늘날에 발생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인성교육 부재를 느낄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한다고 윤리, 도덕마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윤리관, 도덕관을 전승하여야 하며 그 기초위에 민주주의를 접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채 원장님이 재직중인 고려요양병원 ▲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납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전국민 일치단결하여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나보다 남을 도울 줄 아는 희생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의료계를 보면 1970년도 의료보험 실시 초부터 제도의 모순, 수가현실화, 의약분업 문제 등 대의원 총회 때 마다 집행부 사업에 제안되고 있으나 속시원한 답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 제일 중요하며 모든 회무수행에 박수로 독려하시기를 바라며, 의사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한 말씀

예전에는 다른 학교 선배도 선배로서 깍듯이 예우해 주었는데 요즘은 선후배 관계가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금전관계에 너무 민감한 거 같아요. 사회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병채 원장님의 삶을 돌아 볼 때 원장님은 "의사회 일"이 곧 취미였을 정도로 우리 의사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다. 만사 제쳐두고 의사회 일을 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오신 분, 의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다. 의사회의 기틀을 튼튼하게 세워주신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우리 후배들 곁에서 조언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길 빈다.



| 의사회 탐방 |

문경시 의사회를 찾아서

1. 문경 가는 길

11월 하고도 28일, 아직 대지에 온기가 남아 있는 저녁 시간, 차창으로 가로수 남은 잎들이 마지막 명줄을 매달고 있는 가을 끝자락을 끌고 문경시 의사회를 찾았다. 회비 납부율 1위, 회원들간의 끈끈한 유대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경북도의사회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회 운영으로 소문난 문경시 의사회. 매월 마지막 금요일이 이들의 정례 모임날이다. 오늘 방문의 목적은 도의사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또 그 단합의 숨은 비결이 무엇인지 탐방 취재하기 위해서이다.

잘 닦인 안동—문경간 34번 국도를 달리면서 '문경'은 내 머리 속에서 '새재'와 병치되면서, 조선 500년 동안 당대 현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 의례처럼 이 길을 오르내렸던 영남의 선비들을 떠올린다. 지금도 남아 있는 안동의 여러 문중 가첩에 당시 이들의 '새재 넘기'는 현실과 자아 사이의 불화와 상처로 묘사되어 있다. 53세에 사마시를 통과한 안동 처사 金南谷(1599~1635)은 진사가 되기까지 小白을 열세 번이나 넘나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결국 머리에 어사화를 꽂았던 그도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향리로 돌아와 울분과 가난 속에서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문경 새재는 몇 구비냐/구부야 구부야 눈물이로구나"? 진도아리랑에서도 새재 길은 쉬 소통되지 않는 고통과 눈물의 고개로 노래되고 있다.

서울—충주—상주—부산을 잇는 영남대로의 허리춤이자, 조선땅 변방 각지에 흩어진 인간들이 당대 현실에 발을 내딛기 위해 비켜 갈 수 없었던 새재, 이 시대에도 현실을 주무르며 죽이고 살리는 일은 문경새재 너머 저 아득한 '세울 Seoul'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새재 자락에 자리잡은 중소도시에서 소독약 냄새를 풍기는 흰 布衣의 처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잡념에 빠진 동안 차는 어느새 문경의 젖줄인 영강을 건너고 있다.

2. 문경시 의사회 월례회

시가지가 많이 쇠락했다고는 하나 과거 탄광촌의 명성을 날리던 지역답게 중심가는 제법 번화한 모양을 취하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다. 우스개 소리로 과거 석탄 산업이 활황이었던 시절 이곳에는 개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했다.

시간에 맞춰 지역 특산물인 문경약돌 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에 들어서니 원로 회원이신 전경홍 원장님을 필두로 회원들 대부분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소문에 듣던 대로 과연 문경시 의사회다. 회의에 앞서 최근 따님을 결혼시킨 이웅렬 회원의 인사가 있은 다음, 김규태 회장의 인사와 신입회원 소개로 월례회가 시작되었다. 신입회원은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된 김주영 원장으로, 80년대 문경에서 보건소장으로 재직한 후 떠나 있다가 문경이 그리워 다시 왔다고 한다. 이어지는 회무보고는 의약단체 회장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는 보고, 문경 간호대에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보고, 엘리베이터 광고가 광고 심의위원회의 영상물 저촉 여부를 질의한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광고는 심의 대상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광고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이슈가 되는 모양이다. 평점 카드를 제출하라는 공지로 회장의 회무보고는 끝을 맺었다.

회무보고 중에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박봉기 회원의 질문이 있었다. 과거 네온사인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자정 결의를 했는데, 요즘 들어 신규 개업 회원이 많아지면서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한다. 조만간 자신도 간판 교체를 해야 하는데 네온사인을 넣어도 되는지 지금 허용 여부를 결정짓자는 내용이었다. 좌중은 그 결정은 사문화된지 오래이므로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어느 지역이나 의원 경영이 만만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였다.

3. 지역의사회의 어제와 오늘

도의사회를 대표해 먼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 미리 전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회원들의 준비된 답변을 듣기로 하였다.






1. 문경시의사회 연혁을 말씀하시는 전경홍 원장님
2. 경북의사회 제5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모범의사회 표창을 받다.
3. 4. 문경시의사회 월례회

먼저, 가장 원로이신 전경홍 원장님께 문경시의사회의 연혁에 관한 말씀과아울러 지역 의사회의 기억나는 선배들에 대한 회고도부탁 드려보겠습니다.

1986년 점촌이 시로 승격하면서 점촌시 의사회가 분리되었지만 1995년 도농통합형 도시가 되면서 문경시 의사회로 재통합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는 한국인 의사는 3명이 개업하고 있었습니다. 점촌의원의 장원극 선생님, 중앙의원의 신찬균 선생님, 제중의원의 이종연 선생님인데, 세 분 모두 검정의 출신이었지요.

그 후 1950년 12월에 서울대를 졸업하신 서정후 선생님이 새재의원을 개원하였고, 이듬해에 평양의전 출신의 한남규 원장님이 태백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서정후 원장님은 58년을 한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료해 오시다가 작년 말 85세로 환자들에게 폐가 될지도 모른다며 폐업을 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과 여유와 적절한 유머까지 겸비하셔서 지역민들이나 후배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지요.

1951년 4월에, 조칠균 원장님이 평안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이 분은 원래 평안남도 태생(1914년 생)으로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의사가 되셨는데, 해방 후 원주에서 개원하시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을 오셨다가 이곳 문경이 제2의 고향이 되었지요. 의사로서 정열적인 의료 봉사 뿐 아니라, 우리 의료계를 대표해서 이 지역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1985년, 문경시 체육회 부회장 및 정구연맹 회장을 맡아 경북도내에서도 최초로 군 단위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또한 사비로 정구장을 개설하여 문경 정구 발전의 초석을 다져 오늘의 문경시가 금년도 세계 정구대회를 유치할 만큼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닦으신 어른이었지요. 또 가정적으로도 모범적이고 다복하셔서 슬하에 5남 2녀의 자녀를, 의사 3명과 법관으로 길러내셨습니다. 2000년 10월, 문경시의사회 주최로 새재 호텔에서 각 기관장들을 모시고 조원장님의 은퇴식을 가졌는데, 지역민들에게 그 분의 모범적인 의사로서의 삶을 알리고 후배들에게 귀감으로 삼게 하여, 각계 각처에서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2003년 2월, 노환으로 별세하실 때까지 의료계를 걱정하셨고, 남은 유산 중 일부를 〈조칠균 장학회〉를 만들어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70년대를 지나 80년대 초반까지 조외과(조윤식), 대동의원(박영진), 박외과(박우진), 금성의원(김성환), 동산의원(전경홍), 이 외과(이창수), 정산부인과(정한종), 정학기정형외과, 덕수의원(최강환)등이 문경 지역의 보건의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1981년 6월에 문경병원이 개원했습니다(초대이사장: 이시화, 원장: 이강한).

초기 보건소장으로는 나진원, 조재연, 박영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보건소장을 다시 의사가 맡아야 하고, 과거에는 예방의학 중심으로 보건소가 기능했는데 요즘에는 진료 중심의 기능을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의사회에서 이 부분에 힘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외과나 산부인과 영역의 수술은 집도의의 협조를 받아 수술하였지요. 진료비는 농산물로 많이 받았으며, 그것도 그 해 농사를 지어야 받을 수 있었죠. 과거 5월마다 문경의사회는 야유회를 갔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만 가다가 후에 직원들도 같이 가게 되었지요. 지역의 방사선사들에게 타지 여행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다녀오면 다들 열심히 일하곤 했습니다. 큰 수술이 있으면 시내 의사들이 다들 모여서 마취 등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하곤 했습니다. 출타할 때는 집 좀 봐 달라고 옆집에 부탁하듯이 '어느 의원으로 가세요' 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가곤 했지요.

1979년 10월 26일 은성광업소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의사회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매몰된 120명을 구출하여 응급치료를 했으나 그 중 40명이 질식사하고 80명을 살려낸 대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박대통령이 시해 당한 국가적 중대 사건으로 인해 뉴스거리도 되지 못했지요.

당시도 의약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유관 관공서 접대 등을 공동으로 해서 부담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왕진도 다녔는데, 하루 200명 정도 청진기로 진찰하고 나면 귀 속이 짓무를 정도였습니다.

문경시 의사회가 요즘과 같이 잘 단합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웅렬 회원 : 우선, 80년대까지는 회원수가 적었던 것이 단합의 가장 큰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수가 적어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정보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요즘 회원들간의 결속이 조금 약해진 감이 있는데 이참에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빠짐없이 월례회를 가진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단합이 2000년 의약분업 때 결속할 수 있었던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회원 서로간의 전문 과목과 진료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회원 증가로 의료 환경이 열악해졌지만 초기에는 간판 네온사인까지 자정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출신 학교와 관계없이 잘 모이고 선후배간 예의가 바른 것도 비결이라 할 수 있겠네요. 최근 회원들간의 취미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또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경시 의사회 자체적으로 골프대회를 열기도 했고, 정구와 테니스는 의사회 회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80년대 중 후반부터 정부의 소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시세가 위축되면서 그에 따라 이곳 의료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이웅렬 회원 : 의료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문경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도시의 축소가 다른 도시에 비해 심합니다. 90년대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경을 떠났습니다. 당시 가은초등학교가 도내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였지만 지금은 45명 정도의 소수의 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경에서는 인구 증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의사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국군체육부대의 유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유치로 인해 인구 증가와 함께 문경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의사회원들을 포함한 문경시민들은 중소기업 유치, 백두대간 관광 자원화, 노인요양시설 유치, 콘도, 골프장 등 레저 시설 확충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1986년 회원 16명 정도였는데, 5~6년 문경에서 개원하다고 조금 돈을 모으면 대도시로 떠나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된 여담으로) . 우리같이 무딘 사람들만 남아 있지요. 아, 참 96년에 저기 김양원 선생(김양원소아과)이 여자 회원으로는 처음으로 문경에 왔었지요, 아마.

김양원 회원 : 당시 회장이시던 이웅렬 원장님 한마디에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것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연말 송년회에는 주로 백악관(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마지막에는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경품으로 TV를 걸기도 했습니다. 박봉기 원장님이 그 때 TV를 탔지요 아마?

박봉기 회원 : 그날 당시 돈으로 20만원이 술값으로 나갔지요.



김용숲에서 문경시 의사회 야유회(1985. 5. 5)

회원들 중 특별한 취미활동이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박봉기 회원 : 현재 우리 문경시 의사회 총무 박재홍(세종의원) 회원이 오토바이 마니아입니다. 바이커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할리ooo 오토바이를 두 대나 갖고 있습니다.

박재홍 총무 : 10년 전까지는 술 문화 위주여서 술 잘 사주는 선배가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서 아주 좋아요(좋다는 건지, 아쉽다는 건지?).

김규태 회장 : 문경 중앙병원 원장인 이상일 회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경대학 발전기금 제1호로 내는가 하면, 서일장학회를 발족하여 문경 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생계가 어려운 의료보호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도 하고, 사회봉사 기금에도 빠지지 않고 참

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기 회장인 박봉기 회원은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를 통해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봉사대는 특히 선천성 심장병 같은 소아질환을 가진 환아들을 많이 돕고 있다.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수혜대상 환아만 해도 16명이나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의사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을 청했더니, '봄 학회는 경주서 하더라도 가을 학회는 안동, 김천, 구미, 대구 등으로 분산 개최하여 회원들이 연수 평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는 이야기가 있었다.

식당 앞 공터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귀로에 올랐다.

4. 취재를 마치고

인간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산을 넘었다. 신라가 중원을 겨누고 닦았던 계립령(하늘재)은 문경 새재가 열리면서 버림받았으며 새재 또한 이화령이 생긴 이후 외면당했다. 오늘에 와서는 고개 밑으로 터널이 뚫려 고개는 더 이상 인간에게 장벽이 되지 못하고 옛길은 끊어진 새끼 토막처럼 군데군데 숲속에 버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긴 시간의 눈으로 보면 버림받음이 곧 축복임을 우리는 새재 옛길을 걸으면서 확인한다. 그리고 문제는 새재의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문경시 의사 회원들의 삶을 통해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물과 재화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시대에, 경북 북단 소백산 자락에서 지역민들에게 인술을 베풀며, 또 의료계 선후배간에 따뜻한 인정을 나누며 의초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의사들에게 적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였다.

성심껏 취재에 응해주신 문경시 의사회 김규태 회장님과 여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해묵은 자료를 찾고 또 기억을 되살려 이참에 지역의사회의 역사를 복원하여 주신 전경홍, 이웅렬, 김성연 선배 회원님께 경의를 표한다.

취재 | 권세홍 편집위원장 · 사진 | 김종규 회원(안동병원)



| 초대석 |

변호사가 본 의사

김인수 법률고문

저는 오랫동안 경상북도의사회의 고문 변호사로서, 도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의 고문 변호사로서 특강도 하고 주로 의료사고의 피고편에서 소송대리를 수차해왔습니다.

먼저 의사와 변호사는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의사와 변호사는 가장 인기 있는 전문직종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변호사의 경우 하루 하루가 다르게 불황에 빠져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변호사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lawschool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것이 확실시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민사사건에서 수임한 사건이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로부터 받는 항의, 이유설명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 곧 변호사입니다. 물론 이점에서 의사분들도 오히려 변호사들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의사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환자나 그 유가족들이 소위 '떼법'을 쓰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를 수 차 보아 왔습니다. 거기다가 법원 판결에서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의사들이 패소 판결을 받는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 조금만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른 2차, 3차 병원으로 전원시키게 되어 결국 치료시기를 놓치는 결과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는 곧 환자 자신, 나아가 의료 수요자인 국민 전체에 커다란 손해가 생겨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며 의학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입니다.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능력껏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가 완비되어야 마땅합니다.



김인수 · 김인수법률사무소

불과 수천원의 진료수가를 받고 진료하던 환자가 갑자기 사고사하는 경우 과연 진료의사에게 무슨 과실이 있는지도 불명하거나 의사로서는 자신의 과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도 의사에게 벌금 수백만원의 형사처벌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매우 안타까운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려면 보험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종합보험과 비슷한 의료사고보험제도를 확충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무조건 면제하고, 손해배상 전액을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의술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의사분들은 행복합니다. 의사분들은 전문적 지식으로 인술(仁術)을 펼친다면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변호사들은 자신의 수임한 모든 사건을 승소한다고 하여도 반대 당사자들로부터 미움과 질시, 증오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업무가 자신의 당사자를 위해 상대 당사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스스로 자위해 보지만 그 업보를 어떻게 속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당연히 존경받을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합시다

한규섭

의협100주년 집행위원장
서울의대 교수



경북의사회로부터 의협 100주년에 관한 기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심 놀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 정작 주인공인 의사들이 다함께 참여할 공간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치룰 수밖에 없던 행사였기에 아직도 의협 100주년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놀라왔고 또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의협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는 작년의 행사가 얼마나 성대하거나 화려했는지가 아니라, 지나 온 100년을 짚어 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1908년 김익남 선생님께서 66명의 의사들과 만드신 '한국의사연구회'를 시조로 하는 의사협회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함께 하면서 국민건강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헌을 하고 국가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탄생한 한국의사들의 모임이었기에 모든 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으면서도 1930년 조선의사협회를 창립하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하다가 강제 해산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의사들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건강과 의권을 수호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이 어려울 때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자긍심을 지켜온 의사들이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빠른 세월 안에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가장 촉망 받는 지식인으로서 잠시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는 듯싶더니 이내 시샘의 대상이 되고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이제 생존의 문제를 놓고 투쟁하는 이익집단 중의 하나로 비쳐지게 되었습니다. 의협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100여 년의 한국 의료 역사 중 의사들의 자긍심이 가장 추락한 시점에서 치루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학병원에 몸담고 있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협회의 중요한 사업을 맡아 일을 하게 되면서 그간 실감하지 못했던 의료 일선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고, 의사들 간에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들이 산적하지만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과 어떤 과제들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생존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조원이 되고 의협회장이 노조위원장이 된 듯 투쟁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하는 의미를 가진 행사를 맡은 저로서는 보다 밝고 보다 준엄하고 보다 희생적인 우리들의 각오와 자긍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윤리강령은 존재하지만 슬로건이나 비전이 없어왔기에 이번 의협 100주년 행사의 핵심은 모든 의사들이 향후 오랫동안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작하여 선포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선포한 비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의협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비전(Vision) : 100세 건강 시대 여는 믿음직한 전문인

· 100세 건강은 밝고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라는 애매한 표현 하에 의사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면서 의사가 전문인임을 애써 외면하려 노력하는 사회 각계의 일부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우리가 전문인임을 확실히 선언을 하는 의미입니다.

·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던 교수, 의사, 법조인, 종교인 등 몇 직종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신뢰는 사라지고 항상 의심의 눈총이 따르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하며 의사 스스로도 환자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술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션(Mission)

· 우리는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으로서 지식과 양심에 따라 국민건강의 수호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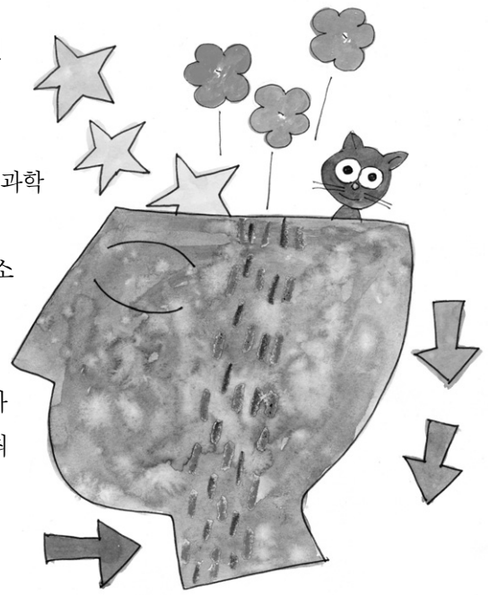
핵심가치(Core Values)

· 생명존중 : 우리는 인간생명과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

· 전문성 : 우리는 최신 의학 지식 습득에 노력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술을 수행한다.

· 윤리성 : 우리는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하고 지성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 사회 기여 : 우리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의료정보와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영역을 국민 건강을 위해 꾸준히 발전시켜 가면서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명예로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을 유지한다면 지금 잠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국민과 사회가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리라 믿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경북의대병원을 가진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들의 건승을 빌며 끝으로 미국의사협회(AMA)의 설립 목적이 참 멋있기에 소개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To promote the art and science of medicine and the betterment of public health"

의사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

정만진
전 울릉군보건의료원장



서 론

대한민국에 의사 10만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수능시험에서도 최상위권에 들어야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예과와 본과 6년 동안,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더 길어지겠지만, 수없이 많은 시험과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의사 시험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 사람의 의사가 탄생된다.

의사 자격증을 딴 후에도 5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전문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fellow과정까지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긴 과정을 거친 후에 종합병원의 staff으로 남든지 개원을 하든지 간에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긴 시간과 험난한 과정을 거친 의사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의료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년 3,0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다 보니 의사 과잉시대가 도래하였고, 의사들이 설 자리는 줄어만 간다.

의사 자격증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에서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지만 전문 과목에 따라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분야와는 먼 거리에서 질병을 연구하고 질병의 예방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도 많다. 뿐만 아니라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도 있고, 국민의 보건 증진 사업의 최일선 지휘관인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들도 많다.

의사 본연의 업무는 진료이다. 그러나 의사 과잉배출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 의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간다. 우리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전형적인 의사의 길 이외에도 얼마든지 길은 있다. 우리의 자리를 개척하고 넓혀야 한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가야야 할 자리에 의사들이 가지 않음으로서 그 자리가 황폐화되어 다른 직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의사들이 볼 때는 별로 매력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선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던 자리 중의 하나가 의사직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의사 과잉 시대에 안정적인 자리가 보장되는 의사공무원 자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사들이 무관심한 사이에 의사들이 앉아야 할 공무원의 자리에 다른 직군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처음 그 자리를 차지할 때는 조심스러웠으나 이제는 당연시되고, 아니 더욱 더 의사 공무원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의사들이 갈 수 있는 공무원의 자리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무원의 자리가 적지 않다. 그런 자리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의사회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의사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의사 공무원은 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더욱 더 의사 공무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의 자격과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보건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의사보건소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협 대의원으로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본인이 직접 의사 공무원이 되어 4년간의 경험을 쌓았다. 진료의사로서, 의사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공무원의 영역과 역할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의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많은 의사 공무원이 탄생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의사 공무원의 영역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사들은 큰 의미에서는 의사 공무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하고자하는 의사 공무원의 정의는 국공립 병원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의사가 아닌 의사로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들 중에는 진료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의사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보건소장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산하의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실제로 국가 보건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의사 공무원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로는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가족부 직할 10개의 병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고, 심지어 한국한의학연구소에도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산하의 교도소의 의무관으로 근무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정원에도 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있고, 외부부 산하 기관인 국제협력기구(KOICA)에도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안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을 통하여 국가공무원 자격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6년 현재 의사 공무원은 556명이며 이 중에서 146명이 여성으로 나와 있다. 2003년 470명에서 많이 늘어났다. 약사의 경우도 2006년 392명이었으며 2003년 276명에서 3년 사이에 120명 가까이 늘어났다. 향후 의약사의 공직 진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소장

요즘 보건소에 가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보건소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깨끗한 시설에 최신의 설비, 친절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예전에 가난한 의료보호 환자나 오갈 때 없는 행려환자가 가던 후진 곳이 아니다.

아기들의 기본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깨끗한 공간에서 금연 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며, 체지방 측정과 운동처방사가 운동 처방까지 내려주고 있다.

보건소는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중심이자 핵심 단위이다. 주민들의 질병과 보건에 관계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곳이다.

다양한 보건업무를 추진하는 보건소의 책임자는 보건소장이다. 우리나라에는 234개의 지자체에 251명의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이 있고, 이 중에서 120여 명만이 의사이다. 나머지는 타 직군으로 충원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의료계의 책임이 크다. 의사들이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장을 기피하고 의료계는 방관만 하다가 영역을 잃어버렸다.

보건소는 전국의 시 군 구 지방자치 단체마다 존재하는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진기지이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사실상 그 지역 보건업무에 관계된 모든 행정과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다.

(1) 보건소의 설치와 업무

200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법률 7266호로 공포되었으며 거기에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9조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1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 군 ·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시 군 구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34개 지자체에 251개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 법에 따르면 보건소의 업무는 16개로 구분되어 있다. 전염병 관리와 보건위생, 의사 약사 보건기사 등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 감독,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등 보건과 의료에 대한 거의 모든 일을 시행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예전의 보건소는 외형이나 시설이 열악하며,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거나 가족계획 사업이나 하는 후진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보건소는 쾌적한 환경과 최신의 설비를 갖춘 지역 보건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족계획이 아니라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주고 불임수술 복원비를 지원해 주는 곳으로 탈바꿈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이후로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 장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시도별 보건소 수 : 전체 251개

특별 및 광역시	보건소 수	도	보건소 수
서울 특별시	25	경기도	45
부산 광역시	16	강원도	18
대구 광역시	8	충청북도	13
인천 광역시	10	충청남도	16
광주 광역시	5	전라북도	14
대전 광역시	5	전라남도	22
울산 광역시	5	경상북도	25
		경상남도	20
		제주도	4

◆ 지역보건법

제7조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 · 보건교육 ·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 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 · 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7조(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 군 ·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보건소장의 임명과 직급 및 대우

보건소는 시와 구에 있는 도시형 보건소와 군 단위의 농어촌에 위치하는 보건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와 구청 단위의 보건소장은 4급 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인구가 적은 군 단위 보건소장은 5급 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단위에 위치하지만 병원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원장은 4급으로 임명하고 있다.

보건소장의 임명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단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5년 이상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지역보건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이 조문이 의료계, 국가인권위원회, 보건직 공무원 사이에서 이견(異見)과 충돌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조문이자 핫이슈의 유발인자이다.

11조 1항에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조항을 달아두었다. 본안보다 단서 조항이 우선할 수는 없다. 이 단서 조항이 붙은 연유를 보면 1976년 보건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사가 부족하여 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보건의무직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원래 법 취지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의사 보건소장의 대우는 일반 서기관이나 사무관 직급의 대우를 받는다. 군 단위 보건소의 사무관이라

면 과장, 시와 구의 서기관이라면 국장급 대우를 받고 공무원의 급여에 더하여 월 백 만원 정도의 의료수당을 받는다. 크게 욕심내지 않는다면 생활에 어려움은 없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아래 〈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한다.

(3) 보건소장의 역할

앞에서도 언급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항에 보건소장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보건소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기술된 16개의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한다. 16개 기본업무를 보면 건강증진, 전염병관리, 모자보건, 노인보건, 공중위생,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지도, 의료기사 지도, 응급의료,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 지도, 약사와 마약관리,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 의료사업, 지역주민 건강진단,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보건의료 향상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정신보건 등의 중요 사업의 수행도 보건소장이 해야 할 중요 업무들 중의 하나이다.

이 16개 사업을 세분하여 보면 지역 내 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고 봐야한다. 관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건의료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보건소장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십 명이나 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의 지도 감독도 보건소장이 해야 할 일이다. 보건소장의 역할은 다양하고 막중하다. 특히 병의원의 개설신고와 업무정지는 물론 예방접종 보고까지 지역의료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건소장은 법령에 명시된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능률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의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종의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이다. 거기에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 행정직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노동조합까지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조화롭게 지휘 통솔하는 일은 고도의 leadership과 포용력을 필요로 한다.

(4) 의사 보건소장 현황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직군은 의사, 치과의사, 보건직 공무원, 간호사, 행정직 공무원 등이다. 2006년 5월 말까지의 자료를 보면 248개 보건소(현재 251개) 중에서 의무직이 121명, 48.7%로 2005년도 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그 외 보건직이 115명으로 46.4%를 점하고 있다. 전국 보건소장의 직군별 현황과 의사보건소장의 임용 비율은 시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1997년에 45.7%에서 1998년 54.3%로 증가되었고,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된 후 개원의가 늘면서 2000년 50.4%, 2001년 48.3%, 2002년 46.6%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42%까지 줄었다가 2006년에 다시 48.7%로 늘었다.

전체적인 의사 보건소장의 분포를 보면(2005년 12월 청년의사 신문 보도) 대도시에서는 인천을 제외하고, 거의 80% 이상이지만 도 단위에서는 경남을 제외하고 50%를 넘는 곳이 없다. 특히 충남과 전남에서는 의사 보건소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그간 도 단위의 농어촌에는 의사 보건소장의 지원자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5)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된 문제와 주장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가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의 시정을 복지부에 권고하였다. 이후 보건소장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의사 보건소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이 있고, 그 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있다. 그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그 11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개진되었으나 발등의

〈표 2〉 보건소장 직군별 분포(전체 248) (2006년 5월 말, 보건복지부 자료)

직 군	보건소장 수	비 율
의 무 직	121	48.7%
보 건 직	115	46.4%
간 호 직	7	2.8%
행 정 직	3	1.2%
공 석	2	0.8%

불이 아니었기에 의료계의 현안에 밀려 핫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이, 이제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과거 의사회 업무에 깊이 관여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앙대의원으로서 의사 보건소장 문제에 대하여 안건을 올리고 의협대의원 총회 석상에서의 발언은 물론 의협회장에게도 의견을 올린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4년 동안 본인 스스로 의료원(병원화된 보건소) 장이 되어 보건소장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뛰고 있었으므 로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심과 경험이 많다.

보건소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명해야 하나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현재까지 한의사 보건소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한의사 협회에서 한의사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보건소장을 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 또는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여 해당지역 의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지난해 대전 중구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하였으나 의사회는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여운이 남지만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곳을 보면 2003년부터 경남 함안군, 충청북도 증평군, 광주 남구, 경기 파주, 충북 증평, 전남 여수, 전북 군산 등에서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의사회와 마찰이 생겼다. 2009년 현재 서울 용산구 보건소장이 퇴임한 후 서울에서는 한 명도 없는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언론을 통하여 비의사 보건소장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보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 하였고, 지방의 공무원들은 "의사 출신 신청자가 많지 않아 적절한 의사를 선택하기 어렵고 또한 의사 보건소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의사들을 임용하면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조직과 타협하지 못하여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금방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좀 더 솔직하게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 매우 큰 스트레스이며, 보건소장 자리도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는 곳이며, 의사보건소장을 임용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비용대비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료계의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6)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주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관련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생겼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의료계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에 기술한 보건소의 업무 대부분은 의사와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사를 둘 수도 있고, 중소 도시와 농어촌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도 많이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과 정신보건, 전염병과 응급의료,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그리고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의학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사로 충원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도 않고 단서 조항을 들어 편법으로 의사 이외의 직군으로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보건소장을 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이 있고 임용 후 금방 그만 두는 경우도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건소장의 일상 업무는 의료적인 측면이 크다. 보건소의 16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고 행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건직으로 두는 경우와 비의사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되고 관리의사가 의료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때,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의사보건소장이 업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전국의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AIDS, 암, 고혈압과 당뇨, 금연 등 교육의 대부분은 의사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경우가 많다. 의사보건소장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거나 의학 상담을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야 한다. 의사가 보건소장일 경우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유리하다.

(7) 이상적인 의사 보건소장의 자격

법적인 보건소장의 자격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즉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고,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이라야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명기한 16개의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적인 보건소장의 자격만으로 보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보건소장의 업무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라고 해서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의사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0명이 넘는 보건소의 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지자체의 장과 유관 기관, 그리고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펼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보건소장의 자격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사회적인 경험을 쌓은 의사이거나, 아니면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공부하고 사회적인 경험을 가진 의사라고 한다. 현직 의사 보건소장 중에는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음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사회적인 경험을 가진 의사가 상당기간 공중 보건학을 연수하였거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의사가 보건소장의 적격자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공중 보건이나 예방의학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였다. 앞으로 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보건학에 대한 수련이 없더라도 의료계에서 성공하였거나 지도자로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의사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로서의 소양이 충분하고 사회성이 높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장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아무 의사나 보건소장이 될 수는 없다. 단순히 "보건소장이나 해 볼까?"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아니다. 보건소도 이제 예전의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장도 예전의 보건소장이 아니다.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보건소장을 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의사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본부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에 의사 공무원들이 많다. 산하 기관이나 단체로는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가족부 직할 10개의 국립병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고, 심지어 한국한의학연구소에도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본부와 직할 기관의 의사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와 직계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하여 35명 전후의 의사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와 질병관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정책의 수행자들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를 비롯하여 보건과 관계되는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의사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무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위한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된다. 예전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의사를 특별 전문직으로 채용할 경우 행정고시 합격자와 같은 5급 사무관으로 대우하고 있다.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당 공무원 대우에 의료수당을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9급이나 10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도 힘들다. 간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8급을 주고, 약사가 채용되면 7급을 주는 것에 비하면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되는 의사들은 특별 대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의 공무원이 되면 자기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국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뜻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의협은 젊은 의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고 의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장했으면 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사 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본부와 7개의 지부(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창원)에 29명의 의사들이 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임상 각 과별로 그리고 지부별로 심사의 원칙을 정하거나 애매한 부분의 보험청구에 대하여 심사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채용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심지어 심사평가원장도 개방직으로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격을 갖춘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다.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유관기관 근무 의사들

대한적십자사 산하에는 혈액관리본부, 서울병원, 인천병원, 대구병원, 상주병원, 통영병원 등이 있고, 여기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산하 병원 이외에도 30여 명의 의사들이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직할 국립병원으로는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굴립춘천병원 등이 있다. 이들 국립병원에도 많은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 병원의 원장도 대부분 개방직이다.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유관기관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구 기생충박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공중보건의를 포함하여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특이한 경우로 한 의사들이 대부분인 한국한의학연구소에도 의사 자리가 있다고 한다.

법무부 산하 의사 공무원

법무부 산하에는 교도소의 의무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사 공무원이 있다.

우리나라에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 · 교화하는 시설로서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 보호감호소가 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는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 및 구류형을 받은 자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고,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있다.

전국의 교정시설은 교도소 29(개방교도소 1, 여자교도소 1, 소록도지소 1 포함) 곳, 소년교도소 2곳, 구치소 8곳, 구치소지소 3곳, 보호감호소 2개소가 있다. 이들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기에 자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산하 교도 시설의 진료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의무관의 정원은 84명이라고 하며, 현재 14명

의 의무관이 부족하여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법무부의 교정 시설에는 일반 의사 이외에 공중보건의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들은 인사이동 시에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의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에 응시하면 된다. 직급은 5급 사무관(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과 4급 서기관(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을 주고 있으며, 의무관의 대우는 공무원의 월급에 의료수당과 연구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의사 진출에 대하여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서거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반기문씨가 UN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UN 산하의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로서 WHO에 근무하는 사람은 5명이 있는 것으로 안다. 2명은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채용하여 WHO에 파견한 직원이고, 3명은 WHO의 직원이다. 또한 심평원의 원장을 지낸 바 있는 서울대학의 신영수 교수가 서태지역 사무처장에 입후보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과천 정부청사에 WHO 한국지부 사무소가 있다.

의사로서 WHO에 들어가는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WHO에 파견되는 방법과 WHO의 채용 공고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의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직군의 채용공고가 나 있고, 거기에는 의사 채용도 적지 않다. 4월 말 현재 7명의 의사채용 공고가 나와 있다.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programes and projects→employment→vacancies→medical officer"의 순서대로 찾아가면 된다. medical officer을 click 하면 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봉에 대하여 나와 있다. 연봉은 근무지역과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다르나 대략 미국 dollar로 6만에서 8만 정도로 연봉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타 수당 같은 것이 있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고, 국제적인 의료정책에 관여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지원서를 내면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2차 인터뷰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 외에도 불어나 또 다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우대받을 수 있겠으나 채용조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시절에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여 WHO 같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기구는 아니더라도 외무부 산하의 국제협력단에도 의사들을 채용하여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 일반 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사들도 갈 수 있다. 대부분 후진국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기후나 풍토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봉사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한번 쯤 도전해 볼 만 하다.

의사 공무원에 대한 의료계의 과제

양식 있는 의료계의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의사 보건소장을 비롯한 의사 공무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의협은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발등의 불이 아니었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대의원 총회의 토의 안건에 의사 보건소장 문제가 여러 번 올라온 것으로 기억된다. 심지어 농어촌에 보건소장으로 가는 사람에게 의협에서 장려금을 주자는 의견까지 개진된 적이 있었다. 필자는 중앙대의원으로서 총회 석상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의협 집행부에 건의한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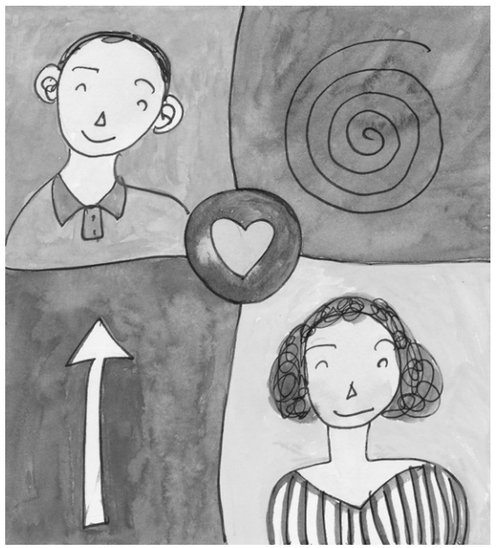
의료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단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말로만 하였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별로 없었다. 늦었지만 의료계는 이들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1) 의협 산하에 의사 공무원 지원팀 구성과 담당 이사 선임

의사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공직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전체 의사에 비하면 수적으로는 적지만 이들이 의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료계는 이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과연 의협이 전국의 의사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의사 공무원의 명단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협에 지원팀을 구성하고 담당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2) 의협회장과 의사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의사 면허를 가진 공직자가 500명이 넘고, 의사 보건소장만 해도 120여 명이나 된다. 앞으로 더 많아질 추세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졌던가? 의협과 중앙의 고위직 의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보건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었지만 의협차원에서 전국의 의사 보건소장을 한 자리에 모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회장과 의사 보건소장과 의사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아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모이기 어려우면 의협회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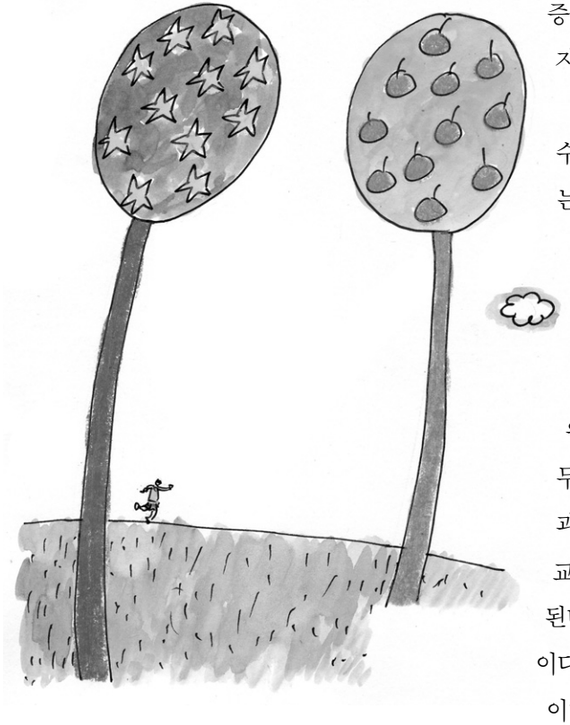
시도를 방문할 때 전국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소장이나 의료직 공무원을 오래한 사람들은 의사보다 직업공무원으로 적응되어 있다. 그들은 의사회장보다 지자체 장과 직장 상사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모으는 일도,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공무원이기 전에 의사의 신분이기에 의료계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의료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의사 공직자가 되기 위한 연수 강좌 및 인재 풀 운영

전국의 보건소는 251개이다. 이 중에 의사 보건소장이 45%를 약간 넘는다. 그렇다면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30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로 바꿀 테니 130명의 의사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단시일 내에 가능하겠는가? 보건소장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 130명을 몇 개월 내에 추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사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의사 공무원이 되는 길을 안내하고 후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심 있는 의사들을 모아 일정기간 연수강좌를 듣게 하고 수료증을 줘서 인재 pool에 등록시켜야 한다. 의협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전공이 아니면서 노인학이나 비만에 대하여 연수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여 그런 쪽으로 전공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협이 중심이 되어 의사 공직자에 관심 있는 의사들을 모아 연수강좌를 하고 인제 풀에 등록해 두고 필요한 경우에 추천하면 된다. 공직의 인사(人事)와 예산에 관한 기초지식, 그리고 공무원의 속성과 공무원 사회의 장단점을 포함하여 보건소장의 업무 등 공무원의 실체에 대하여 가르치면 된다. 현직 보건소장과, 의사 공무원, 인사와 예산 전문가 그리고 예방의학 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기획만 잘 한다면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의사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의사가 없어 비의사를 임명한다는 논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1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일을 맡을 책임자를 선정하고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4) 의사 공무원 문제를 다룰 포럼 개최 및 연구과제 선정

의료계가 의사 보건소장 문제의 실체를 알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 보건소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5) 의사 공무원(보건소장)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홍보

보건소장을 포함한 의사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수집은 물론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로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알려주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WHO 같은 국제기구에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국내에서도 식약청이나 복지부 산하에 의사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의사 보건소장은 물론 의사가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많다. 의협은 이러한 정보를 찾고 홍보하여 많은 의사들이 공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 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느 정부기관에서 의사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채용 정보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결 론

의사는 많아지고 갈 곳은 없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전형적인 진료의사 이외에도 갈 곳이 많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의사 공무원이다. 전국 251개 보건소의 보건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에 명시한 16가지의 업무는 물론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소장의 45%가 약간 넘는 120여 명만이 의사로 임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특히 농어촌의 보건소장 자리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공무원도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사 공무원의 위상과 환경도 많이 변했다.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의사 공무원도 도전해 볼 만한 직업군이다. 그 외에 WHO를 비롯한 국제적인 직책에도 관심을 가질 때이다.

의사 공무원의 영역으로는 제일 많은 것이 보건소장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산하의 기관이나 단체로는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복지가족부 직할 10개의 병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또한 법무부 산하의 교도소의 의무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정원에도 의사자리가 있다.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있고,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국제협력기구(KOICA) 등이 있다.

의사 공무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의사협회가 할 일이 많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의사 공무원과 의사들의 세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젊은 의사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 550명을 넘는다. 앞으로 국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의사들이 할 일은 많다.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러한 직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협이 대책팀을 만들거나 담당자를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공직의 의사들을 관리하고 홍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협은 현직의 의사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솔직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하여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 된다. 의협이 중심이 되어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이다.

2009년 새해 벽두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의 비의사 임명 가능성으로 시끄럽다. 의사 보건소장 임명 문제가 나올 때 "우리 의협에는 보건소장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십 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 어느 누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충원하지 못할 때…"라는 조항을 들먹일 수 있겠는가. 의협은 하루 빨리 보건소장 예비후보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의사보건소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의료계의 진료 현장과 의료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온 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공무원이 되어 4년간의 경험을 쌓았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사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이 연구 보고가 의사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경북지역 개원 의사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행태와 관련요인 연구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이라는 흥분의 도가니로 가득 차 있을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 시절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처럼 취업의 문을 뚫고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사회에 근무하면서 평소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학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논문「경북지역 개원 의사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행태와 관련요인 연구」를 통해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의식관과 생활행태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이라 하면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당사자이며, 건강관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덜 아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것이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의사 선생님들 역시 일반인들과 건강관리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바쁜 진료업무와 환자 치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싣고자 합니다.

본 논문 연구에서 발표하기까지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경상북도의사회 이원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늦게나마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여러 모로 부족한 저의 논문을 경북의사회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순길 대리
경상북도의사회

서 론



'의사, 그들은 과연 건강한가, 의사의 건강은 일반인보다 좋은가?' 이런 막연한 질문에 과연 어떠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의료전문 인터넷 신문 메디게이트뉴스(2008)에서 '의사 선생님 건강하십니까?'라는 제하로 2008년도 신년기획을 마련하였다. 그 중 '의사도 아프다. 직업병도 있

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도 겪는다. 하지만 환자를 고치는 당사자이기 때문인지 건강관리도 잘하고 덜 아프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인의 시각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한 삶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왔으며, 인간의 행복한 삶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옮겨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인간의 수명 연장은 물론 가족 및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경북지역 개원 의사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행태와 관련 요인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의사회에 개원하고 있는 의사 1,222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편 및 팩스로 회수하였습니다. 회수율은 40.8%로 498명이 응답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진한 12명의 것을 제외하고 응답이 완전한 486명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한 바 그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론

1. 일반적 특성별 조사 대상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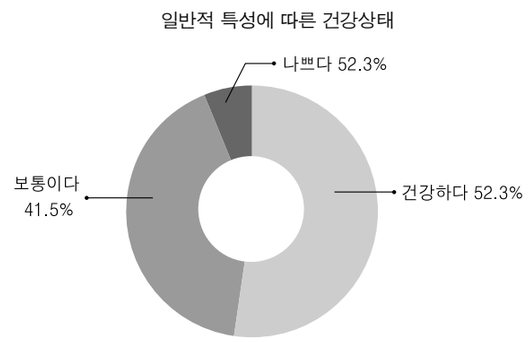
구 분		인원수(명)	백분율(%)
		486	100.0
성 별	남	440	90.5
	여	46	9.5
연령(세)	39 이하	64	13.2
	40~49	243	50.0
	50~59	129	26.5
	60~69	32	6.6
	70 이상	18	3.7
개원형태	단독개원	434	89.3
	공동개원	52	10.7
개원경력(년)	4 이하	79	16.3
	5~9	148	30.5
	10~14	96	19.7
	15~19	84	17.3
	20 이상	79	16.2
개원지역	시지역	387	79.6
	군지역	99	20.4
전문과목	내소아청소년과계열[1]	165	34.0
	외과계열[2]	175	36.0
	안피부비뇨기과계열[3]	84	17.3
	특수과계열[4]	38	7.8
	지원과계열[5]	24	4.9

1) 내 · 소아청소년과계열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2) 외과계열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3) 안 · 피부 · 비뇨기과계열은 안과, 비뇨기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4) 특수과계열은 신경과, 정신과, 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일반과
5) 지원과계열은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90.5%, 여자가 9.5%였으며, 연령별로는 40~49세가 50.0%, 50~59세가 26.5%로 가장 많았고, 개원 형태별로는 단독개원이 89.3%, 공동개원이 10.7%였다. 개원 경력은 5~9년이 30.5%, 10~14년 19.7%, 15~19년 17.3%순이었으며, 개원 지역별로는 시지역이 79.6%, 군지역이 20.4%였다. 전문과목별로는 내 · 소아청소년과계열이 34.0%, 외과계열이 36.0%, 안 · 피부 · 비뇨기과계열이 17.3%, 특수과계열이 7.8%, 지원과계열이 4.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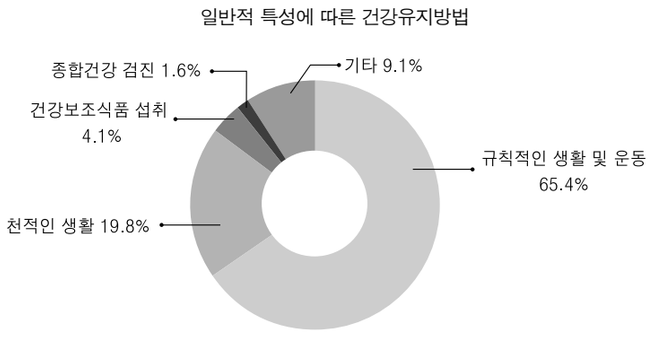
2. 일반적 특성별 건강 의식관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상태



의사들이 느끼는 건강 상태는 52.3%가 건강하다, 보통이다 41.5%, 나쁘다가 6.2%였으며, 일반적 특성에서는 '건강하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권창익(2004)의 연구 44.0%보다는 높았으나, 이은주(2002)의 약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77.4%와 일개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주희(2006)의 연구에서 의사 74.5%, 간호사 66.9%,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양현진(2003)의 연구 82.3%보다 훨씬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개원 의사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진료환경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해 스스로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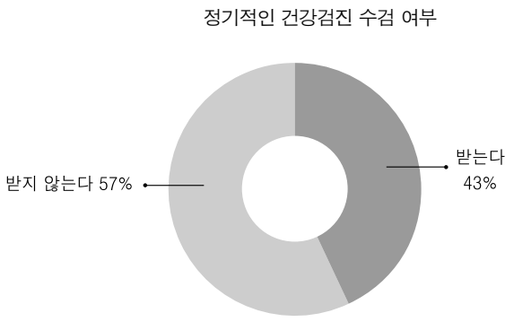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유지방법



의사들의 건강유지 방법에는 65.4%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19.8%가 낙천적인 생활, 건강보조식품 섭취가 4.1%, 종합건강검진이 1.6%, 기타 9.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채희만(2006)의 50.1%와 의료전문 인터넷 신문 메디게이트뉴스(2008)의 설문조사 49.0%와 채영석(1997)의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의사들의 건강유지방법은 다양하나 규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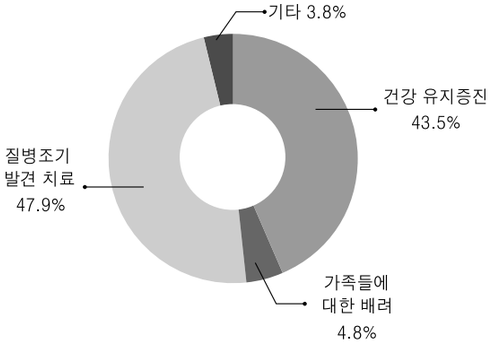
인 생활과 운동이 가장 기초적인 건강관리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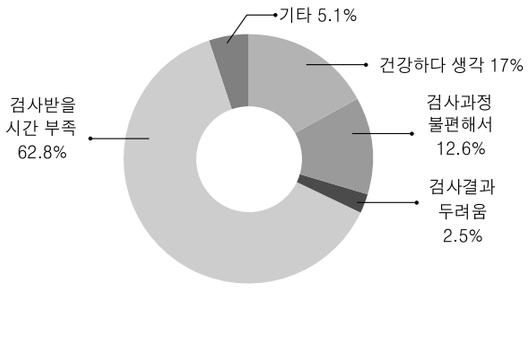
3)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검 여부



정기적인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는다가 43.0%, 받지 않는다가 57.0%였으며,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47.9%, 건강의 유지증진이 43.5%였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검사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62.8%, 건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17.0%, 검사과정이 불편해서가 12.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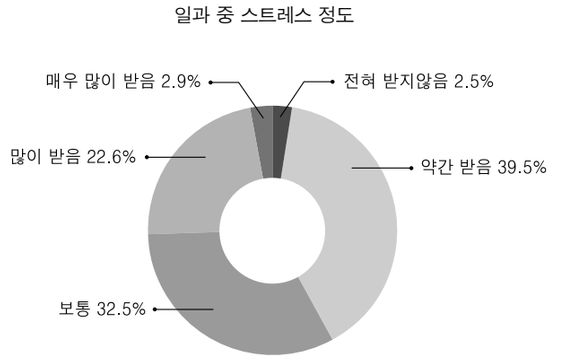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보도자료(2008)에 의하면 2007년도 전국 평균 건강검진 수검률은 59.91%였으며, 대구 · 경북 수검률은 62.02%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의료전문 인터넷 신문 메디게이트뉴스(2008)에서는 54.0%, 대구광역시의사회 내부자료(2006)에 의하면 64.0%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개원 의사들의 수검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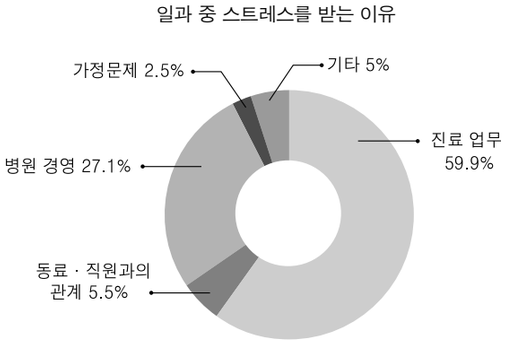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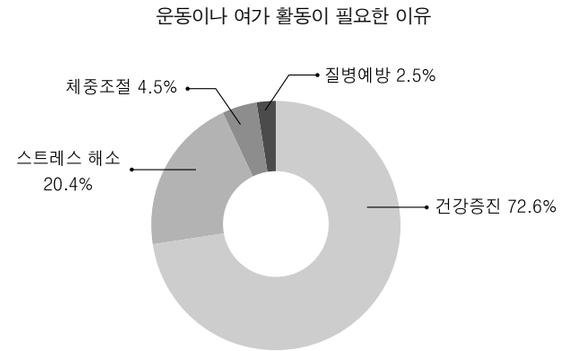
3. 일반적 특성별 정신건강(스트레스 분야) 관리

일과 중 스트레스의 정도는 약간 받는다가 39.5%, 보통이다 32.5%, 많이 받는다 2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진료업무가 59.9%, 병원경영이 27.1%, 동료 · 직원과의 관계가 5.5, 가정문제 2.5%였고, 해소방법으로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이 59.6%, 음주 · 흡연이 12.2%, 가족이나 동료등과의 대화가 11.7%, 명상 · 수면이 9.7%였다.





4. 일반적 특성별 운동 및 여가 활동



운동이나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증진이 72.6%, 스트레스 해소가 20.4%였으며, 현재 운동이나 여가활동의 여부는 열심히 한다가 41.1%, 보통이다 30.9%, 가끔씩 한다 28.0%였다. 또한 운동이나 여가 활동의 유형에는 골프 · 구기종목이 33.0%, 조깅 28.6%, 수영 · 헬스가 14.0%순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별 음주 및 흡연

1) 평소 음주 습관

개원 의사들의 평소 음주 습관은 진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신다가 39.5%, 보통이다 28.6%, 전혀 안마신다가 23.0%, 많이 마신다가 8.9%였으며, 월 2~3회가 38.8%, 주 1~2회가 35.0%, 월 1회 이하가 12.3%로 나타나 음주율은 68.1%였으며, 권창익(2004)의 교정공무원 87.5%보다는 낮았으나, 고등학교 교사 62.2%(하희수, 1999), 일반공무원의 63.6%(김선욱 등, 2004), 경찰공무원 54.8%(원사덕, 1997)보다는 높았고, 2001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의 69.8%와는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다.

2) 현재 흡연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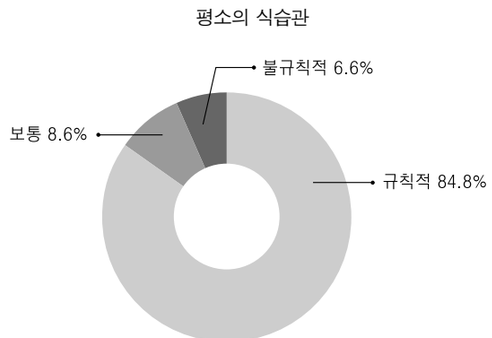
현재 흡연 유무에서는 전혀 피우지 않는다 40.3%, 과거 피우다 현재 피우지 않는다 36.0%, 수시로 피운다가 14.4%, 가끔 피운다가 9.3%였으며, 이 중 76.3%가 금연하는 것으로 이는 채희만(2006)의 연

구와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과거 채영석(1997), 변상순(1998)의 연구 결과에 비하면 흡연 비율이 30% 이상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흡연 비율은 0%에 가깝게 나타났다.

3) 금연과 금주, 흡연과 음주를 하는 이유

금연과 금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의 유지증진이 80.0%였고, 환자들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14.0%, 사회경제적인 유익이 6.0%로 나타났고, 흡연과 음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가 68.3%,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15.8%, 고통이나 불안해소가 5.9%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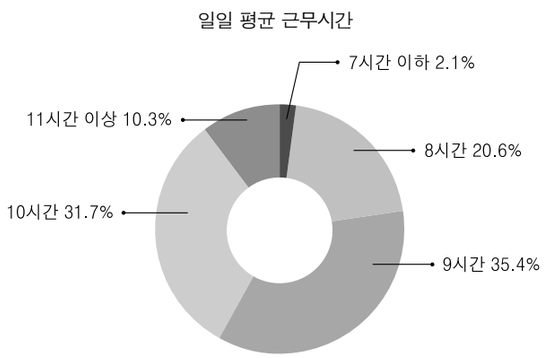
6. 일반적 특성별 식습관 및 선호음식



1) 평소의 식습관 및 선호음식

평소 식사 습관은 84.8%가 규칙적이다, 보통이다 8.6%, 불규칙적이다 6.6%였으며, 선호하는 음식은 가리지 않는다가 65.6%, 채식 위주 20.0%, 육식 위주 7.4%, 생선 및 해조류 7.0%순이었으며, 하루 평균 자극성 음료 섭취 횟수로는 1~2잔이 55.3%, 전혀 안마신다가 24.5%, 3~4잔이 16.0%로 개원 의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희만(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불규칙하다는 응답 중 외과계열에서 가장 높은 12.5%가 불규칙한 식사를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김영실 등(199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7. 일반적 특성별 대인관계 조절



일반적인 특성별 대인관계에 있어서 고민상담, 원만한 대인관계, 의견존중, 관심표현 등으로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4점), 전혀 아니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균 3.52±0.44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정열 등(1992)의 연구에서는 의사는 총 6점 중 평균 4.8±1.24점으로 일반인 평균 4.4±1.25점보다 높게 나타나 일반인보다 대인관계가 높다고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원 의사들의 대인관계는 3.52±0.44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8. 기타 관련 요인(평균 근무시간)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5.4%, 10시간 31.7%, 8시간 20.6%, 11시간 이상이 10.3%, 7시간 이하가 2.1%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에서는 200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평균 일일 근무시간은 8.46시간이었고, 인터넷 의협신문 KMAtimes에서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발표(2008)에 의하면 한국 의사들의 87.2%가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4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수는 고작 11.3%로 불과했고, 이중 개원 의사는 3.6%만이 주 40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은 '주 5일 근무제'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41~50시간이 34.8%로 가장 많고 51~60시간 27.9%, 61~70시간 8.8%, 71~80시간 3.8%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의 2배를 훌쩍 뛰어넘어 9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는 91~100시간 3.1%와 100시간 이상 5.2% 등 무려 8.3%에 달했고, 81~90시간 3.6%를 포함할 경우 약 12%가 주 80시간 이상이라는 살인적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사 발표되어 개원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은 환자 진료를 위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를 살펴 볼 때 개원 의사들의 건강 의식관은 일반인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바쁜 진료업무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사들을 상대로 한 연수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건교육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 자신의 건강의식 상태는 본 연구에서 52.3%만이 '건강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이나 타 직업군에 비해 건강 의식상태가 낮게 분석됨에 따라 스스로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사회 차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을 때 의사나 그 가족이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7년도 전국 평균 59.91%와 대구 · 경북 평균 수검률 62.02%였으나 본 연구에서 개원 의사들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43.0%로 낮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개원 의사가 환자 진료와 제반 업무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과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을 이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마련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협회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절제된 행동과 건강생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환자의 모범이 되고 건강의

유지 · 증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의사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의사 자신의 생활습관에 더 큰 관심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반복되는 환자 진료업무와 수술, 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건강을 위한 절제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사들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적 재충전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제도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생활패턴이 주 5일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사들도 변화된 제도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일 근무제'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의협신문 KMAtimes에서 개원 의사 3.6%만이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도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8.46시간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일 9시간 근무 35.4%, 10시간 근무 31.7%로 조사되어 주 5일 근무제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처해 있듯이 이러한 근무조건은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적신호가 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바탕으로 미약하게나마 의사 자신의 건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건강의 유지증진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 보도자료, 건강검진 대구 · 경북 수검률 매년 늘어, 2008. 3. 19.

권창익 : 「남성 교정공무원의 건강행태와 스트레스 정도」,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김선욱, 김성윤, 김승 : 「평창군 공무원의 건강 행태분석과 행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창군보건소, 2004.

김영실 등 12인 : 「의사를 대상으로 한 비만양상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 의학교실, 식품영양학과, 1997.

대구광역시의사회 :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원 건강검진 설문자료, 2006.

대구의사회보 : 회원 및 배우자의 건강유지 · 증진을 위한 검진사업 실시, 제359호, 2004. 6.

디지털 의사신문 : 지역구 의사의 건강지킴이로, 2008. 8. 26.

변상순 : 「초등교사의 일상 생활양식과 자기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 · 영양조사, 2001.

양현진 : 「건강수준과 관련된 보건의식행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오정열 등 5인 : 「의사와 일반인의 건강증진행태 비교」, 대한가정의학회지 제13권 제11호, 878-890, 1992.

원사덕 : 「THI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실태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7.

의료전문 인터넷 신문 메디게이트뉴스 : 신년 기획 의사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2008. 1. 7.

이은주 : 「약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정도 및 관련요인」,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인터넷 의협신문 KMAtimes : 한 주에 평균 몇 시간 일하나?, 2008.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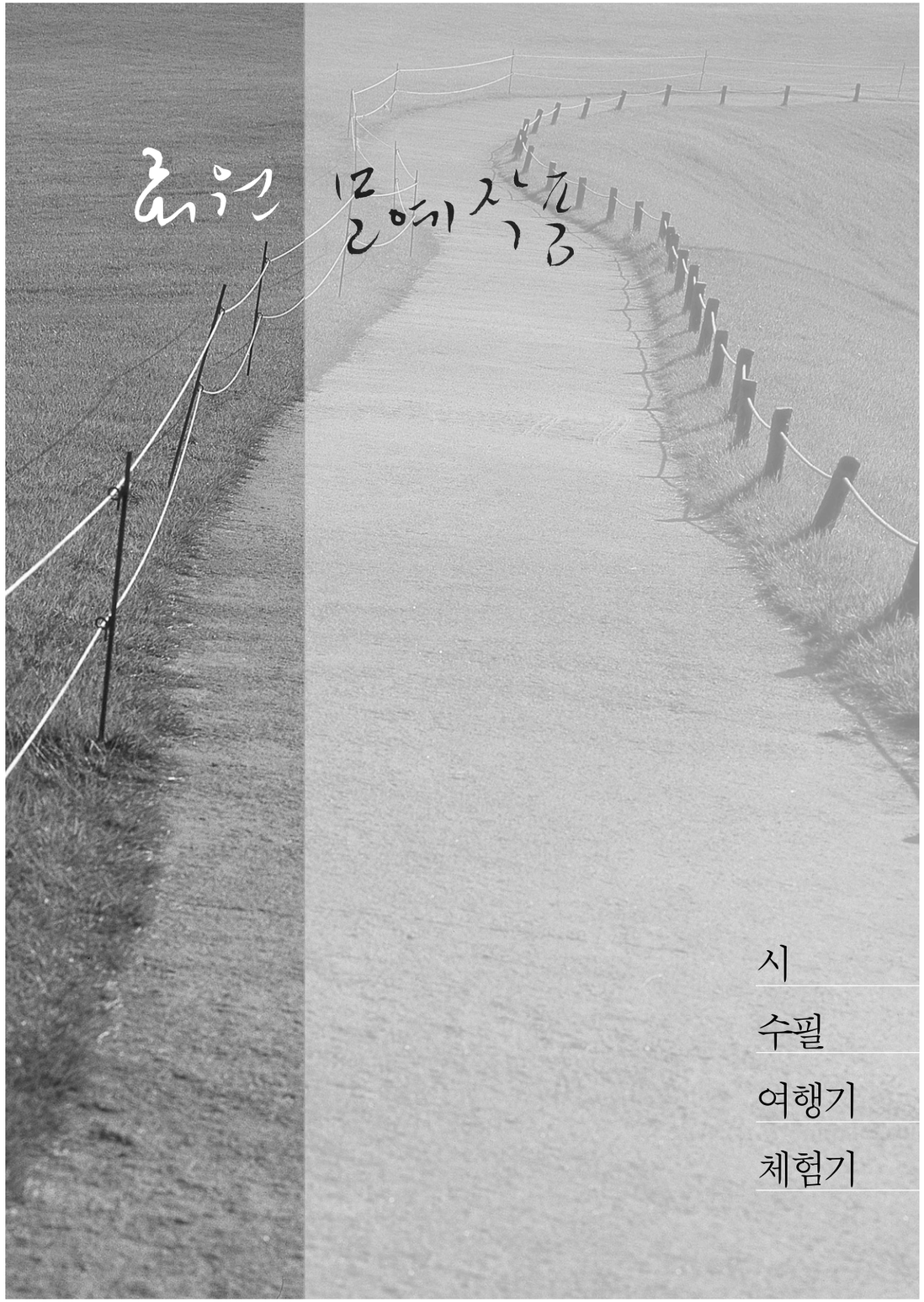
임주희 : 「경기지역 일개병원 의료인의 건강증진 생활실천정도와 관련요인」,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채영석 : 「일상생활 양식에 따른 연령별, 직종별 자기 건강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채희만 : 「초등교사 건강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양식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통계청 : 200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근로시간), 2008.

하희수 : 「전주시 고등학교 교사의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9.



은행잎

푸른 빛 짙은 그늘을 지어
한 여름 뙤약볕을 견디게 하더니
가을바람에 노랗게 물들어
햇빛 받아 불길되어 타오르고
낙엽 지는 거리를 하염없이 거닐게 한다

지나가는 가을바람에
난데없이 황금의 눈보라 친다
너는 무엇에 넋을 잃어
황금부채가 되었느냐
난무하는 낙엽의 무도회

바람에 몰려
소복이 쌓인 길가의 은행잎더미
차마 밟고 지나가지 못해
눈부신 한 잎 주워 들어
화려한 가을을 본다



기도

병원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도
구석진 의자에 혼자 앉아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눈여겨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울지 않으니
신이여
소리 없는 기도 소리 들리거든
그의 소원 들어 주셨으면

손장락 | 손의원(안동)



흐른다

머무름은
존경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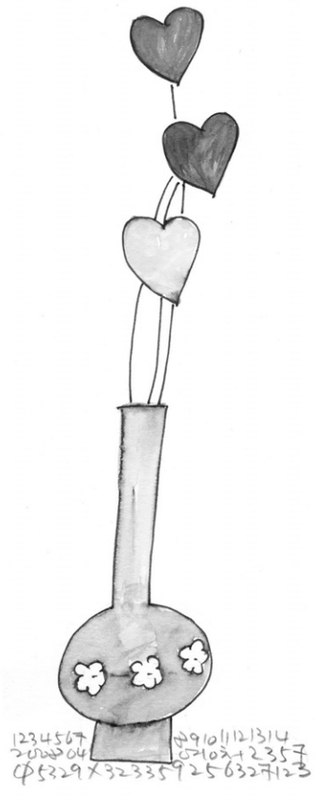
꿈꾸던 고향은
그 곳에 없다

떠나가는 추억의
그림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싣고
사라진 무엇
의문이라는 존재

아득하게 무심하게
계속 멀어져 간다

아픔도 슬픔도
흘러간다 흘러간다



오월의 눈

나타나지 않는
것들 끝까지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것들 처음부터

없는 것을 정말
없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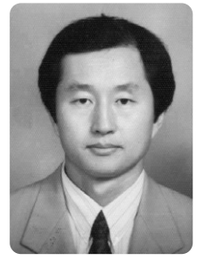
우리의 사이는
너무나 멀다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지나간 세월들

그러나 참 진지하다
모든 세상살이는

시작과 끝은 원래
없었던 것일까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김의홍 | 김의홍산부인과의원(구미)

알맹이와 껍데기

치기의 시절 의미도 잘 모르면서 우리들끼리 은밀히 부모를 껍데기라 불렀는데, 팔순에 가신 아버님은 염습 때 보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고 어머님은 구순을 넘자 점점 껍데기로 변하시는 듯하다 결국은 돌아가셨다. 나도 어느덧 예순 줄에 드니 흘러가던 시간은 돌기를 반복하고 그래선지 알맹이가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최해곤 | 최해곤성형외과의원(경주)



묵계

그대 묵계에 당도하면
비탈길이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
書院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금방 '묵계' 라 소리 내시면
돌사탕처럼 입 안에서 쉬 녹질 않을 것입니다
흐르는 물의 입도 막으려했던 저 오래되고
단단한 침묵을 가벼이 여기시지는 않겠지요
다만 오래 전 누군가가 그랬듯이
건너편 만휴정 골짜길 지긋이 내다보노라면
물빛과 굽이로 천이해 온 저 여울이
묵계를 말해 줄 것입니다

권세홍 | 안동병원(안동)



시사해시 입선작

2008년 5월 25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시사 사행시 「의협백년, 경주타워」의 시제에 5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을 싣는다.

— 편집자 주

〈 장 원 〉

■ 강준오 · 강남비뇨기과의원(경주)

의사로서 살아온지 어언 이십 수 년
협소한 진료실이 내 인생의 주무대
백색의 가운은 영원한 단벌신사
년(연)연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네

〈 차 상 〉

■ 김태숙 · 최인환결핵내과의원 가족(김천)

경이로운 5월의 초록 빛깔은
주린 가슴을 안고 사는 이에게 희망을 선서한다
타오르는 햇살같은 백색 가운 속에 아픈 이들을 품고
워즈워드의 초원의 빛으로 초대하고 싶어라

■ 김재왕 · 김재왕내과의원(안동)

의술을 꽃피운지 어언 백년
사랑과 봉사로서 민족과 함께 했네
백자는 세월을 따라 더욱 빛나듯
년년이 어어져 갈 그 정신 영원하리

〈 차 하 〉

■ 손혜영 · 선린의원 가족(경주)

경상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반겨주며
주옥같은 설명을 차근차근 들려주고
타인처럼 사는세상 애인처럼 대하시는
워낙 유명하신 우리동네 의사선생님

■ 정유담 · 한양정형외과의원 가족(김천)

경북의학제 내년에도 또 올래요
주말에 힘든 공부안하고
타지에서 온 친구들과 놀았어요
워낙 즐거운 시간이었으니까요

■ 김은단 · 민연합이비인후과의원 가족(경주)

경주 천년 도읍지를 발길 닿는대로 거닐어 본다
주인잃은 안압지 쓸쓸한 연못 속엔 마의태자 그림자 어릴까
타버린 황룡사지 9층 목탑 끝엔
워랑워랑 워어허야 신라 향가소리 분황사 석탑 휘돌아 내 귓가에 맴돈다

〈 참 방 〉

■ 이경수 · 이경수내과의원(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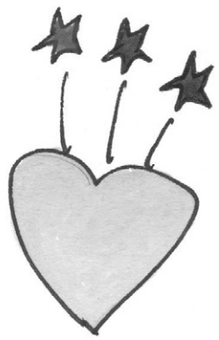
경상북도 멋진 의사 모두 다 모였다네
주마간산 빠른 세상 쉬어감이 어떤가
타오르는 열정도 이 잔치에 모두 쏟아
워어워 소리치며 스트레스 풀어보세

■ 최예환 · 제일의원(봉화)

의사들이여, 일어나라
협력하고 뭉쳐서
백년의 의협역사를 넘어
년년이 발전하는 의권의 새역사를 위해

■ 박경희 · 청십자의원 가족(경산)

경북의학제는 날로 번창한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아름다운 추억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당신
워낙 열심인지라 병이라도 날까 걱정이다



꽃다발

추성수
추이비인후과의원(포항)



오늘이 결혼 55주년되는 날이다. 아침에 눈뜬 순간 머리에 떠올랐다. 새벽 꽃시장에 가서 생화(生花)를 사서 사랑하는 아내인 할머니에게 주어야지 했던 생각을 했지만 오후 3시까지 병원에 갇혀있게 되었다.

겨울철이라 환자수가 감소되어 오후에는 약간 한가해져서 꽃가게에 다녀왔다. 겨울인데도 꽃들은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꽃 이름으로 안다는 게 겨우 장미꽃뿐이다. 빨간 장미와 분홍 장미 중에서 분홍꽃을 택했는데, 여기에 곁들어서 들국화 같은 흰 꽃을 합쳐 한 다발로 묶었다. 꽃가게에서 "꽃 이름은 총각 때 외워야지 로맨스가 생긴다."고 하니 아주머니들이 웃는다.

부랴부랴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원장님 어디 계세요?"하며 병원 앞까지 왔노라고 한다. 아내를 만나서 한 다발 장미꽃을 바치니 아내는 20대 처녀같이 얼굴을 붉힌다. 쑥스럽지만 한마디가 수 백 만원 가치가 있다. 그동안 아내에게 해준 게 없어 너무나도 미안하다. 자식들에게도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사과한다.

우리는 8.15해방을 맞아 가족회의를 했다. 해방이 되었는데 만주에서 그냥 거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나는 조국을 택해서 이북 강계읍까지 이사를 갔다. 그 후 1개월만에 이웃 청년 두 분과 함께 사선을 넘어 서울로 왔다. 당시는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집들이 허물어져 요즘 시골보다 못한 도시라 각자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는데, 그 후로 서로의 소식은 알 수가 없다.

6개월 후, 이북서 가족이 남하해서 한데 모였지만 직업도 일자리도 없이 오늘날까지 조국의 어려운 운명과 세월을 같이 했다. 등록금도, 옷도, 신발도 구하기 힘들었고, 외국에 다녀올 때도 포목천 1m 크기도 못 갖고 오게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해본다. 나는 학회 때 외국을 많이 다녀보았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사준 선물이 생일 선물이 되고 또한 결혼 기념 선물이 되기도 한다.

파리에 갔을 때다. 한참 한국에서 유행한 여성 핸드백이 '구찌'였다. 꼭 사와야 할 선물이 있었는데, 마침 일요일이라 상가의 문들이 닫혀있어 큰 낙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 관광객을 위해서 열어놓은 점포가 있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구찌백을 사서 나오다가 지갑을 그만 놓고 나왔다. 나중에 같이 간 일행 중 원장 한 분께서 "이게 혹시나 추원장 것이 아니요"하고 내민 것이 내 지갑이었다. 그때 얼마나 고마웠던지 수 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선배 선생께서 건강하신지 하고 대구에 있는 선생들을 만나면 꼭 안부를 묻는다.

학회 때마다 한 가지 두 가지 사오는 선물이 여성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다행이었다. 지금은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 서글프다.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건강뿐이다. 남은 인생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것인가 하는 생각 밖에 없다.

세계를 일주해보니 한국같이 좋은 땅도 없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를 구별하고 정치적으로도 갈라져있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다.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같은 애국자를 존경하며 만주 하얼빈까지 다녀왔는데 안의사께서 천국 낙원에서 편히 계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고, 김구 선생이 외친 것과 같이 우리는 한데 뭉쳐 애국하며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두가 애국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

인생은 항상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젊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과 폭풍, 비가 내리기도 한다. 우리는 다행이 직업적으로 지역 발전과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다. 수많은 불우이웃돕기 같은 아름다운 봉사도 많다. 뜻있고 정직하게 봉사하면 남은 인생을 순항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편이다. 아멘.

헛 꽃

박무근
박비뇨기과의원(포항)



I

세상
어두울수록 활개 치는
어릿광대의 큰 마당이라
웃겨다오 혼신의 힘으로 눈물나게
웃는다고 눈물날 일 없어지랴 만
웃음으로 비울 수만 있다면
눈물의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면
사랑도 여기에선 잠시 쉬어가라하고
그리움도 살짝 멈춰 서 있으라하지
캄캄한 밤도 비워야 새벽이 오는 법
간밤에 태어난 저 꽃대들을 보라
뼈대들이 앙상히 짓는 그림자들을
언제나 하얗게 입김을 뿜어내다가
살며시 내 곁에 와 비워대는
아 화창한 날의 헛꽃이며
길게 늘어진 그림자의 웃음이여

내 꿈
시작에서 끝맺음까지가
허공중에 뜬 구름조각처럼 모호해져서
걸어온 흔적 전혀 볼 수 없고
가야할 길 끝 간 데 없이 멀고 먼데
마침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모호하다
참이며 거짓마저도 모호할 때는
내 육신의 무게조차 버거워
가슴 심연에서 뿔이 날 때가 있다.
내 꿈 언저리로
헛꽃 하나도 오르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헛꽃이 되어 주듯
나 또한 누군가의 헛꽃으로 피다가
그렇게 줄기차게 변신하다가
후미진 골짜기
아득히 낮고 궂은 자리에서나
늘 웃음 짓고 싶다

II

꽃은 꽃술 꽃잎 꽃받침 꽃자루로 구성된다. 그 구성요소를 다 갖춘 꽃을 갖춘꽃(完全花), 그렇지 못한 꽃을 안갖춘꽃(不完全花)이라 하고, 한 꽃속에 암 수술을 함께 갖추어 있는 꽃을 양성화(兩性花), 암 수술 중 한 종류만을 가진 꽃을 단성화(單性花)—암술만이면 암꽃, 수술만이면 수꽃이라 한다.

꽃에는 꽃술을 갖지 못한 꽃도 있으니 이를 무성화(無性花), 또는 중성화(中性花)라 하고 꽃가루받이가 불가능해서 자손 번식이 되지 않는다하여 헛꽃이라고 한다.

우리 주변의 꽃 중에는 헛꽃으로만 꽃송이를 이룬 것이 있으니 수국(사진 1), 불두화(사진 2), 설구화, 헛꽃과 진짜 꽃이 섞여서 송이를 이루는 것으로는 산수국(사진 3), 백당나무(사진 4), 덜꿩나무, 꽃이 아니면서 꽃으로 오해할 정도로 위장한 경우도 있는데 꽃받침이나 총포나 잎새들이 모양새로나 색깔로 꽃모습으로 위변장한 것이 있으니 산딸나무, 삼백초, 어성초, 홀아비바람꽃, 개다래, 설악초 등 잘 알려진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다.

일반적으로 헛꽃은 외형이 크고 색상이 화려하여 사람이나 벌레들의 시선을 끈다. 수국은 생장상태나 토지의 PH, 영양분의 성상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의 꽃을 피워내







1 수국
2 부처의 두상을 닮았다 하여 불리는 불두화
3 산수국
4 백당나무꽃

서 보기에 좋고 불두화는 그 모습이 부처님 두상을 닮아서인지 사찰 안팎에 많다. 산수국, 백당나무와 덜꿩나무꽃은 그 생김새가 비슷한 혼합꽃이다. 이 혼합꽃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양성화인 진짜 꽃이 아주 작고 오밀조밀하게 모여 꽃송이의 중심부를 이루고, 크고 화려한 헛꽃이 장식하듯 주변에 배열되어 원반상 꽃송이를 만든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헛꽃이 진짜 꽃 같고 진짜 꽃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다.

보일 듯 말 듯한 보잘 것 없는 진짜 꽃 그 자체로는 벌이나 나비를 유혹할 수 없어서 가루받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헛꽃이나 위장 꽃을 내세워 곤충을 유혹하게해서 자신의 가루받이를 수행한다. 또한 헛꽃을 내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케하여 아무렇게나 취급 안 되게 하여 종족보존의 대업을 완성한다. 가루받이가 완성 되고나면 헛꽃이나 위장 꽃이 고개를 떨어뜨리든가(산수국), 그냥 떨어져 버리거나(산딸나무), 원래의 잎 색깔인 초록으로 되돌아가는(개다래) 것을 보면 이들은 자신을 철저히 버려서 무한 희생봉사를 실천한 사례라 하겠다.

진짜꽃의 입장에서는 헛꽃 네가 있어 내가 존재할 수 있으니 너는 나의 동행자요 협력자요 연인이다 할 것이요, 헛꽃의 입장에서는 선한 이웃으로 뽑혀서 온갖 사치와 호사를 누리고 진짜 꽃의 대리자로서 자긍심과 주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으니 서로가 참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서로는 공존공영 공생하는 셈이고 인간들에게는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배려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마침 한 뇌사자의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살신성인한 그 정신에야 견줄 수는 없지마는 자신을 버릴 줄 아는 헛꽃의 진솔한 삶이 가상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경망스러워서 이 헛꽃의 아름답고도 긍정적인 면을 그대로 보질 않고 부정적으로만 인식해 왜곡 폄훼한다. 그것은 헛(虛)자가 들어 있어서(인간들이 부여한 글자지만) 실속이 없다거나 부정의 의미가 내포된 듯한 인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도 천박한 의미로 마구 깎아내린다.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비켜나 아무 기여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의 대명사로 불린다.

벌 나비를 부르는 호객꾼이라거나 화려한 치장의 어릿광대나 꼭두각시라거나, 진짜 꽃으로 오인케 하는 사기꾼으로, 진짜 꽃의 마음에 따라서는 금세 버림받을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한 주제에 주인 같은 진짜 꽃을 멸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사리도 모르는 건방진 놈으로, 거짓 지혜와 술수로 건달로 살아가다 마지막 날에는 쭉정이 삶만 남길 거라며 매섭게 몰아 경멸한다.

어디 이뿐인가, 세상 삶의 도처에서 헛꽃의 의미를 변형 확대 증폭시켜 그 인간의

됨됨이며 근본까지를 평가절하 하는 말로도 인용된다. 인간헛꽃이랄까, 쓸모없는 인간들에 빗된 일컬음이리라. 채움의 추함만 있고 비움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군상들, 터득한 지식이나 지혜를 부정적으로 이용하여 사욕을 챙기는 자들 또한 인간헛꽃이라 취급된다.

다른 사람들 보다 잘난 척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지혜는 미련한 것이요 헛것이라, 마음 속에 내재한 이기심과 시기심이 진리를 숨기고 거짓의 단초가 된다. 세상 만물은 마음이 빚어내는 헛꽃이다. 눈이 피로하면 맑은 하늘에서 헛꽃이 보인다고 선인들이 선언했는데 여기서 헛꽃이라 함도 실제의 식물학적 헛꽃이 아니라 욕심이 바탕이 된 인성의 추한 모습에 대한 비하적 언어이다. 인간의 맑은 마음과 정신을 가리우는 것은 세상적 욕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고 했다.

허욕의 싹 인간헛꽃을 사람들이 헛꽃이라 하는데 대해 선한 헛꽃에게는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말이다. 헛꽃의 진의가 너무나 손상되어 황당하고 억울할 것이 분명하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무슨 죄악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렇다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토를 달 능력도 없다. 다만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부단히 마음 속의 욕심을 닦아내고 성실하게 봉사하라고 전하고 싶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아 그대들의 허욕과 부정한 일에 선한 헛꽃 이름을 들먹이지 말거라. 사람만큼 악하지 않아 탈인 것을 어쩌라고 하면서 반론을 펴는 것 같다.

현 의료제도의 변방에서 초라하나마 담담히 지내려하지만 때때로 주인(국민건강권이라는 명분)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며 가끔은 분통을 터뜨려야할 때도 있다. 어쩜 인간헛꽃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앗 당했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세월 흐르다보니 이제는 모두가 부질없는 일인 것 같아져서 차라리 나의 비움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마음을 추스르니, 오늘은 보잘 것 없는 한 떨기 참헛꽃으로 피고 싶어진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끝없이 산정으로 돌을 날라야하는 시지프처럼 기꺼이 헛꽃 같은 운명에다 한 몸 열심히 던지려고 한다. "이건 아닌데"같은 부정의 감정에 사로잡혀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한 여정이 될 것 같다.

어지러운 이 땅의 선한 맨얼굴이여 낙담하지 말자! 굴욕과 분노와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으로 삶의 가치와 명분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으리라. 그저 허허 웃으며 비우며 살자고 다짐해 보자.

까치 가족의 수난

전경홍
동산가정의학과의원(문경)
2003년 한국문인 등단. 한국문인 회원, 경희문학 회원, 한국장로문학 회원, 문예비전운영위원



우체국 건물 모퉁이 전봇대 위에 까치부부가 몇 년째 사이좋게 살고 있다.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둥지를 마련해 놓고 새끼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새끼들이 찍찍, 찍찍, 우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내 눈은 자연히 그쪽으로 가게 된다. 병원 3층에서 건너다보면 분주하게 먹이를 날라다가 새끼들에게 먹여주고,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들의 모습은 정말귀엽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자란 새끼들이 다 커서 날아가 버렸다. 빈 둥지를 보니 노년의 우리부부 모습 같아 마음에 공허감이 일었다. 새끼들을 먹여살리느라 바삐 날던 까치의 모습이, 삼남 일녀를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느라 바쁘게 지냈던 내 모습과 같아서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

며칠 지나자 까치부부는 새끼들과 나란히 전기 줄에 앉아있어 훨씬 다정해 보였다. 그 역시 우리부부의 모습 같았다.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까치둥지 또 봐요?"하는 아내의 말에 "아니야, 날씨가 어떤가!" 가끔 능청을 떨 때도 있다.

쾌청한 아침 햇살이 창에 비치는 날이면, 까치는 목련화가 활짝 핀 나무위로 날아가 앉아 경쾌하게 노래한다. 옛날 시골에 살 때 앞집 모과나무 위에 앉은 까치가 우리 집을 향하여 깍깍 울어대면 아버지는 "애들아, 오늘 우리 집에 기쁜 소식이나 반가운 손님이 오실 것 같다."며 너털웃음을 지으셨다. 우리 형제들은 반가운 손님이 누가 오실까? 기대하며 집안청소를 깨끗이 했다.

까치가 울던 날, 둘째형이 시골학생으로는 힘든 대구사대부고와 대구농림고를 동

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웃사람들이 수재라고 칭찬하면서 축하를 해주어 어머님은 찹쌀을 많이 넣은 오곡밥을 지어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은 것이 회상된다.

월요일 아침은 일찍부터 환자대기실에 환자들이 꽉 차 진료를 시작하면 마음이 바빠진다. 그래서 더욱 신중히 정신을 쏟는 중인데 진료 받기 위해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흥분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원장님, 밖에 좀 보세요. 전공들이 전주 위의 까치둥지를 아스팔트위로 내동댕이쳐서 까치새끼들이 날개와 다리가 부러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한데,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네요."

나는 진료 할 생각은 않고 그냥 현관문을 열고 길거리로 뛰어나가 전신주 위에 매달려 일하는 전공에게 "무엇하고 있어요?" 크게 소리 쳤다. 일하던 전공이 뒤돌아보며 내려와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우리 한전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기 정전사고의 원인이 까치인 것을 알고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상금을 걸고 까치잡기 경쟁을 시켜서 매월 평균 일천여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다. "며칠 전에도 전기합선의 정전사고가 있었지요? 까치들이 옛날에는 나뭇가지와 풀로 둥지를 틀었지만 지금은 철사나 못, 핀 등 철제이기에 전기 합선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전사고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생산 공장에도 지장을 주기에 까치둥지를 철거하는 것이고요. 언젠가 원장님도 정전으로 환자진료에 지장이 있다고 전화하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기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지나가던 여인들도 피투성이 되어 죽어 가는 까치 새끼들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갔다. 그때 간호원이 "원장님! 환자분들이 바쁘시답니다." 그때서야 제 정신이 들어 진료실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까치둥지는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다. 둥지와 새끼를 잃은 까치부부는 전신주 주위를 빙빙 돌면서 까~악, 까~악, 까~악, 슬피 울고 있었다.

둥지는 다른 곳에 마련하였겠지만 비참하게 죽은 새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위안이라도 해주고 싶건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안타깝게 바라 볼뿐이다.

까치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의 수난은 또 어떤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너구리, 사슴, 고라니, 산돼지, 뱀, 개구리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멸종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밀렵꾼들의 밀렵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동남아엔 야생 원숭이 떼들이 도심으로 몰려오고, 사찰의 법당에 공양미를 먹기 위해 참새 떼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까치, 까마귀들을 생태 가능한 산촌으로 유도하는데 17년이 걸려서 성공했다고 한다.

요즘은 과수원에도 까치 피해가 크다고 한다. 콩,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비둘기, 산새들이 날아와 씨앗을 파먹어서 싹을 내어 모종하는 방법으로 변했다고 한다. 조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수농원을 경작하는 분들이 폭음탄을 쏘아 까치를 쫓기도 한다. 번데기에 농약을 주입해 과수원에 뿌려 놓아 주워 먹는 조류들을 죽게 하고, 새총으로 쏘아서 많은 수를 포획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신문엔 '참외밭에 웬 공기총'이란 글이 실렸다. 참외 수확이 한창인 농가 비닐하우스에 단 향기를 맡은 까치가 습격해 와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 총을 들었다는 기사 내용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씁쓸했다. 앞으로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기 위해 도심이나 집안으로 침범한다면 우리도 총을 겨누어야 할까.

원래 곡류와 곤충을 먹고 살아온 까치가 과일을 먹게 된 까닭은 우리 인간들이 제공하지 않았는가. 전봇대 주위를 날아다니며 까악, 까악, 애타게 우는 까치의 모습이 오늘은 유난히 더 거칠고 사나워 보여 제 새끼를 잃은 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것만 같다. 히치콕의 '새' 영화장면 중에 갈매기 떼들이 설쳐대는 모습과 흡사하게 보인다. 농가 생일잔치에 갈매기 떼가 돌발적으로 날아들어 아이들의 눈을 빼고, 얼굴을 마구 쪼아 피투성이 가 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비참한 공포의 장면이 떠오른다. 새들이 왜 인간을 공격할까. 상상을 영화화 한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들이 공존공생하면서 평화로운 지구촌으로 회복되어 잘 살 수 있을까. 까치 가족의 수난을 통해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공기업 경영대상

최동하
포항송라요양병원 병원장
전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의료원장



1990년대 후반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그만 둔 후 포항지역에서 18년간의 외과개원의 생활을 마감하고 1993년 12월 의료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포항의료원은 주민들 사이에 병원 이용객들이 행려환자나 영세민뿐이라는 과거 도립병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전국 34개 지방공사 의료원 중에 경영 상태가 최하위였으며, 250병상 9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월 매출액이 2억여 원이 겨우 넘어서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각오로 사직서를 미리 써서 원장실에 비치해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원장이 직접 진료와 수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립병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우수의료진을 확보하고 낙후된 의료시설을 보강하였고, 전국 의료원 중에서도 강성에 속하던 노동조합원을 설득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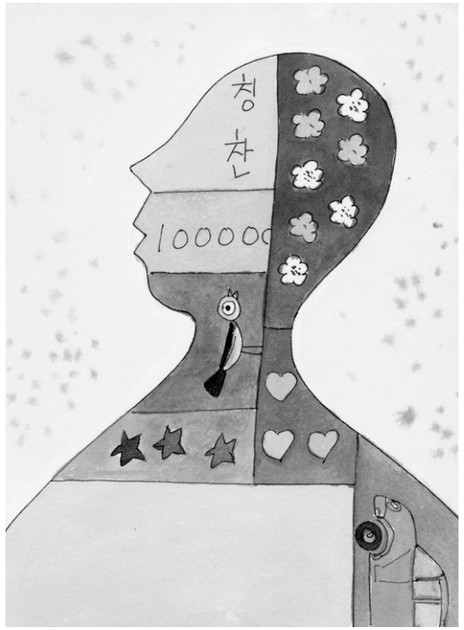
1995년부터 성과급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였으며, 1996년부터 병원 식당과 영안실을 직영체제로 돌렸고, 고임금자를 명퇴시키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틈새시장 공략 차원에서 대장항문클리닉을 신설하여 원장이 연간 약 1000예의 항문수술을 하였는데, 1999년 12월 30일 하루에 11예의 치핵 · 치루 환자들을 수술하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1997년부터는 진료과 스탭의 학구 의욕을 고취코저 원장이 매년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이는 지방공사 포항의료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 직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으며, 의료진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괄목할만한 경영수지 개선의 효과를 가져와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포항의료원은 1998년에는 8억 3천여만원의 흑자를, 1999년에는 12억 9천여만원의 흑자를 내놓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공사 34개 의료원 가운데 최고의 순이익을 올리게 되어 2000년 2월에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행자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001년 5월 필자가 사임한 후에도 해마다 흑자 규모가 늘어나서 포항의료원은 경쟁력을 갖춘 전국 최우수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어려웠던 시절에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였고 평소 병원이 가장 번창할 때 떠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에, 최고의 경영 평가를 받고서는 주어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는데도 전격적으로 병원장직을 사임하였던 바, 지금 생각해도 후회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클릭 한 번 잘못하여 모가지 날아갈 뻔

정만진

수필가, 울릉군보건의료원장 정년퇴임(2008년 6월), 영남일보 토요단상 고정 칼럼 집필 중(2008년 1월부터 현재), jmj31@hitel.net



필자가 울릉도에 가서 1년을 조금 지났을 무렵, 추석을 지나고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의료원 담당(계장) 한 사람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 헐레벌떡 원장실로 뛰어들어 왔다. "원장님, 큰 일 났심이더. 무슨 메일 보냈어예?"라며 두서없는 말을 쏟아내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느긋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인데, 그래요. 천천히 말해보소."하였다. "원장님이 무슨 사진 메일 보냈는기요? 군청 컴퓨터마다 이상한 사진 메일 들어왔다고 연락이 바리바리 옵니더."하는 것이었다. "사진메일"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는 내가 파랗게 질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였다. 조금 전에 내가 핸디폰 카메라로 찍은 군수가 러브샷하는 사진을 군수에게 메일로 보냈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직원에게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더니, "원장님이 보내신 이상한(?) 사진메일이 군청 전 직원에게 전송된 것 같심더. 메일을 어떻게 보냈심니껴?"하는 것이었다. 나도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잘 몰라서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의 군청내부전산망을 띄우고 직원과 함께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컴퓨터를 확인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하는 걱정과 질타의 전화가 빗발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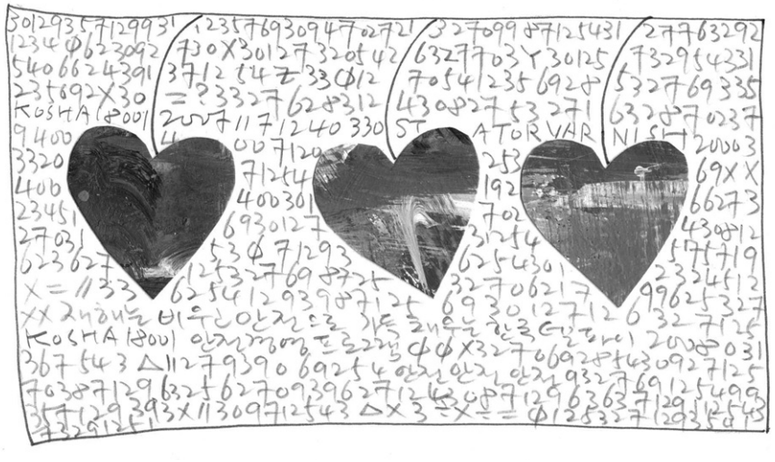
전산망 조직표를 들여다보던 직원이 "원장님, 혹시 받는 사람 주소에 '울릉군청' 클릭한 거 아인기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내는 주소 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울릉군청'이 위에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울릉군'이 있었다. '울릉군'을 클릭하면 '군수'와 '부군수'가 나오고, 거기 '군수'를 클릭해야 군수에게만 메일이 가는데, 만일 '울릉군청'을 클릭하면 군청의 전 직원에게 메일이 간다는 것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내가 군수에게 보낼 메일 주소 난에 '울릉군청'을 클릭한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클릭했던 간에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사진 메일 몇 장 잘못 보냈기로서니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인가 하겠지만 그 카메라 폰 사진에 약간 요상한 면이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는 그리 선정적은 아니었지만 군수와 내 아내, 나와 군수 사모님, 그리고 부군수와 과장 사모님 등이 술잔을 들고 팔을 감고 러브샷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태풍나비가 울릉군을 휩쓸고 간 후 한창 피해복구를 할 시기였기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추석 얼마 전에 태풍 나비가 울릉도를 강타하여 많은 피해가 났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군청의 간부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였다. 그래서 군수가 추석 다음 날 고생한 간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실과장 부부를 군수 관사로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고, 술이 몇 순배 돌자 기분이 좋아져서 러브샷이 오갔는데, 필자가 재미삼아 그 장면을 카메라 폰으로 찍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진을 군수에게 메일로 보내기 위하여 "울릉군"의 "군수"를 클릭한다는 것이 그만 그 바로 위에 있는 "울릉군청"을 클릭하여 약간 요상한 문제의 사진들이 군청의 전 직원에게 메일로 전송되었던 것이었다. 크게 보면 별로 부끄러운 일도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울릉도라는 좁은 사회에서 "태풍 패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군청간부들이 러브샷이나 하고."하면서 크게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사태를 파악하고 나니 "내가 어찌 이런 실수를!"하는 생각이 들면서 입술이 마르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내가 사표 쓰고 나가는 것은 언제라도 각오하고 있었으니 괜찮은데, 나 때문에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군수가 공천과 당선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의 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 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실수란 있을 수 있고, 큰 실수에는 생명이 걸릴 수도 있는 법이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사표 쓰고 나갈 각오를 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부군수에게 전화를 하여 전산실 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탁하였다. 왜냐하면 일부의 직원들이 메일을 보고 바로 연락해 왔으니 아직도 메일을 열어보지 않은 직원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몇 분 후에 차를 타고 군청 전산실로 내려갔더니 짜증을 내리라 생각했던 부군



수가 웃으면서 나를 맞이하였다. "원장님,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전산직원과 관리회사에서 긴급히 작업하여 방금 그 메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군수님에게는 보고 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세요."하며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고마웠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클릭 한 번 잘못하여 모가지 날아갈 뻔 했던 일도 벌써 3년여가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당시의 군수는 다른 불행한 일로 출마도 하지 못하였고, 부군수는 퇴임하여 공기업 연구원장으로 갔고, 나는 정년퇴임하여 울릉도를 떠나왔다. 우리는 이따금 울릉도가 아닌 대구에서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울릉도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당시에는 그렇게도 긴박하고 안타까웠던 일도 아련한 추억이 되어 미소 짓게 만든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고, 세월은 최고의 명약인가 보다.

구멍

이종규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수필가, 에세이 문예로 등단(2008),
서정문학 수필부문 신인상(2008),
의사수필가협회회원



사람의 첫인상은 얼굴에서부터 시작한다. 혹자는 뒷모습에 반해서, 또 혹자는 옆모습이 멋있어서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아무리 반듯해도 얼굴에 있는 다섯 개의 구멍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일차 진료를 주로 하는 시골의원에서는 때로 우스꽝스런 일들이 벌어진다.

귀지를 빼내기도 하고 터진 고막이나 중이에 물이 찬 경우 등을 치료해주어야 할 때가 더러 있다. 가능한 귀구멍에 들어간 벌레나 귀지, 또는 이물질 등은 그때그때 제거를 해주어야 한다. 철부지들이 귀지가 딱딱하게 굳어서 귓구멍이 꽉 막힌 상태로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난다. 귓바퀴를 붙잡기만 해도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러대는 통에 도무지 아무런 처치를 할 수가 없다.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다. 사탕을 먹고 나면 또 울어대고…….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나가지도 않고 울어대기만 한다. 진료실 밖으로 나가면 엄마의 호된 꾸지람이 더 두려우니 아예 진료실에 주저앉아서 자리를 잡고 혼을 뺀다. 도심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퇴근할 때 쯤 다시 데리고 온다. 도대체 막힌 귓구멍 만큼이나 답답하게 꽉 막혀있는 사람들이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도 하고 으름장을 놓아도 통하지 않는다. 주먹으로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꾹 참고 용해제를 넣어주고 다음날 오라고 했건만, 가다말고 다시 문을 밀치면서 들어온다. 주입한 물약이 다 흘러내렸다며 다시 넣어달라고. 다시 서너 방울을 넣어주고 가볍게 패킹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했다.

퇴근을 하는 중에 5분 정도 지나서 전화벨이 울렸다. 귀가 간지럽다며 아이가 손가락으로 빼냈으니 다시 좀 해 달라며……. 가던 길을 되돌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서 또 패킹을 해주었다. 울컥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고 쓴웃음이라도 지어야만 녀석이 울지를 않으니……. 꿀밤대신 머리통을 쓰다듬어주니 녀석이 배시시 웃는다. 속에서는 부아가 치미는데 아이 엄마가 허리를 구부려 죄송하다며 서둘러 진료실 문을 나선다. 겨우 문을 잠그고 퇴근을 했다.

진료실에서 숙소까지는 20km나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샤워를 하고 식탁에 앉아 막 첫 숟갈을 뜨려는데 반갑지 않게 또 전화벨이 울린다. 아이가 보채는데 도무지 그치지를 않는다며 아무래도 귀속이 잘못된 모양이니 빨리 좀 봐 달라고 아우성이다. 내일까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잘 설득을 했는데도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그 전율의 벨소리가 들린다. 애원하는 아이 엄마의 말소리에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온다.

녀석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갖가지 상상이 뒤엉켜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패킹을 너무 심하게 꼭 틀어막아서 밀려들어간 건 아닌지, 저렇게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걸 보면 고막 파열이 된 건 아닌지, 혹시 출혈이 되거나 외이도에 심한 상처가 난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오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다. 가속 페달을 밟은 발에 자꾸만 힘이 주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한다. 간호사에게 부지런히 연락을 하고 급히 진료실로 호출을 했다. 퉁명스러울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니 고맙기는 한데 도무지 마음이 안 놓인다.

부랴부랴 진료실로 들어서니 녀석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며 걱정스러워하는 아이 엄마가 그렇게도 야속할 수가 없다. 헤드램프를 쓰고 살그머니 귓바퀴를 당기니까 녀석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면서 악을 쓴다. 간호사와 아이 엄마가 온 힘을 주며 녀석을 꽉 붙잡고 제압을 했다. 그래도 악을 쓰며 버둥거리는 녀석에게 할 수 없이 진정제를 주사하고 기다렸다. 녀석의 눈이 게슴츠레해진다. 툭 건드려보니 완전히 골아 떨어졌다. 다시 귓속을 들여다보며 패킹한 걸 제거했다. 아무리 보아도 멀쩡하다. 딱딱하던 귀지가 꽤 많이 녹아서 귀안이 흥건해졌다. 흡입기로 지저분한 삼출물은 배액을 했다. 더 이상의 처치를 하지 않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입맛이 아주 떫어서 도무지 식사를 할 것 같지가 않다. 공연히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든다. 내일 다시 오라고 했으니 가능한 내 마음부터 가라앉히는 게 중요했다. 속상했던 일일랑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서 부지런히 잠을 청했다.

얼마만큼 잤을까? 요란한 벨소리에 잠이 깼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귀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데 빨리 와서 봐 달라고 한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게 필경 잘못됐으니 다시 봐 달라는 주문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다.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입에서는 유쾌하지 않은 외마디 소리가 튀어나왔다. 허겁지겁 다시 진료실로 급히 갔다. 도저히 간호사를 깨울 수가 없었다. 빌어먹을 자식…….

진료실의 불을 밝히고 녀석의 귓구멍을 다시 자세히 살피려니 또 새벽공기를 가르는 울음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정말, 아…… 미쳐 버리겠네 ! 신음을 뱉으면서 이빨로 혀를 꾹 깨물었다. 안 그러면 속에 꾹꾹 참고 눌러놓았던 울분이 폭발할 것 만 같다.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녀석이 얼마나 얄밉고 밉살머리스러운지. 으…… 윽……

"야…… 임마!"

"시끄러 임마!"

견디다 못해 터져버린 외마디 고함 소리에 아이엄마는 두 손으로 귀를 꾹 틀어막으며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눈이 휘둥그레 놀라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내 소리에 녀석은 그만 주눅이 들었는지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울음을 그쳤다.

"이노~~~~~ㅁ!"

눈을 부라리며 귓바퀴를 잡으니 녀석은 파르르 떨면서 꼼짝을 못하고 왕방울같은 눈알만 껌벅이고 있다. 헤드램프의 초점을 맞춰서 귓구멍을 들여다보니 불빛에 반사되는 회색빛의 고막이 아주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가에 엷은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허탈한 마음도 그렇거니와 패씸했던 감정도 그 작은 구멍으로 빠끔하게 보이는 고막으로 인해서 모두가 싹 가셔버렸다. 더구나 녀석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금세 혀를 쑥 내밀면서 메롱거리며 징그럽게 웃는 모습이 차마 미워할 수가 없다.

진료실을 나서는 아이 엄마에게 조심히 가라는 말을 하고 진찰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다. 영문을 모른채 출근한 직원들이 아주 이상한 눈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수근대는 모습이 고약하기만 하다.

"외박까지 하시다니……."

시골 마을의 진료실은 때로 이처럼 잔인하기도 하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은 가히 성인의 모습이나 다름없다. 때로는 아주 하찮은 일로 커다란 고통을 겪는 환자들도 많다. 우리주위에는 성인 같은 의사들 못지않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편안한 의사가 참으로 많기만 하다.

20년 전 포항의 추억
— 故 김종원 원장님을 그리며

박대환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성형외과(대구)



작년 우리 과 20주년 행사가 있었다. 기념책자 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찾던 중 빛바랜 사진을 하나 발견하였다. 20년 전 포항선린병원에서 찍은 김 종원 원장과 여러 과장들의 사진이다. 20년 전 포항에서 대구로 직장을 옮겼을 때 내 연구실에 걸어둔 사진이었다. 그 때 몇 년 동안은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김종원 원장을 닮아 진정한 의사의 길을 가려고 생각했었지. 대구에서 바쁜 일과에 쫓기고 방을 몇 번 옮기다보니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 있구나. 20년 전 이원장님은 이웃사촌이었다.

내가 군의관 훈련을 마치고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로 파견된 곳이 포항선린병원이다. 내 전공이 성형외과이나 무의촌이나 소도시에는 필요가 없었다. 마침 큰 병원인 선린병원에서 성형외과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여 거기로 가게 되었다. 김원장님이 나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준 곳이 바로 원장님 옆집이었다. 이사 후 옆집 원장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원장님댁이라고 거창한줄 알았더니 집 구조가 우리 집과 똑같았다. 가구나 장식물도 별로 없었고 사모님과 단 둘이 단출하게 살고 계셨다. 우리 애와 집사람이 왔다고 과자와 사탕, 차를 사모님이 내어 오셨다. 원장님도 사탕과 과자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다. 원장님과 첫 만남에서 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아직 내 눈에 선하다.

병원 출근 첫날 강당에서 소개 겸 인사가 있었다. 모든 의사와 직원들이 하나같이 원장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원장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북부교회에 가서 기도 후 병원에 출근하여 8시에 직원들과 다시 예배를 드린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했다.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때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자(saint)의 모습을 보았다.

원장님은 소아과를 전공하셨다. 칠십의 나이에도 하루 평균 3백여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소아들을 진료할 때마다 북에 두고 온 세 아들 생각이나 소아 환자들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돌본 탓에 주어진 포항의 슈바이쳐라고도 했다. 원장님은 평안북도 초산군에서 태어나 평양 의과대학을 나오고 6.25전쟁이 터지면서 남쪽으로 피난올 때 아들 셋은 조부에게 맡기고 아내와 함께 젖먹이 아들 하나와 딸 둘만 데리고 왔다고 했다. 그는 포항에서 살아오면서 돈과 명예 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아픈 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발전시키는데 온 몸을 던져 실천한 분이었다.

월급은 다른 의사들의 반 정도만 받아갔다. 반은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 반은 신학대학 학생들과 선린대학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고, 남은 돈으로 부인과 생활하신다고 하였다. 옆집에 사시는 원장님이 우리 집보다 못해놓고 사시는 이유였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처럼 근검절약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부자였다.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많은 환자들과 병원 식구들과 더불어 그는 사람의 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마음 가득하고 환한 말소리, 어린이 같이 활짝 웃는 백발 동안(童顔)의 그는 항상 활달한 마음의 부자였다.

2007년 93세로 별세한 김원장님의 부음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부음을 듣는 순간 그는 내 앞에 다시 한 번 더 또렷이 나타났다.

일평생 어린이 진료와 병원 발전에 헌신해 오던 그는 자신이 설립한 병원과 대학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했다.

내 일생에 여러 스승과 멘토가 있었지만 김원장님은 참된 의사의 길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가르쳐준 나의 스승이자 이 시대에 진정한 사표(師表)이다.

20년 전 대구가톨릭병원에 근무를 시작할 때와 같이 다시 김원장님의 사진을 컴퓨터 앞에 붙여두었다. 이번에는 평생 동안 사진을 떼지 않고 매일 매일 1분간이라도 원장님의 사진을 보면서 진정한 의사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겠다.



20년 전 사진이다. 한가운데에 성경을 들고 앉아계시는 분이 김종원 원장님이다. 원장님의 배려와 위엄으로 모든 직원이 한결같이 병원 의사들을 존경하고 깍듯이 대우하여 주었다. 근 30년간의 의사 생활동안 의사로서 가장 대접을 잘 받은 시기가 포항선린병원시절이었다. 협동원장을 지내신 이종학 선생님과 친구형으로 친형같이 모셨던 배효근 내과 과장님, 선배이신 비뇨기과 오세진 선생님, 소아과 김광우님, 이비인후과 전선배님도 보이고, 동기인 정형외과 권영철, 산부인과 임화석, 후배인 문신길 선생도 보인다.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신경외과 추과장님, 방사선과 김성수 과장님 등 여러 분들이 기억난다. 좋은 시절에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우리의 영원한 리더 변영우 전 경상북도의사회 회장님과 견일수 마취과장님, 돌아가신 이충길 정형외과 과장님, 그리고 안과 이재백 선배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신경정신과(경주)



속담(俗談)은 글자 그대로 속된 말이다. 달리 표현하면 민중의 말이다. 속담은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이나 격언과는 다르다. 그러나 거기에는 민중의 지혜, 길거리의 철학이 담겨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는 뜻이다. 비슷한 속담으로는 '관가에 가서 곤장 맞고 집에 와서 제 계집 친다' 라는 것도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는 말의 뜻을 넓게 해석하면 자신의 감정을 그 감정을 일으킨 대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옮긴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도 많다. 밖에서 일어난 일로 화가 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만만한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낸다든지 때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직장상사가 사장에게 꾸중을 들으면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부하에게 화를 내는 경우 등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상상해보자. 첫사랑 영자 씨에게 실연을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동명이인의 영자 씨를 만나 결혼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꼭 이름뿐만 아니라 첫사랑의 감정이 옮겨져 다음번의 애인을 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다. 이 역시 좋은 의미에서 '한강에 눈 흘긴' 것으로 볼 수 있고, 못 이룬 첫사랑을 동명이인을 통해 이룬다는 보상심리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영자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놓고는, 사랑의 감정이 싹튼 후에 차버리는 것은 하지 마시라. 혹시 '이번에는 내가 영자를 차버렸다' 는 일시적 자기만족은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생 동안 자책감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건 '한강에 눈 흘기는' 사례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경우로 기록될 수도 있다.

하여튼 첫사랑과 이름이 같은 아내를 얻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직도 옛사랑, 첫사랑을 못 잊어 "영자야." 하며 잠꼬대를 해도 들킬 염려가 없다.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잠꼬대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니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낮에 실수로 옛사랑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가끔은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나와는 결코 무관한 일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속담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속담은, 한마디로 감정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어떤 대상에게 느꼈던 감정을 그 감정을 주어도 덜 위험한 대상에게 옮기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렇게 감정을 옮기는 심리과정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전치(displacement : 바꾸어 놓기, 이동)라고 한다.

전치를 설명하기 위해 지그문트 프로이드(1986-1939)의 유명한 사례 중에 '어린 한스(Little Hans)' 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프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사 중의 한 분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정신분석(psychoanalysis)이라는 용어도 1896년에 그가 만들어낸 것이다.

프로이드가 말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말에 대해 공포증을 가진 어린 '한스' 라는 아이를 정신분석치료를 하다가 왜 말을 무서워하는지 원인을 알아내게 되었다. '한스' 라는 아이가 말을 무서워하는 것은 원래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무의식적 공포의 감정이 아버지보다는 덜 위협적인 말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치 현상이다.

또 다른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면, 공자님이 젊은 나이에 죽은 제자 안연을 칭찬하는 말에 '안연은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 공자님이 안연을 제자 중 가장 어진 사람으로 본 이유가, 바로 안빈이 화가 나도 감정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안빈낙도(安貧樂道 : 가난한 속에서도 안락한 마음을 가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연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 자취를 남기지 않고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 감정을 옮기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이다.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의 흔적이 오래 남는 것,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정신 불건강'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감정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는 자각하지 못하고(종로에서 뺨 맞고) 다른 데에 감정의 폭발(한강에서 눈 흘기는)을 일으키기 쉽다. 정신이 건강할수록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잘 참을 수 있다. '참는다' 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화를 낼 때와 장소와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을 보류하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감정을 뒤



끝없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나도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뒤끝은 없다. 이에 아내가 하는 말이 있다. "그 성격에 뒤끝까지 있으면 내가 같이 살겠나!" 하여튼 화를 조절하고 진정으로 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루지 못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속담에서 전하고 싶은 말은 안연처럼 감정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도 정신적인 면에서 안연과 같은 '경지' 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에게서 생긴 감정을 저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때 얻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당장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감정을 옮기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일은 '정신 불건강' 이다. 종로에서의 일은 종로에서 끝내고 한강은 한강대로 보아야 한강이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의 평정이 온다.

행복한 죽음

금민수
안동병원(안동)



이 글은 신문 청년의사에서 주관,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8회 한미 수필문학상 장려상'에 입상한 작품을 다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이슬이 맺힌 진홍빛 장미를 보면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것이다. 그 화려함 속의 생명과 예정된 소멸의 운명이 그 아름다움을 더 빛나고 안타깝게 한다. 또한 그 찬란한 아름다움의 순간은 그 순간 속에 영원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사람의 생명도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이미 죽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는 의사가 되면서부터 여러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았고 인생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죽음들 중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로서 영원한 행복을 꿈꾸었을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전날 잠들기가 힘들어 싱숭생숭하더니 무언가 예감이 있었나 보다. 가장 잠에 깊이 빠져 있을 새벽 4시에 응급실 과장님의 호출이었다.

"과장님이 촉탁의로 진료 나가시는 장애인 복지촌의 원생입니다. 김현식 씨, 35세 남자 환자로 토혈한 흔적이 있고 실종 만 하루만에 도로변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혈압이 낮은 쇼크상태이며 맥박도 불규칙합니다."

전화를 받는 내 머리 속에 익히 잘 아는 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눈이 작고 입매가 얇고 날카로우며 넓은 이마에 몇 개의 굵은 주름이 있었다. 키는 작고, 검은 얼굴에 표정이 거의 없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견 정이 안가고 매정한 듯이 보이는 원생이었다. 그러나 실제 그는 말을 거의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나이는 원생들 중 많은 편이나 정신 연령은 4, 5세에 불과했다. 더우기 B형 간염에 의한 말기 간경변에다 조절 안 되는 당뇨병까지 앓고 있는 중증 질환자였다. 거의 웃는 법이 없었는데 누군가 현식 씨 이마의 주름이 깊어지면 그게 바로 웃는 것이라고 했다.

집을 나서니 어두운 새벽, 뺨을 스치는 12월의 공기가 푸르게 느껴졌다. 잠이 금세 달아났다.

응급실에 도착하여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창백한 그를 보았다.

"현재 혈압은?"

"80에 60으로 저혈압 소견 보이고, 맥박수는 120회로 빠릅니다."

응급실 간호사의 목소리에서 긴박감이 느껴졌다.

청진기를 통해서 들리는 심장소리가 급박하면서 불규칙적이었다.

"눈을 떠 봐요, 여기 한 번 봐요. 어디가 아파요?"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억지로 가슴의 통각점을 눌러 깨우자 겨우 눈을 떴다.

그래, 지금 빨리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가족이 와 있나요?"

"연락은 되었으나 멀리 있어, 아직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시경으로 검사 및 치료를 하는 도중에 환자가 심장마비나 과다한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실신과 저혈압은 좋지 않은 징조이다. 나중에 보호자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 항상 결과가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빨라야 하고 치료는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내시경실 준비시키고 혈액 수혈하면서 바로 내시경 들어갑시다."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만약의 사태는 의사인 내가 책임져야 했다. 전화로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중심정맥천자, 지혈제, 항생제, 수액제제, 산소, 혈액 등을 신속히 지시하고 내시경을 시행하였다. 내시경이 입으로 삽입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위 내에 고여있던 혈액이 쏟아져 나왔다. 가운과 구두가 피로 얼룩지고 내시경실 바닥이 피바다가 되었다. 가득 찬 혈액으로 어지러운 내시경 화면에 식도하부와 위의 경계부 바로 하방, 가장 치료하기 곤란한 지점에서 혈액이 폭포수처럼 분출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재빨리 내시경을 이용한 고무밴드 결찰술을 시행한 후 출혈이 멎은 혈관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하였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무사히 입원시키고 진료실에 앉으니 온몸이 노곤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렸다는 보람에 뿌듯한 마음이었고, 팽팽한 긴장의 이완과 함께 심장 박동의 여운이 기분 좋게 혈관을 타고 흘렀다.

병원 앞으로 흐르는 강에서 새벽 안개가 피어 오르고, 하얀 아침이 어스름한 모습을 보일 때쯤 보호자인 현식 씨의 어머니가 오셨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그날 아침처럼 왠지 하얗고 창백하게 보였다.

"식도정맥류의 대량 출혈로 인한 여러 장기의 손상 소견이 보입니다. 내시경으로 출혈 부위를 묶고, 수혈 및 지혈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고 있으나, 간기능이 워낙 밑바닥인데다 당뇨병까지 심해서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운이 나쁜 경우 사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없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어쩔 수없이 사망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주저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마음 같아서는 다른 말은 다 걷어치우고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오셨으니 깨끗하게 나아서 퇴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 최신의 현대의학으로도 살리지 못하는 생명이 많으며,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다.

나의 긴 설명을 들으시는 현식 씨의 어머니는 자그마한 체구에 단아한 모습으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 환자인 경우라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좀더 확실한 회복을 요구하거나 안될 경우 치료방법은 같지만 다른 더 큰 규모의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호자분들은 평소에 환자로 인해 모두 다소간 사회 경제적 고통을 받아 오셨기 때문에 다소 체념하거나 달관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다.

그 날 이후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중환자실에서 현식 씨의 상태를 보면서 복수가 차면 복수천자를 해주고 거의 매일 혈액검사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처음 출혈이 많아서 이미 여러 장기에 손상이 와 있었고, 당뇨병에다 간경변 말기여서 전신상태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입원 5일째 재출혈을 하고, 이어서 병발한 폐렴으로 결국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말을 못해서 눈빛과 손짓으로 아픈 곳을 물어 보곤 했었는데 이제 더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고 말았다. 보호자인 어머니는 일 다니시는 데가 있다 하여 거의 만나지 못하고 환자를 잘 봐 달라는 부탁만 듣고 있었다.

인공호흡기를 연결한지 이주일 째, 항생제를 수 차례 바꾸고 갖은 노력을 다해 보았으나 병세의 호전이 없었다. 수년간 보아오던 환자라 그대로 보내기엔 너무 안타까웠다. 이제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한 기관 절개술을 해야 할 때가 되어 부득이 현식 씨의 어머니를 오시라고 했다. 그 날 오전 중환자실 회진을 돌다가 현식 씨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쳐 왔다. 잠시 후 어머니를 나오시라고 하여 기관 절개술의 필요성과 지금의 위중한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한참을 담담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던 현식 씨의 어머니는 가벼운 미소를 보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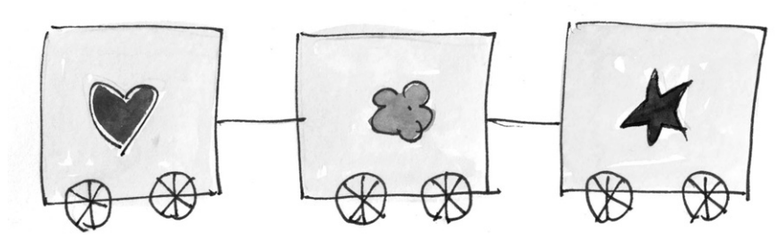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잘 봐 주셨으니 모든 것을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잘못되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안한 표정으로 도리어 걱정하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부담을 덜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는 마음이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는 현식 씨 곁에 계속 있겠다고 하셨다.

그 날 저녁 회진 때, 현식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을 감고 의식이 없었으나 이마의 주름이 깊어 보였다.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인 건 그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내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퇴근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병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현식 씨의 호흡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액 내 산소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현식 씨의 심장 박동이 멎었다. 바로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응급약물들을 수 차례 투여하였다. 30분이 넘도록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다. 간절한 마음은 나의 입에서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였고 온 몸의 힘을 다해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하느님 제발 이 한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너무나 불쌍한 생명입니다. 조금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더 잡고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오니 멎은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은 이미 현식 씨가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현식 씨의 심장이 돌아오리라 느껴졌다. 꼬박 네 시간을 교대도 없이 심장마사지를 한 후에야 내 가슴 속에서 나를 지탱하던 굳은 마음과 믿음이 흩어지고 기적이란 없는 것이구나하는 체념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허무하게 현식 씨는 저 세상으로 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깊고 어두운 그 날 밤은 유난히 포근했고 바람도 없이 솜털같은 눈이 내렸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보며 현식 씨의 영혼이 하얀 눈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마음은 오월의 하얀 도화지와 같았고 나이가 들어도 세사에 물들지 않았다. 수 년간 장애인 시설의 촉탁의로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말없는 미소와 천진난만한 행동에 묘한 정을 느끼고 있었다.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의 지체와 육체의 중병을 견디며 살아온 현식 씨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과 닮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현식 씨는 이제야 행복과 안식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 날 밤 나는 현식 씨를 데려가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었다.

다음날 영안실에 문상을 간 자리에서 현식 씨 어머니를 만났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 나의 손을 잡으시는 어머니의 화장기 없는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흘렀다. 영안실에는 장애인 친구들과 돌보던 선생님들 외에는 문상객이 없이 한산했다. 앉은 자리에서 복지촌의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모르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현식 씨 형제들이 모두 정신지체예요.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 어머니 혼자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며 애들을 키웠다고 해요. 현식 씨가 복지촌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얼마나 우리 복지촌 직원들을 고생시켰는지 아세요? 어머니만 왔다갔다 하면 꼭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가 간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나가요. 어떨 때는 사흘만에 찾은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실종되었는데 추운 날씨에 너무 늦게 발견된 것 같아요. 현식 씨 죽기 전날 어머니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 주는데, 말도 못하고 한 번 울지도 못하던 현식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래요.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얼마나 흐느껴 우시는지……. 살아 있을 때 옆에 오래 있어 주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된대요."

그래 현식 씨가 원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의 행복은 어머니가 옆에 있어 주는 바로 그것이었다. 현식 씨는 어머니가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 주는 바로 그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일 년 중 가장 축복 받은 날, 현식 씨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드린 것은 아닐까?

그 날 깊은 슬픔 속에서 다소곳이 앉아 계시던 현식 씨 어머니의 하얀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로부터 거의 일 년이 지난 후에 장애인 복지촌 선생님으로부터 현식 씨 어머니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다. 현식 씨 동생이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밥을 해주며 살고 계시다고 했다. 예전의 기억을 거슬러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을 감추려 쳐다본 파란하늘에 딱 한 번 본 듯한 현식 씨의 웃는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화장지에 싸인 만원

전우진
동산종합의원(봉화)



제가 개원해 있는 경북 북부지역에는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십니다.

이 글은 그 중의 한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70대 후반의 김ㅇ순 할머니, 2살 아래인 김ㅇ남 할머니가 제 병원에 단골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늘 병원을 사이좋게 같이 옵니다. 언니인 김ㅇ순 할머니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이고 청력도 많이 안 좋으시고, 동생 김ㅇ남 할머니는 눈은 연세에 비해 좋으시지만 청력은 거의 없는 상태로 생활합니다. 동생은 늘 사람들에 정이 많고,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진찰실 앞에서 대기의자에 약간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면 십중팔구 귀가 잘 안들리면서 "어디가 아파서 완니껴? 고뱅이 아프니껴, 허리 아프니껴"라며 앉은 아무 환자에게 정성있게 묻습니다.

반응은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10대는 "머리가 좀……" 순진해서 거의 답을 해줍니다.

20대는 "……" 뭐 이런 할머니가 다 있지?하는 묵묵부답.

30대는 "……" 왜 이러시나?하는 무답.

40대는 당황스러워서 "괜찮아요"

50대는 당황스럽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되받아 묻습니다. "할매는 어디 아파서 완니껴"

60대 이상 환자는 동병상련으로 "안 아픈데가 업서요, 온 사지가 쑤시고 미-이진하고 온 만신이 성한데 업꼬, 육개장이고…… 근데 어데가 아파서 완니껴? 아까 그 할매(언니)하고 같이 완니껴,늘 붙어다니던데"합니다. 친구도 되며 또 자매의 우애

에 부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간호가 "할머니 진찰봐야 되시니 들어오세요"해도 귀를 못들어니 이제는 옆에 있는 아기를 보고 애기 엄마에게 "에헤헤헤 귀엽네, 몇 살이니껴, 어데가 아파서 왔니껴, 찬바람 세지 말고 집에 꽁꽁 있어야 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 못들으니 간호가 직접 가서 모시고 옵니다. 진찰실에서도 분답습니다.

"머리 짱배기가 딱딱딱 아프고 고뱅이도 아프고 발도 저리고 궁뎅이도 시리고 선상님 어떡 낫게 해줘요. 피가 나도록 찔러줘요"

또 손으로 아픈 자리를 가리키며 빨리 찌르(IMS ; 근육 내 침자극)라고 재촉하고 IMS를 할 수 없는 자리인 머리두피에도 해달라하고, 설명은 안통하고 어쨌던 수단껏 다 해주고 나면 할머니는 그 찌른 자리를 손으로 꾹 눌러 피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피가 적게 나오면 "이러면 난 니껴. 더 찔러 줘야지, 피가 안 나오니더"

더 찔러 드리면 얼굴이 펴지면서 "헤헤헤, 이러면 난니껴"하면서 진찰대를 내려와서 귀를 봐달라고 ENT UNIT 의자에 앉습니다.

"귀가 스물스물거리는데, 좀 봐주니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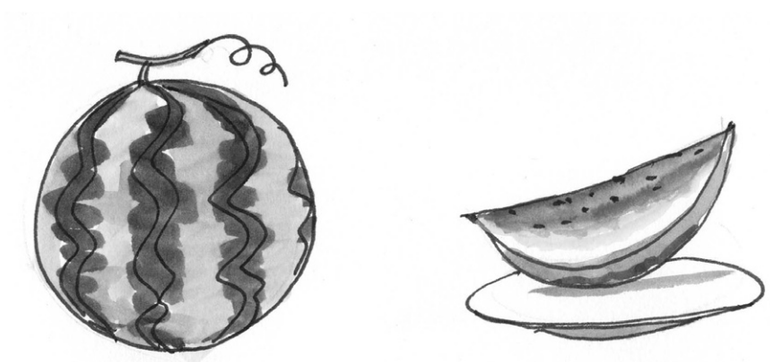
"예, 귀를 이쪽으로 돌려 보세요"하면서 귓불을 당겨 살펴봅니다.

알콜로 귀 속을 청소해 드리면 일련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만일 안 해주면 다른 치료 다 받고 나서 또 들어오셔서 봐 달라거 죽치고 기다립니다.

이 할머니가 오면 치료하는 일상의 당연한 코스이지만 장날에 바쁘고 할 땐 짜증이 나서 "그만 오고 딴 데 가요"라고 말하려다 목구멍까지 올라와서는 사라집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대기실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면 귀가 안들리는 그 두 자매가 싸우고 있습니다. 동생이 주사 안 맞으려는 언니를 훈계하는 말입니다.

"어허, 주사는 왜 안맞는데,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낫지, 뭉디거치 왜 안맞는데, 맞



어……"

"안 맞는다 카이. 그러지 마래, 안 맞는다 카이"

"맞어야지, 안 그러면 뭐 하러 병원왔는데"

옆에 기다리던 환자들은 짜증내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여기저기서 속닥거립니다.

"둘이 언니, 동생이라요? 어허 우째 거리 저 연세에 같이 댕기노? 허허 우애도 좋구먼"

이런 일이 오시는 날마다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과도 같으니 이제는 환자들도 그 언니 동생에게 부럽기도하여 먼저 말을 걸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환자 10명정도 보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짜증날 때도 많지만, 그 언니-동생의 우애가 소중해서 그냥 해드립니다.

어느날 햇볕이 잘드는 창가 소파에 두 사람이 나란히 붙어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들리지 않은 귀로, 서로의 느낌으로 얘기하는 두 분이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분다 어렵게 살다보니 잘 챙겨 드시질 못하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설명해도 잘 모르니,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혈압약을 처방할 때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중풍이 늘 가까이 잔존하는 노인들이, 혈압약을 다른 약 먹는다고 안 먹거나 한꺼번에 2봉지 먹거나 하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언니는 정신없어서 혈압약을 먹고, 깜박 잊고 또 먹기도 하는 것 같아 조마조마 했습니다. 제 병원을 못찾아 반나절만에 왔다는 소리를 듣거나, 동생을 마구 때린다거나 하는 치매 증상도 있었습니다.

어느날이었습니다. 대기실이 소란스러워 가 보니 동생과 언니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진찰실에서도 횡설수설하고 말도 느리고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뇌졸중이 곧 올 것 같아 의뢰서를 적어 안동 모병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쯤에 동생이 혼자서 병원을 왔습니다. 여전히 일련의 과정을 치른 뒤 언니에 관한 얘기를 물어 보았습니다. 귀가 안들리니 X선 봉투로 긴 메가폰을 만들어 귀에다 대고 알아들을 때까지 큰소리로 물어 보았습니다.

"할머니, 언니는 어떻게 되었나요?"

"엉, 언니? 갔어"

"어딜요?"

"저 멀리"



만원을 꼬깃꼬깃 싼 화장지 ▶

가슴이 짠해지기도 하고, 방어진료의 일환으로 안도의 마음도 느껴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혼자 남을 동생할매를 그려보니 쓸쓸하여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동생할머니는 여느 때보다 덜 보채고 약간 말수가 줄었는듯 보였습니다. 왠지 할머니는 남은 인생의 평탄하지 않음을 직감했는지, 아니면 세월의 흔적으로 빨리 채념한건지, 아니면 혼자서 외로움을 삭히는지 오히려 담담한듯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동생할머니는 예전처럼 병원에 왔습니다.

구정 4일 전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면서 주위를 살피더니 하얀 화장지 종이에 싼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화장지 속에 초록색 종이 비슷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조각으로 두세 번 감았고, 사각형으로 약간 모양도 낸 듯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 와서 구겨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이 둔한 노인네가 곱게 2~3번 감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매월 7만원을 군 복지과에서 타서 생활하는 할머니가 만원을 설 잘 쉬라고

"이거 받으세. 며느리하고 아들이 돈을 안 부쳐줘서 돈이 없어"라며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머리가 버쩍 서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개원 그 때보다 환자들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귀한 걸 주다니 그저 그마음이 고마웠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만원은 내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할머니에겐 기백만원에 해당할 것 같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괜찮습니다. 받은 걸로 할께요"라고 말했지만 귀가 잘 안들려 그냥 늘 하던 자세로 치료받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장지에 싼 만원을 가지고 할머니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몹시 화를 내는 듯한, 성의를 무시하느냐는 듯 손사래를 치길래 더 이상 돌려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여기고 일단 받기로 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받아들고 진료실 옆 잘 보이는 곳에 얹어 두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왠지 힘이 나는것 같기도 하고, 만 가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군에서 주는 자활기금으로 옷을 사주지 않으면 늘 똑 같은 옷만 입고, 병원비말고는 돈 쓸줄 모르는 할머니가 준 만원은 기백만원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든 돌려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자꾸 스쳐갔습니다.

구정 뒤에 와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정이 지난 후 수요일, 드디어 귀에 낯익은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간호가 접수하는 접수실 수부 안에 서 있길래 물어보니, 오늘 한 주먹되는 들깨를 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더군요. 많지 않기에 더 많아 보이는 작은 들깨봉지, 오늘따라 조막만한 들깨봉지가 가마니처럼 보였습니다. 간호들도 감격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내원했습니다. 그냥 약을 처방만 하기에는 심한 듯하여 수액실로 안내하여 혈관주사를 놔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다시 진료실로 와서는 여느 때처럼 진료해 주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진찰할 때 미리 짠 데로 내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주임 간호가 할머니 주머니에 만원을 몰래넣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아프시니 이쪽으로 보세요"라며 손으로 머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자꾸 쳐다보기에 두세 번 했습니다. 그사이 귀한 선물을 허름한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젠 다 되었습니다"라는 손짓으로 내려오시게 했습니다.

진찰후 할머니는 "안녕히 계시세이"라고 인사한 후 나갔고, 나는 왠지 홀가분한 마음이 들면서 할머니가 나가는 뒷모습을 쳐다 보았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진찰비 운운한적 없고, 늘 옆의 환자를 걱정하면서 물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동생이면서도 끔찍이도 언니를 챙겨주었던 김ㅇ남 할머니!, 허락하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의료 현실에 작게나마 단비를 맞게 해준 할머니에 감사를 표하고, 늘 날 귀찮게 했는데, 이젠 괴찮게 안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조기 유학!

이덕영
하양중앙내과의원(경산)



2008년 2월 5일 난 아이들 셋과 집사람을 데리고 세 아이의 유학을 위해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국제공항을 향했다.

'1~2 년쯤은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할 수도 있으니 외국문화 많이 익히고 영어도 많이 배워서 와라' 고 얘기할 수 있었던, 어떤 이들이 보면 '아이들을 너무 극성스럽게 키우려 한다.' 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용기(?)가 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의 가치관은 자기가 처한 삶의 환경이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변화됨을 느끼게 된다. 돌이켜보면 나도 많이 변했다.

예전의 내 모습이 생각난다. 10여 년 전 우리 큰아이 지원이가 세 살 때쯤이었던가? 그 때 난 레지던트 3년차였다. 레지던트 생활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슬하에 아이를 한 둘씩 둔 간호사들과 차라도 한 잔 나눌 때면 주로 육아에 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그 당시에도 아이를 둔 간호사들은 두 살에서부터 다섯 살 배기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유아용의 교재를 사서 무슨 공부를 시킬까?' 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서로간에 의견을 나누곤 하였다. 그럴 때면 난 옆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공부를 벌써부터 시키느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예전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학원 한 번 안 가고도, 그리고 과외 한 번 안 받았어도 대학도 가고 또 이렇게 어엿한 직장인들이 되었지 않느냐?" 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곤 했었다. 나 역시 시골 벽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중학생이 되어 읍내에 나왔을 때 처음 알았고, 과외 공부가 금지되었던 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도 일부 극성스러운 부모 밑의 아이들은 몰래 과외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난 과외 수업이나 학원 같은 데는 관심을 가질 형편이 전혀 못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 속해 있든지 '다 자기 할 탓' 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고 그 생각의 일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볼 때는 젊은 시절 그런 나는 흔히 말하듯이 '케케묵은 옛날 생각' 에 잠겨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 마인드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양에서 개원한 다른 동료 선생님의 경우에 아이가 다섯 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느라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멀리 떨어진 시지까지 매일 태워주곤 했는데 난 우리 아이가 일곱 살이 될 때까지 계속 하양에 있는 교회 부설 선교원과 유치원에 보냈다. 그 당시 나의 생각은 '아직 우리말도 모르는 아이에게 벌써 영어를 배우게 하겠다며 엄마랑 아이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먼저 우리말을 보다 많이 익히고 영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되지 않나? 유치원에서는 그저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고 봄가을에 소풍도 가고, 가을 단풍도 보고 하면 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봄이면 들판에 지천으로 핀 예쁜 꽃들과 친해지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흙 만지고 놀다가 그래도 더우면 언제라도 동네 연못에서 수영을 하거나 맑게 흐르는 도랑물 속에서 가재를 잡아 어머니께 매운탕을 주문했고, 가을이면 또 형형색색으로 무르익은 단풍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함께 물들었고 떡 벌어진 밤송이에서 반질거리는 토실토실한 알밤을 발겨 먹거나 빨갛게 익은 맛있는 홍시를 따먹으며 행복해 했고, 겨울이면 펄펄 내리는 눈을 맞으며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즐기고, 논바닥에 얕게 물을 대어 스케이트를 즐기면서 보낼 수 있었고 수 십 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어도 자연 속에서 그렇게 보냈던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개원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하듯 나도 평소 진료실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바쁘게 생활하는지라 여름 한 철 휴가시즌이 되면 진료실에서의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 일주일 드물게는 이주일 동안 가끔씩 해외로 여행을 나가 쌓인 피로를 풀곤 했다. 2002년 여름휴가는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휴양지 빈탄의 '클럽메드 리조트' 에서 보냈다. 크리스탈처럼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끽하며 만찬과도 같은 뷔페식사와 더불어 럭셔리하고 편안한 객실과 리조트 시설에서 수십 가지에 달하는 스포츠 액티비티를 즐기며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여름의 풍성한 기억은 나에게는 행복한 휴가의 전형이며 세월이 흘러도 잊혀 지지가 않는다. 2004년에는 남태평양의 미국령인 괌의 PIC 리조트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렀는데 느낌이나 분위기는 빈탄에서와 비슷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여름 휴가기간에 우리 가족은 약 이주일 동안 미국을 여행하였다. 약 일주간 워싱턴D.C., 뉴욕주, 뉴

저지주 등 미국 동부지역을 여행하였고, 미국 중부지역인 인디애나주의 친구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일주일간 미국의 동부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아이비(IVY)리그대학들을 방문하였다. 세계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었으며 그 대학 견학을 위해 방문한 우리 관광객들에게 안내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들은 장차 아이비리그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면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세계의 각국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며 세계에 그들의 이름과 대한민국을 드높이는 훌륭한 인재들이 다 되리라 믿는다.

동부지역을 여행 중이던 어느 날 아침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 먹은 후 일곱시에 투어용 버스를 타고 뉴욕주와의 접경지에 있던 뉴저지주의 한 모텔에서 출발해 관광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여기저기의 여행지를 둘러보며 오후 일곱 시쯤 도착한 곳이 나이아가라폭포였다. 그 때 나는 우리가 열 두 시간 이상을 달렸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일주한 줄로 생각했지만 가이드의 설명은 우리가 아침에 출발한 뉴욕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열 두 시간 이상을 달려도 미국 50 개 주 중 하나의 주 밖에 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정말로 미국의 광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한국에서는 명절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 두 시간을 차로 달리면 전국 일주가 가능하지 않은가? 미국에 도착해서 세계의 인종들이 다 모여 있던 뉴욕과 워싱턴D.C.를 보았고, 편도 10 차선의 뻥 뚫린 멘하탄 외곽의 고속도로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브랜드의 차들이 러시아워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던 모습은 어쩌면 지구촌의 한 귀퉁이에 붙은 시골에 속할지도 모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40년 가까이 이 땅에서만 생활하다가 광활한 미국땅을 처음으로 밟고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을 둘러보았던 나에게는 몇 해가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장관이었다.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있는 동안은 별로 불편한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와 만나기 전까지 미국 국내선을 이용해야 할 때와 여행이 끝날 무렵 가이드와 헤어지고 난 후 우리가 미국을 떠날 때는 공항에서 내가 직접 수속을 해야 했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꽤나 힘들었다. 그 때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나 자신이 어디에 가더라도 남부럽지 않고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깐 영어로 적당한 의사 표현도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완전히 '시골 촌놈 같다' 는 자괴감이 들었다. 거대한 땅덩어리의 미국!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 쓰나미에서 전 세계는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이듯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1 2
3
4 5

1. 미국 나이아가라폭포의 Whirlpool에서 Jetboat탈 때의 모습
2. 2006년 7월 13일 부시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의 모습
3. 예일대 교정의 Elihu Yale의 동상의 모습(이 동상의 발을 만지고 가면 나중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전설에 따라 관광객들이 모두 한 번씩은 만지고 간다.)
4. 홈스테이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5. 2007년 10월 12일 세인트필립스크리스천학교 방문 당시





부와 권력의 중심지 미국! 그 미국의 문화를 알고 미국인의 삶의 모습을 잘 이해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수혜를 받으려면 영어를 좀 더 적절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영어 때문에 불편한 점은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2006년 미국 여행 후에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7년 지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 혜원이가 3학년 때 계성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주의 남부 태평양 해안가의 휴양지 고스포드에 있는 '세인트 필립스 크리스챤 스쿨'에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나가게 되었다. 고스포드에서는 호주 현지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댁에는 우리아이들과 동갑내기의 Jordan과 Taylar라는 두 딸들이 있어서 우리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특히 Wendy 아주머니의 자상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 아이들은 현지 생활에 너무나 잘 적응하였다. 6 개월간 지원이, 혜원이가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서도 잘 적응하고 호주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면서 집사람과 나는 '아이들이 영어를 좀 더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6 개월의 해외 생활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인 딸 둘만 외국에 계속 두기엔 여러 가지로 불안하였다. 영어는 좀 더 익힐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할 나이에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사랑과 애정의 결핍이나 정서적인 갈증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의문 부호도 생겼다. 그래서 일년 동안 와이프로 하여금 외국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난 기러기 아빠로 남기로 결심을 했고 유학을 위해서 정보를 모으던 중 눈 덮인 산, 황금빛의 모래 해변, 빛나는 호수 및 태고의 우림지대 등 가끔 엽서에서나 볼 수 있을 멋진 풍경과 더불어 남한의 세 배가 되는 넓은 국토에 인구는 약 45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나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극히 조용하고 평온한 나라 뉴질랜드를 택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소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휴가 활동 중 하나는 캠핑이다. 숲속이나 해변, 또는 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거나 간이 오두막집에서 지내는 생활이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을 떠나 낚시, 산책, 수영과 같은 야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국립공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이곳은 누구에게나 대부분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들 국립공원에는 야외 바비큐 파티를 위한 가스 및 상수도 시설을 국가에서 갖추어 놓아서 시민들이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우리 가족은 오클랜드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타우랑가 라









6		7
	8	
1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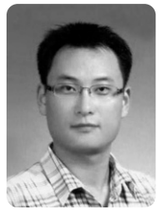
6.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우리 가족
7. 2007년 12월 귀국 직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8. 고스포드의 Reptile park에서-코알라가 낮잠 자고 있는 평온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9. 막내 시원이의 유치원 친구들
10. 2008년 5월 타우랑가시 스즈끼 바이올린 콘서트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and God loves you!
Love you
Love you!
아빠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Love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믿기지 않는 일 하나

김은용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경주)



살다보면 별희한한 일도 많고, 그 중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도 겪기 마련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술자리에서 한 번쯤 되새겨봄직한 얘깃거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

막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는 달라진 세상을 즐기는데 인색하지 않기 위해 애쓰던 때였다. 내 진료실이 따로 생겼고, 자랑스럽게도 커다란 원목 책상 정면에는 내 이름 석자가 양각으로 새겨진 명패가 떡하니 놓였다. 어떤 환자가 올까, 어떤 질환을 처음으로 다루게 될 것인가. 기대도 많고, 두려움도 많던 시기였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일 년이 지나고 차츰 타성에 젖고, 적절한 매너리즘을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익숙한 마음의 상궤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건이 생겼다. 식사를 거의 못하시는 영감님이었다. 음식을 넘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성가신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함께 오신 할머니는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손에 들면 예외 없이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다.

"언제 죽겠능교? 와 안죽노? 내가 먼저 죽어뿔까?"

"할배 아직 멀었어요. 왜 그런 말씀 하세요? 할배 안 계셔봐요, 할매 외로워서 못 사세요."

"우짜꼬, 저래가 오래 살모 우짜꼬…"

그리고는 손자가 준비한 휠체어를 끌고 댁으로 가시곤 했다.

내가 발령받기 수 년 전부터 그래왔을 것이었다. 이후로도 한참동안을 할아버지는 큰 고비 한 번 없이 잘 버티셨고, 할머니는 말씀과 다르게 그게 고맙고 장히 여기셨던 것 같다.

"과장님, 외래 계속 다니시던 분인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였다. 40도 이상의 고열과, 양측 폐야의 수포음, 호흡곤란 등 급성 폐렴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였다. 연세가 구십이니 정상적인 컨디션으로의 복귀가 어려움을 설명하고 어쩌면 장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 때 왜 나는 항상 동행했던 손자와 할머니의 눈물과 탄식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중환자실에서의 아슬아슬한 고비가 계속되었고,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와 손자의 애절한 눈길을 피할 수 없어 일주일 넘게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당직을 섰다. 그래서였을까?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눈이 떠졌다. 1년여 동안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분이 말씀도 하신다.

"어데 갔노, 어데 갔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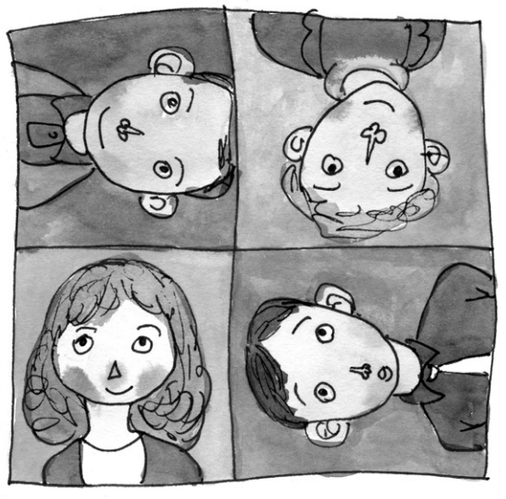
"할매 말씀잉교? 내 지금 가서 할매 모시고 오꾸마."

잽싸게 손자는 중환자실을 튀어 나갔고, 한 시간 반 정도 만에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보고 싶더나? 고마 죽지. 내 한 번 보고 죽을라꼬?"

할아버지 손을 놓지 못하고 입으로는 고마운 악담을 내고 있었다. 사실 할머니는 이삼 일 전부터 병원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다.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강박적인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새벽 4시경, 할아버지의 심정지 연락을 받았다.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은 멈추었고 자발적인 호흡도 없는 상태였는데, 손자는 또다시 할머니를 모시러 갈 태세였다.



"늦어.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다. 돌아가셨어."

"금방 옵니더. 저래 뵈도 할배는 할매 못보고는 절대로 안죽심더. 금방 모시고 옵니더. 아직 살아계신 거

아입니꺼?"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그만해."

"금방 모시고 오겠심더. 살리만 주이소. 할매 올 때까지만 살려 놔 주이소."

"모시고 가자. 갔다 오는데 한 시간 반이니, 모시고 가면 40분이면 되잖겠나. 모시고 가자."

중심정맥을 잡을 새도 없이,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경정맥으로 라인을 잡아 심장약물을 투여하면서, 분당 20회도 채 되지 않는 심박동으로 아슬하고 분주한 새벽 귀가가 시작되었다.

어슴푸레 날이 밝을 무렵 할머니의 시골집에 도착하였고, 나는 짜고 있던 엠부 백을 멈추고 삽입했던 기도 튜브를 제거한 후 다시 엠부 백으로 강제호흡을 다시 시작하려다 응급구조사에게 맡기고는 앞마당과 트인 마루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밥은 멕여야지, 안 그렇소?"

막 눈물이 마른 얼굴로 할머니는 간소한 아침을 한 상 차리시고는 방으로 들이고 있었다. 이미 상당시간 심정지 상태로 돌아가신 분에게 밥을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시는 대로 그저 바라만 보았다.

그때였다.

"할배요! 뭐요? 뭐요? 예. 예."

손자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대체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밥 숫가락 가득 흰 쌀밥을 뜬 할머니를 바라보고 계셨다.

"잡수소."

꿀꺽! 내 침과 함께 할아버지의 마지막 진지가 함께 삼켜지고 있었다.

돌아오는 엠뷸런스 안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쏟아지는 잠과 상식적이지 못했던 밤 사이 일에 대한 잡다한 생각이 뒤섞여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일상의 궤 안으로 흡수되어졌다.

손자와는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고, 할머니는 이번 추석에도 포도와 배 한 상자씩을 보내 오셨다.

누구나 하나쯤 믿기지 않는 일을 겪게 되지만, 그날 나는 의사로서 너무나 재빠르게 죽음을 진단함으로써 스스로 믿기지 않는 멍에 하나를 짊어지게 되었다.

낙동강 1300리 도보 순례기

손혜영
변영우 회원 가족(경주)



'따르릉'

이원보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응, 낙동강 도보순례에 참가하자고?" 남편의 대화에 귀가 쫑끗해졌습니다. 전에 남편이 '금강도보순례'에 다녀온 후 본 사진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해봤으면…"하고 부러워했었는데, 남편이 "갈래?"하길래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무경험자(?)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겹쳤지만 "너 맘 단단히 먹어라. 중간에 그만 두면 안돼"라며 남편식의 격려(?)에 힘입어 힘차게 시발지인 황지못으로 향했습니다.

신비스럽게 몽클몽클 솟아오르는 황지수를 제단에 바치고 무사한 일정을 기원하는 발원제를 정성스레 올린 뒤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태백의 황지천을 따라 4억9천만년 전의 퇴적암이 침식되어 생긴 '구문소'에 다달아 연못 안을 들여다 보니 물은 짐작보다 적었지만 억만년의 세월의 흐름이 단단한 화강암을 변화시켜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바위들과 바위굴이 조각되어 자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봉화계곡을 숨 가쁘게 오르니 수려한 풍광이 펼쳐지고 주위 산비탈을 따라 고랭지채소가 탱탱하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 먹으면 ' 아싹! '소리 날 것 같습니다. 김치 좋아하는 남편의 입맛에 맞을텐데라며 일행을 따라 비탈길을 내달았습니다.

승부 현수교를 건너니 바로 승부역입니다. 걸어 갈 수도 자동차로 갈 수도 없고 오직 기차로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가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태백의 석탄을 실어 나르던 그 곳 철길은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비경이었습니다. 조용한









때 다시 오고픈 충동을 느끼면서 개구쟁이 아이마냥 즐거웠습니다. 계곡에서 가져온 흙 묻은 무우는 옷에 쓱쓱 문질러 한 입 크게 베어 먹으니 달고 맵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년이 건넨 무를 한 입 베어문 소녀가 '맛이 지리다' 고 하는데 그 맛이 이 맛일까? 소녀의 여린 피부가 무 속살과 겹쳐집니다.

천년 선비의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농암 종택에 이르니 별채가 첫눈에 뜨입니다. '긍구당' 이란 현판이 걸려 있는데 풀먹인 하얀 무명옷의 여인인양 반듯하고 정갈합니다. 늦은 저녁식사 후에 대청에서 여흥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향수」를 합창했는데, 짚베게에 기대어 살풋 잠이 드신 아버지와 사철 발 벗은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곳이 그 곳이 아닌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 소리는 야트막한 담장을 넘어 흐르는 낙동강물을 따라 함께 흘러갑니다. 어느듯 사방이 어두워오고, 창호지 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듭니다.

눈꺼풀에 잠을 달고 이슬 내린 새벽길을 갑니다. 더위를 피하려면 일찍 길을 나서야 합니다. '예든길(옛길)' 은 퇴계 선생님이 즐겨 걸으신 산책로입니다. 퇴계 선생









께서 읊으신 〈曲折屢渡淸凉難…〉된 한시 한 수가 걷는 길을 멈추게 합니다.

구비 구비 넓은 여울
높고 높은 푸른 산
청량산은 숨은 듯 다시 보이고
무궁한 모습 시심을 북돋우네

선생님께서 멀리 보이는 청량산자락에 눈길 보내시며 하이얀 모시옷 입으시고 유유자적 걸으셨을 멋진 길을 나는 너무 빨리 걷고 있습니다. 어휴! 하루에 30Km 남짓이라니, 벅차고 벅찹니다.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하여 드라마 '토지' 의 최참판댁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름달 둥실 떠오르고 참판댁 앞 작은 길이 달빛 속에서 희게 빛납니다. 별과 달이 이 고을 기와와 초가 이엉 위에서 더 깊습니다. 가파른 계곡물이 넓은 들의 품에 안길 때 자궁처럼 안온하고 평화롭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면서 회룡포와 하회마을이 또 '예든길' 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볕 속 먼 길을 돌아오느라 온몸이 뜨겁습니다. 얼음주머니를 모자 안에 넣고 걸으니 잠시 시원하더니 이내 줄줄 내려온 물이 땀과 범벅이 되어 흐릅니다. 아스팔트 위의 더운 몸이 늘어진 해삼처럼 흐물흐물합니다. 뙤약볕 아래 고추밭의 아주머니와 노래를 주고받으며 스쳐 지나갑니다. 홍겨운 가락인데도 힘은 점점 빠집니다. 둑 위로 걷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는 동안 단장님의 강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강폭이 여기 와서 느닷없이 넓어졌지요?" 나는 잠시 멈칫거리다. "무단-이요"라고 답하니 "와-아" 모두들 웃습니다. 무분별한 모래 채취의 결과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구둑으로 내려올수록 수질이 탁해집니다. 악취가 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지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경제력이 더 높아져야 자연환경이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들판 위에 목적지가 뻔히 보이는데도 걸어보면 멀기만 했으나, 흘러가는 강물 따라 묵묵히 걷다보면 어느 틈에 목적지에 닿아 있곤 했습니다. 새벽부터 걸을 때는 민박 아주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참기름주먹밥'으로 길에서 아침을 먹기도 했는데, 쫄깃하게 씹히는 장아찌가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주먹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느꼈습니다.

도보순례 후반부에 대원들 중에 작은 부상과 배탈 환자가 생겼습니다. 대원들의 주치의인 남편과 이원보 선생님은 적절한 처치와 처방으로 모두들 무사히 도보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인술(?)을 베풀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대원 중 한 분은 링-거주사를 맞았는데, 걷는 것도 중독성이 있는지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먼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도 걷는데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가셔지는 듯했습니다.



전체 일정을 다 따라하지 못한 7박8일간의 도보순례이지만, 내 생에 새로운 도전이었고 언제나 자랑하고 싶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남자들이 군에 갔다오면 군대 이야기만 한다는데 아마 이런 기분일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내년에도 강 도보순례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감은 없지만 마음은 벌써 체력단련 등 준비를 해야겠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물거렸던 기억들이 찍어온 사진 속에서 다시 새록새록 피어나며 신선한 새벽공기를 맞으며 강가를 걷는 새로운 감흥에 젖어듭니다. "안수야, 서 봐라" 부르는 남편의 카메라 찍는 포즈가 강 풍경과 함께 정겹게 내 눈 속에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황산 산행기

전민
인성병원(포항)



"오악(五嶽)에서 돌아오고 나면 볼 산이 없고, 황산에서 돌아오고 나면 오악을 볼 필요가 없다."

30년간 중국 곳곳을 떠돌았다는 명나라 때의 여행가이며 지리학자인 서하객(徐霞客, 1586~1641)의 말이다. 중국의 오악이라면 태산(泰山) · 형산(衡山) · 화산(華山) · 항산(恒山) · 숭산(嵩山)으로 너른 중국의 동서남북과 중앙을 대표하는 명산들을 말하니, 황산이 곧 천하제일의 경관을 갖췄다는 말이다.

포항시의사산악회는 23명의 회원 및 가족이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안휘성 소재 황산(1867m)을 등반하고 돌아왔다.

첫째날

새벽 4시 30분 미리 예약한 전세 버스편으로 23명의 일행은 인천공항을 향하여 포항을 출발했다. 모두들 잠도 설치고,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로 오직 황산을 오르기 위해 꼭두새벽에 집을 나선 것이다.

오전 9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이번 황산 등반을 주관할 UP트레킹의 이 부장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는 한산한 편이어서 탑승수속이 빨리 진행이 되어, 일행은 여유 있게 공항 면세점을 구경하며, 깨끗하고 잘 정돈 된 인천공항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도 했다.

오후 1시 30분 우리 일행을 태운 비행기(중국항공)가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병아리 같이 조잘대는 중국 스튜어디스가 갖다주는 기내식을 배고픈 차에 게눈 감추듯 먹어치우고, 갈증으로 모두들 캔 맥주를 주문했으나 끝내 못 얻어 마시고, 비행기는 2시간의 비행 끝에 오후 2시 30분경(시차 1시간) 비가 내리는 항주공항에 착륙했다.

입국 수속 후 공항 청사 밖으로 나오니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었다. 출발 전부터 날씨 걱정을 많이 했다. 황산지역은 1년에 맑은 날씨가 50여 일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은 지역이라 황산을 3번 갔다 오고도 구름만 보고 간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여 어렵게 온 황산을 구름만 보고 가는 것 아닌가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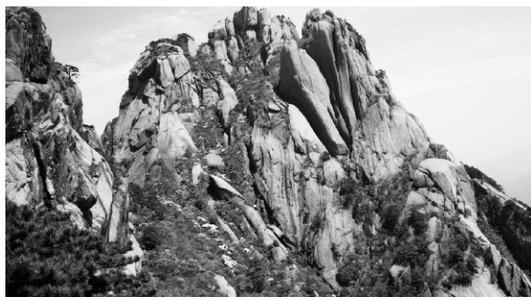
공항에 미리 대기해 있는 전세버스에 오르니 앳된 중국동포 청년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하며 황산트레킹을 자기가 안내하겠다고 한다. 모두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여 서호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캔 맥주와 안주를 사 싣고 황산시로 향하였다. 중국 맥주에다 참소주를 섞어서 국제 폭탄주를 만들어 한 잔씩하고 지난 밤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 나니 피로가 좀 가시는 듯하였다. 3시간여를 달린 버스는 야경이 찬란한 황산시에 도착을 하였다. 관광지 냄새가 물씬나는 황산시는 안휘성의 효자 도시이다. 안휘성은 중국의 성 가운데 꼴지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곳인데, 황산시의 관광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한다. 황산의 관광객이 대부분이 한국사람이니 한국인이 안휘성을 먹여 살리는 셈인가?

교포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명청(明淸) 거리를 가 보았다. 엄청난 인파에 놀랐고, 엄청나게 큰 벼루와 붓에 놀랐고, 우리 일행 중 한분이 실종이 되어 또 놀랐다. 실종된 한 명을 찾아서 우리 일행은 호개문호텔이라는 곳에 투숙을 했다. 자! 내일 본격적인 트레킹을 위해서 일찍 자자!

둘째날

새벽 5시경 눈을 떠서 창밖을 보니 전날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맑고 쾌청한 푸른 하늘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황산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케이블카 타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일찍 가야 된다는 가이드 양반의 재촉에 우리 일행은 예정보다는 늦었지만 평소보다 매우 이른 오전 6시 30분경 아침밥을 대충 먹고 전세 버스로 황산 입구로 향했다.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황산입구에는 케이블카역인 자광각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려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이었고, 한국인 트레커들도 군데군데 눈에 들어왔다. 우리를 태운 셔틀버스는 브레이크가 없는지, 있어







도 사용 안하는지 그 아슬아슬하고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곡예하듯이 달리는데 마치 롤러 코스트를 타는 기분이었다.

몸살이 날 지경으로 시달려서 도착한 자광각 입구에는 정말 엄청난 인파가 줄을 지어 있었다. 2시간 동안 앞 뒤로 서 있는 중국아가씨들의 따발총 같은 말고문을 당하고야 우리는 겨우 케이블카를 타고 옥병루(1680m)에 올랐다. 옥병루는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마치 돗대기 시장 같았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영객송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명한 소나무다. 멀리 황산의 웅대한 봉우리들이 펼쳐져 있고, 지척에 깎아지를 듯이 서 있는 천도봉은 왕복 2시간 걸리는 거리라 그저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전 10시경 우리는 옥병경구 트레킹을 시작했다. 황산은 중국의 오악(五岳)중 하나로서, 한국인들 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붉은 모자를 쓴 중국인들의 끝없는 행렬 속으로 우리 일행은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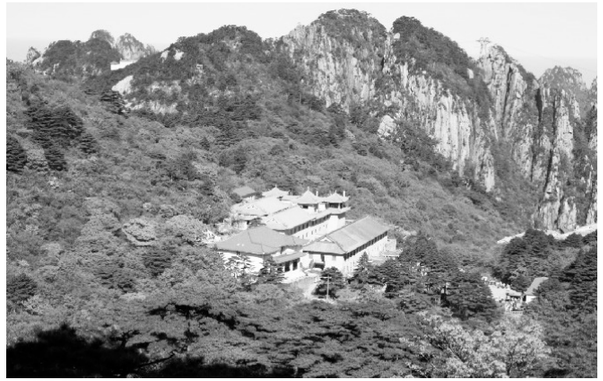
황산 최고봉인 연화봉은 폐쇄되어 우회하고, 절벽을 조각하듯이 깎아서 만든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백보운제(百步雲梯)를 거쳐서 하늘로 한 줄로 뻗어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절벽 사이의 계단인 일선천(一線天)을 거쳐 거대한 물고기를 닮은 오어봉(鰲魚峰)에 올라보니 거암괴석 사이로 꼬불꼬불 이어지는 계단으로 수많은 인파가 줄지어 오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고, 연화봉을 비롯한 황산의 신비하고 거대한 봉우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해심정(海心停, 1600m)을 거쳐 천해(天海)에 이르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마치 바다와 같이 넓게 펼쳐진 고원(高原) 가운데에 자리잡은 백운호텔이라는 곳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이번 황산 등반의 백미인 서해대협곡 트레킹을 위해서, 조 편성을 했다.

우리 일행 23명 전원이 서해대협곡을 트레킹할 것을 제안했으나, 3명의 여성분들이 포기를 했고, 보호자로서 2명의 회원이 남아서 총 5명은 UP트레킹의 이부장과 함께 지름길로 바로 숙소인 북해호텔로 가기로 했다. 오후 2시 우리 일행 18명은 현지 트레킹가이드인 중국동포 청년의 안내로 서해대협곡 트레킹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다시 옥병루로 돌아가기 때문에 백운호텔에서 왼쪽 오솔길을 따라 서해대협곡 입구로 들어서니 우리 일행 이외에는 인적이 없었다. 10여분 걸어가니 갑자기 눈앞에 엄청난 전경이 펼쳐졌다. 하늘로 치솟은 산봉우리들 사이사이로 계단으로 된 등산로가 거미줄 같이 굽이치는 장관이 멀리 한 눈에 들어왔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카메라 셔터만 눌러댔다. 오늘 우리가 트레킹해야 할 코스가 한 눈에 들어 온 것이다. 가이드가 이곳이 포토 포인트라고 설명을 하며 길을 재촉한다.

이제 해발 600여 미터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말에 기가 질려 버린 여성분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빛이 역력했다. 끝없이 내려가는 돌계단의 행렬……. 한 쪽은 하늘로 새까맣게 치솟은 바위덩어리, 한 쪽은 천길 낭떠러지 그 사이사이 기암괴석들이 치솟아 있고, 황산의 자랑인 빼어난 자태의 소나무들이 가지가지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가파른 돌계단을 끝없이 내려가며, 시선을 돌리기란 정말 아슬아슬하고, 사진기를 들이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원찮은 무릎에 무리가 안가도록 스틱에 몸을 의지하며 산행속도가 늦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제일 뒤쳐져서 따라가며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 높은 고산지대의 암봉에 구멍을 뚫고, 구멍 뚫린 두 암봉을 돌다리로 연결해 놓았다, 다리 밑은 천길 낭떠러지다. 신선이 다니는 다리라고 하여 보선교(步仙橋)라 한다. '공사하다가 많은 사람 죽었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계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눈 앞에 펼쳐졌다. 돌계단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다. 눈을 부비고 다시 봐도 천길 철벽에 마치 장난감 같이 계단이 붙어 있다. 절벽 중간에 매달린 끝없이 어이지는 일명 허공다리……. 여기서 우리 일행은 모두 얼어붙어 버렸다. 저기를 지나가야 한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낭떠러지쪽에 붙어있는 난간을 잡고 밑을 내려다본다. 우와! 밑바닥이 안 보인다. 모두들 절벽쪽으로 바짝 붙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고 얼어 버리겠다.

앞서가는 일행들이 허공다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금이 절로 저려온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계단 위의 절벽면을 자세히 보면 쇠고리를 박았던 흔적이 보인단다. 계단을 만들 때 쇠고리를 절벽에 박고 거기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계단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다. 케이블카도



없던 때인 1979년, 등소평(鄧小平)은 76세의 나이로 배운정(排云亭)에 올라 서해대협곡(西海大峽谷)을 굽어보고 감탄하여 황산 개발을 서두르게 했다. 그 뒤 7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 했다는 황산의 계단들. 끝이 없을 것 같은 허공다리를 오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난간에 기대어 사진을 찍게 되고, 처음의 공포감은 조금씩 사라지며 서해대협곡의 비경을 여유 있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서해대협곡을 마(魔)의 환영(幻影)」같은 경치라 하여 '마환세계(魔幻世界)' 혹은 '마환경구'(魔幻景區)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이름이 붙혀질만한 절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에 다리가 풀어진 일부 여성분들은 체면도 불구하고, 네발로 기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동방의 태산, 남방의 형산, 서방의 화산, 북방의 항산, 중앙의 숭산을 중국의 오악이라 한다. 그런데 이 "오악(五岳)을 보고 오면 일반 산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황산을 보고 오면 그 오악도 눈에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해대협곡의 전경에 피곤할 줄도 모르고 걷다보니 해가 황산의 봉우리로 넘어갈 쯤 오늘 트레킹의 목적지인 배운정에 도착했다.

처음 출발한 18명 전원이 배운정에 도착하여 가지고 간 참소주 한 잔씩으로 트레킹을 무사히 마친 것을 서로 축하했다. 서해호텔을 거쳐 오늘 밤 투숙할 북해호텔에 도착하니 저녁 8시경, 어두움이 깔린 호텔 앞 야영장에는 수많은 텐트가 빼곡히 들어 차 있고, 호텔 로비에는 한국인 트레커들이 바글거렸다. 어렵게 방 배정을 받고 저녁 식사를 했다. 오늘 하루 16km를 걸었으니 모두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자러 올라가고 몇몇이 호텔 로비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황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셋째날

새벽 5시 기상, 일출을 보기 위해 두꺼운 파카를 입고, 호텔 로비에 나가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 우리 일행은 모두들 피곤했던지 몇몇 사람만 눈에 띄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벌써 훤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서둘러 청량대에 오르니 많은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구름 위로 벌건 빛이 감돌기 시작하더니 구름 사이로 마치 잘 익은 홍시 같은 해가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였다. 일출을 여러 번 보았지만 오늘 같이 선명하게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홍시가 쟁반에 뚝 떨어지듯이 구름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가족들의 건강을 소원해 보았다.

숙소인 북해빈관 앞에는 등소평이 배운정에 올라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아침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큼지막하게 확대된 등소평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황산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북해경구 트레킹을 시작했다. "황산에 돌이 없으면 소나무가 아니고(無石不松), 소나무가 없으면 기이하지 않다(無松不奇)"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황산에는 소나무가 유명하다는 말인데, 옥병루에서 영객송, 송객송을 보았고, 북해경구에서 흑호송(黑虎松), 연리송(連理松), 용조송((龍爪松)으로 이름 붙혀진 황산의 10대 명송(名松)을 볼 수 있었다. 몽필생화(夢筆生花)는 북해빈관(北海賓館) 앞의 산화오(散花塢)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필가봉(筆架峰)과 가까이 있다. 뾰족하게 솟은 석봉 가운데 구불구불 굽은 한 그루의 기묘한 형태의 고송이 나무그늘을 길게 드리우고 자라고 있고, 봉우리 아래에는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같은 기이한 돌이 있어, 관광객들이 이 봉우리를 가리켜 몽필생화(夢必生花)라 이름 붙이면서, 마치 붓을 걸어놓은 모양의 필가봉(筆架峰)과 어우러져 황산의 유명한 풍경이 되었다. 믿음이 시작된다는 시신봉(始信峰)을 뒤로 하고 백아신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였다. 황산시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면서 뒤 돌아본 황산은 구름에 뒤 덮혀 있었다.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무궁화식당의 중국동포 종업원 아가씨가 쉴새없이 "사모님 이뻐요!" "사장님 멋있어요"라며 갖다 주는 삼겹살로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항주로 향하였다.

모 회원께서 황산에서 1000원으로 구입한 황산을 담은 CD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전세버스의 CD player로 훌륭히 재생이 되었다. 항주에서 유명한 용정찻집은 워낙 한국사람들이 많이 와서 순서를 기다려서 브리핑룸에 들어갔는데, 토마토에다 녹차를 섞어 만든 젤리 같은 포장식품이 우리 일행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송성가무쇼 관람을 하러 어둑어둑해진 극장으로 가보니 한국사람, 중국 사람이 뒤섞여 마치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다. 1시간 가량 공연한 송성가무쇼는 가이드의 설명과는 달리 그저 눈요기 감 정도의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붉은 색과 금색으로 치장한 무대, 시끄러운 음악, 이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숙소인 에덴 홀리데이에 도착해 저녁 식사 후 몇 분의 회원들은 수고한 가이드 두 사람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여정의 마지막 밤을 맥주잔을 기울이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튿날, 다시 중국민항에 몸을 실은 우리 일행은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황산의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을 기억 속에 그리고, 사진 속에 담고, 또 다른 산행을 계획하며…….

산이 거기 있어 산에 오르네
— 대구등산학교 체험기

하달봉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영천)



겨울산행을 나섰다가 우연히 대구에서 온 등산객들을 만났다. 빙벽 등반훈련을 받으러 여기 멀리 설악산 토왕성 빙폭까지 왔다고 하며, 대구등산학교 동계반에 다닌다고 하였다. 그들과 헤어지고 산행에서 돌아와서는 바로 웹서핑을 통해 대구등산학교를 찾았다.

대구등산학교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198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한 등산교육 전문기관으로 산을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등반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간은 총 5주간으로, 주중 3일간 매일 2시간 정도 이론교육을 받고, 주말에는 1박2일로 팔공산에서 숙영하면서 실기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수료는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강사진들의 사정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료를 하게 된다.

강의 과목은 등산윤리, 등산계획과 보고, 등산사, 등산장비, 산악기상, 산악안전대책, 산의학 및 응급처치 등의 이론교육이 있으며, 실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과목은 숙영법 및 보행법, 기초암벽등반, 독도법, 산악 오리엔티어링, 그리고 비박훈련과 릿지등반을 포함하는 종합등반이 있다.

2008년 3월 10일에 대구등산학교 정규반 75기에 입교하여 4월 18일에 수료하였으며, 5주간 실기교육을 위주로 대구등산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체험기로 다시 기억해본다.

실기교육 1주차(3월 15~16일) 숙영법 및 보행법 교육

정규반 1주차 실기교육 계획서를 보니 첫 주는 6조에 편성되었다. 그런데 내가 6조 조장으로 되어 있어서 무척 당황했다. 왜냐하면 왕초보인데다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염려가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행경험이 많은 다른 조원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하니 그나마 불안한 마음이 다소 진정되는 듯하였다.

토요일 오후 5시 영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대구 용계동 간이정류장에서 내렸다. 전날 밤 늦게까지 꾸린 무거운 배낭을 안사람이 끙끙대며 차에 싣고 왔다. 팔공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팔공산 분수대 근처에 오니 7시 15분 정도된 듯하다.

모임시간인 7시 30분이 되자마자 인원점검하고 등산학교 교복인 조끼를 입고 나서 구보를 하였다. 잠시 숨을 돌린 후 다시 배낭을 정리하고 나서 야영지를 향해 야간산행을 하였다. 이렇게 무겁게 배낭을 메고 산행하는 게 처음이어서인지 저녁인데도 산행 중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며칠 전 수영하다가 다친 우측 어깨에 배낭끈이 닿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게 다가왔는데, 입교 전에 몸조심하지 않은 불찰이 후회되었다.

처음 가는 산길을 무작정 따라가니 팔공 스카이라인이 보여 반가웠다. 야영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쳐야하는데 25년 전 학창시절에 선배가 하는 것을 그냥 흘깃 봐둔 게 전부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배워보려고 조원들이 하는 것을 미안한 마음으로 눈여겨 보았다.



텐트를 완성시키고 야식으로 라면과 통닭을 맛있게 먹은 후 취침시간이 임박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 안은 체온들로 벌써 훈훈했다. 그런데, 침낭 안에 들어가니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그리고 평소 잠버릇이 험한 탓에 옆에 있는 조원들의 수면을 방해할까봐 조심스러웠다. 자정경에 침낭에 들어갔는데 한 시간을 그냥 뒤척인 것 같다.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 시간 정도 잠이 깜빡 들었나보다. 어디선가 호각소리가 요란하게

정적을 깼다. 비상시를 대비한 산악 대피훈련이란다. 허겁지겁 나갔다가 다시 텐트로 들어와서는 자다 깨다를 반복하니 어느덧 기상시간인 6시가 다 되었다.

아침체조를 하고 염불암 근처까지 구보를 했다. 야영지에 돌아와서는 텐트를 걷고 아침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였다. 얼큰한 김치가 들어간 꽁치찌게에다가 정말 맛있게 된 하얀 쌀밥이 어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았다.

오전 강의 들어가기 전에 번호순으로 한 명씩 앞에 나가서 본인 소개를 하였다. 서로의 궁금한 부분도 다소 해소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모두들 소개를 맛깔나게 잘해서인지 박수치고 웃는 사이에 밤새 끙끙대며 고민했던 번뇌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교가와 산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어서 숙영법, 보행법, 호흡법, 운행법 등을 배웠다.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은 내가 등산학교에 꼭 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점심은 행동식으로 떡을 준비하긴 했지만 준비해온 라면을 끓여 먹고 나서 아침에 남은 누룽지를 다시 끓여 든든하게 해결했다.

점심 후에는 배낭을 꾸리는 패킹법에 대해 배웠는데, 강사의 배낭을 보니 등산 백화점이나 만물상 같기도 하고 요술단지 같기도 했다. 내 성격도 제법 꼼꼼하다고 생각해오던 터이지만 그 점에서는 강사가 엄청난 고수였다. 패킹법 강의가 끝나고 실기를 하면서 준비물 점검을 하였다.

야영지에서의 기초적인 등산교육을 마치고 팔공산장을 거쳐 분수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때가 오후 5시 남짓하였다. 분수대 광장에서는 보조강사의 지도하에 스트레칭을 한 시간 넘게 하였다. 꽤 긴 시간이었는데 스트레칭 지도가 얼마나 자상하게 근육 하나하나 풀어주는지 감탄해 마지않았다.

실기교육 2주차 (3월 20~21일) 기초 암벽등반 교육

토요일 저녁에 경북의사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퇴근 후 1부 행사만 참석하고는 후배들이 한턱내라고 보채는 것을 뒤로 하고 집으로 갔다. 등산복으로 급히 갈아입고 미리 챙겨둔 배낭을 들고 팔공산으로 향했다.

집을 나서자마자 빗방울이 앞 유리창에 떨어진다. 이럴 땐 일기예보가 좀 빗나가도 괜찮은데……. 팔공산 입구에 도착해서 서둘러 야영지로 가니깐 벌써 오후 9시 30분 남짓하였다.

교육시간에 겨우 맞춰 도착해서 안도했지만 미리 도착해서 숙영을 준비한 조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다. 비가 제법 굵어져서 야외에서 할 교육을 공원관리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다. 거기서 암벽등반 강사를 비롯하여 여러 보조강사들의 도움으로 기초적인 매듭법에 대해 다시 숙지할 수 있었고, 다음날 있을 암벽등반의 기본적인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텐트로 돌아와 보니 안타깝게도 조원 1명이 갑작스런 몸살로 인해 2주차 실기교육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조장은 텐트가 협소하다고 자리를 내주고는 비박한다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텐트 안에는 나까지 3명이 남았다. 막상 잠을 들려고 침낭으로 들어가니 텐트 위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만감이 교차하게 한다.

일요일 새벽 빗소리에 눈을 뜨니 오전 5시 5분전이다. 곧 5시가 넘는가 하더니 바로 '기상'이라고 한다. 텐트 안으로 빗줄기가 타고 들어와서인지 바닥은 매트리스 사이로 빗물이 홍건하다. 기상해서 체조하고 구보하고 돌아와서는 조장과 나는 텐트를 정리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아침 준비를 하였다. 빗속이지만 따끈한 밥과 얼큰한 김치찌게로 아침을 맛있게 든든하게 먹고는 교육장소로 출발하였다. 가는 빗줄기에 상쾌한 아침 바람을 맞으며 하는 산행이 왕초보 산꾼에겐 또 다른 산행 경험이 되었다.

교육 장소에 이르러 커다란 암벽 앞에 서니 장엄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조금만 하다가 말겠지 하는 기대감이 내내 나를 안심시켰는데, 그게 아니었다.

암벽을 제대로 올라가고 싶은데 마음 먹은대로 잘되지 않는다. 암벽을 잡고 올라서면 빗물 때문인지 초보라서인지 죽죽 미끄러지는데 속수무책이다. 강사가 자세를 교정해주는 동안에 뒤에서 여러 동기들도 큰소리로 격려를 해준다.

점심식사를 하고나도 빗줄기는 오락가락하면서 그칠 줄을 모른다. 오후 2시가 채 되지 않아 다시 집합하고 모두들 암벽 위로 올라가서 오후 4시 가까이 되어서야 내려올 수 있었다. 물기에 젖은 바위를 붙잡고 얼마나 통사정을 했던지 손가락 끝에서 피가 다 난다. 그래도 내려와서 조금 전에 올랐던 축축한 암벽을 다시 쳐다보니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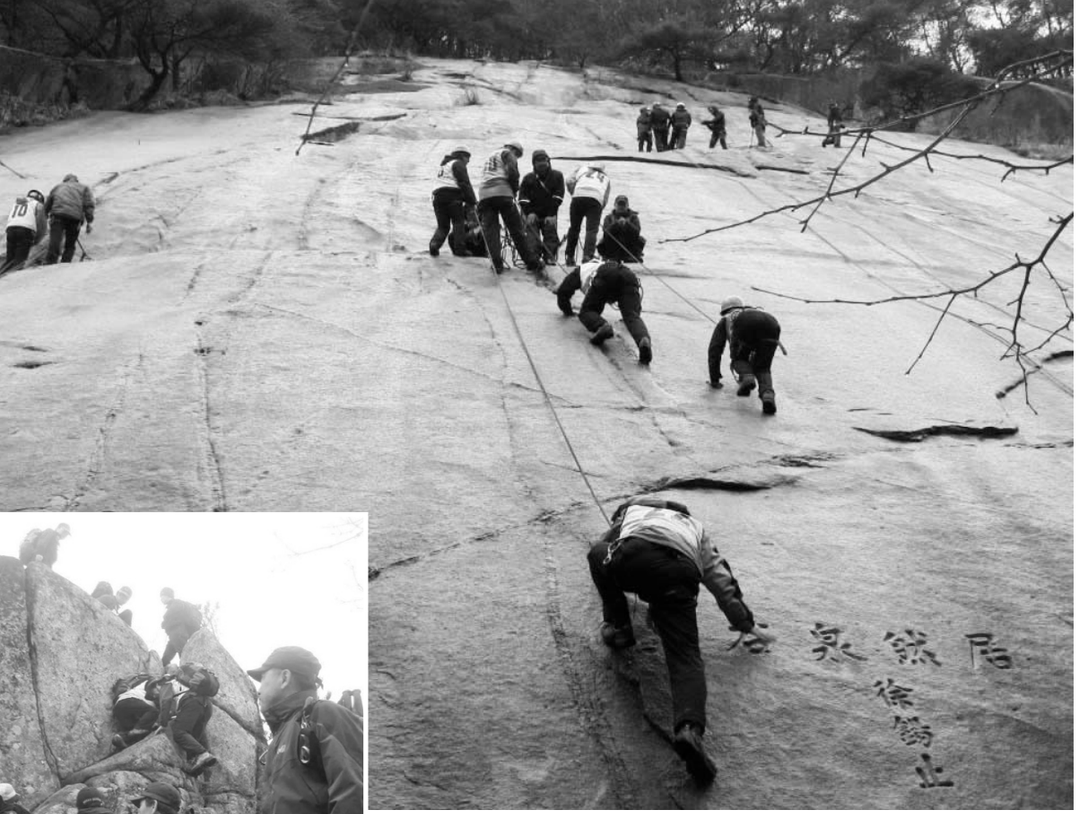
실기교육 3주차 (3월 29~30일) 독도법 교육 및 릿지 산행

토요일 퇴근 후 영천에서 출발해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타고 팔공산 톨게이트를 지나 동화사 입구까지 갔다. 가는 중에 또 비가 왔다. 머리가 지끈 다시 아파온다.

집결지에 가서 출석하고 야영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번 주 조장은 서울 출장 다녀오느라 제법 늦게 대구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야영장으로 왔다. 조장이 가지고 온 텐트를 다른 조원들과 함께 힘을 합해 비를 피할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독도법 강사들과 함께 동기생들은 저녁 식사를 했던 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당의 넓은 방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열정적인 독도법 강의를 들었다. 가르쳐 주는대로 따라하니 지도에 대한 낯설음이 조금씩 가셔지면서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는 듯하다.

일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다소 약해진 듯하다. 식사 후 비에









1. 팔공산 바윗골에서 슬랩등반 교육
2. 팔공산 능선에서 릿지 산행
3. 독도법으로 695봉을 찾은 후 조원들과 함께
4. 서봉 절터에서 비박후 단체 사진 촬영

젖은 텐트는 그냥 두고 조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출발점을 포함한 네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하고 강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목표점을 향해 산으로 출발했다.

첫 번째 장소는 출발점에서 가까이 있어서 무난하게 찾았다. 두 번째는 내원암 근처에서 주변을 두 편으로 나눠 수색하였는데, 다른 조원이 먼저 찾아 함께 확인했다. 세 번째는 도착점이었다. 우리가 찾은 곳에 79번 표식이 보였지만 아무도 없었다. 우리 조가 가장 먼저 찾았다고 기념 촬영도 하고 좋아했지만 강사에게 연락을 하니 그곳이 아니라고 한다. 다시 주변을 뒤지다가 북쪽으로 올라오니 목표점이 있었고 이미 그곳에는 다른 조원들이 먼저 와서 휴식 중이었다.

오후 교육은 릿지 등반으로 팔공산 695봉에서 능선 66번 장소로 나온 후 병풍바위를 거쳐 염불봉으로 해서 동봉에 도착했다. 릿지 등반 중 내내 긴장된 마음으로 따라 다녔다. 아무래도 바위하고는 덜 친한 것 같아 앞으로 일정도 염려되었다. 그러나 생애 두 번째로 밟아보는 팔공산 동봉! 그래서 가슴 한 곳에는 뿌듯한 자신감이 스며온다.

동봉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염불암을 거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다소 지친 상태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젊은 보조강사의 굵고 힘찬 음성으로 들려주는 '아득가' 노래가 지친 다리 근육 사이로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실기교육 4주차 (4월 5~6일) 산악 오리엔티어링 교육

집결지에는 20분정도 남은 시간인데도 벌써 여러 동기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모여 야영장으로 갈려고 하는데 지난주 7조 조장이 전날 사고로 다친 발을 이끌고 불편한 몸으로 참석한다. 등산학교에서 동기들의 열정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다.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나서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가로등 밑 도로변 야외교육장으로 이동 후에 산악 오리엔티어링 강사의 자상하고 치밀한 강의를 11시 넘어서까지 받았다.

지난 주 독도법 강의로 해서 지도와 많이 친근해졌다면 이번 오리엔티어링(O.L) 강의는 나침반과 주변 지형에 더욱 더 익숙해진 느낌이다.

다음날 오전에는 50미터를 기준으로 자신의 복보수를 측정해서 보측 길이를 확인하고 본인만의 보측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직진왕복훈련과 삼각보행훈련을 하고 나서 어제 저녁 교육 중에 받은 일만 분의 일 지도에 나침반으로 방향을 정하고 복보수로 거리를 측정하여 야영장에서 가까운 능선까지 등산로를 표기하였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정신을 집중한 탓인지 아니면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전 교육을 마치니 약간 지치는 듯하다.

오후 교육은 '포스트 찾기' 인 O.L 맛보기이다. 보조강사들의 포스트 설치가 끝나는 대로 5명씩 O.L 지형도를 받아 미리 표기된 포스트가 있는 지도를 보고 옮겨 적은 후 출발을 하였다. 나는 마지막 5명에 포함되어 포스트를 꼼꼼하게 찾아 적고나니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하니 약간 당황되었다.

1번 포스트가 팔공산장 뒷편 능선이고 2번 포스트가 매표소 부근이라서 능선을 올라 1번을 찍고 2번으로 가려고 계획했다. 그래서 동화사 앞 삼거리에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도에 보이는 작은 등산로가 보이지 않는다. 순간 당황했지만 능선을 찾기 위해 무조건 올랐다. 숨이 찼다. 식당 건물 뒤편인 것을 확인했기에 능선에서 식당 뒤로 갔지만 어디에도 1번 포스트는 보이지 않았다. 철조망을 여러번 타넘다가 바지가 걸려 찢기고 나무 가지에 얼굴이 긁혀도 주위가 시야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포스트만 나타나주길 바라며 지도와 나침반을 뚫어져라 보고 주변을 아무리 뒤졌는데도 1번 포스트는 없다.

벌써 25분이 지나갔다. 이러다간 하나도 못 찾고 말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한다. 다시 능선으로 가서는 1번 포스트를 포기하고 2번 포스트로 직행하기로 결심하고는 능선에서 동화사 매표소를 향하여 내려가는 중에 드디어 1번 포스트가 보인다.

매표소 뒤에 있는 2번 포스트를 확인하고 아침에 등산로 만들 때 보였던 간이화장실 근처에 있는 3번 포스트를 찍고 나서는 이즈음에서 포기할까하다가 오후 4시까지 못 찾으면 포기하기로 하고 다시금 뛰었다. 4번 포스트는 지도상에 관리사무소 두 건물 사이에 있는듯하다 조금 쉽게 느껴졌다. 그런데 너무 얕본 탓인지 관리사무소를 지나쳤다. 다시 올라가서 관리사무소를 찾아 건물 사이로 들어가니 4번 포스트가 보였다.

다음은 팔공호텔로 올라가는 삼거리 부근이다. 무조건 뛰었다.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뛰는 나를 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또 뛰었다.

찾아가는 길에 동기를 만나니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5번과 6번 포스트의 트릭을 피해 확인하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 7번 포스트를 찍고는 무조건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서 집결지에 도착하니 모두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준다. 동기들의 박수에 겸연쩍고 한편으로 고마운, 그런 만감이 교차되었다.

실기교육 5주차(4월 12~13일) 종합 등반교육

정확히 오후 7시 30분이 되니 오늘 종합등반교육 강사가 여지없이 또박또박 출석점검을 한다. 출석 점검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나서 동화사 매표소 앞까지 구보를 하였다. 매표소 근처에 다다르자 선착순 집합을 주문한다. 그리고는 관리사무소로 내려오다가 전체 지적을 받고 내전근 강화훈련, 즉 오리걸음을 잠시 받은 후 돌아왔다.

패킹법에 대해 복습을 하였다. 배낭 안에 든 모든 내용물을 밖에 진열하고는 한 사람씩 배낭 내용물에 대해 검사를 받았다. 내게는 침낭, 구급약, 예비전지 등을 추가로 무작위 확인한다. 패킹법 복습이 끝나자 배낭 정리하는 법에 대해 강의를 다시 해주었다.

산에 못가는 몇몇 동기들과 간단히 이별하고 팔공산 관리사무소를 떠나 수태골로 향했다. 컴컴해진 팔공산 순환도로를 걸으니 긴장감을 넘어서 비장한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았다.

수태골 입구에 들어서서는 성지골로 향해서 서봉 릿지를 탄다는 학생장의 귀띔이 있었기에 어디즘에선가 갈라지는 길이 있겠지하며 생각 중이었는데, 그 생각도 오래지 않아 갈림길이 바로 나타났다.

희미한 랜턴 불빛과 동기들의 발자국 소리에 의지해 무작정 따라 걸어 올랐다. 고도 600미터 근처 계곡 시냇물에서 잠시 휴식 후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봉 릿지라고 한다. 강사는 '환상의 계곡' 이라고 추켜세우는데, 동기 중에 누군가는 '환장의 계곡' 이라고 재미있게 의역을 하였다.

그 계곡은 경사도 가파를 뿐더러 암벽들이 꾸준히 나타난다. 어두워서 그런지 길도 잘 보이지 않아 앞사람이 간 길만 더듬어 무작정 앞만 보고 걸어 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서봉에 올라 정상석에 터치하고 배낭을 내려 동기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안개가 자욱한 탓에 멋진 대구의 야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대신에 신비로운 산정을 느끼기에는 그저 그만이었다.

서봉에서 잠시 내려서니 마치 요새 같은 아늑한 평지가 보였다. 절이 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평지만 남아 '절터' , 또는 '샘터' 라고 한다. 가져온 빵을 나눠 먹고 나서 땅바닥에 비닐과 매트리스를 깔고 침낭 속으로 몸을 집어넣은 후 2시가 다 되어서야 비박으로 잠을 청했다.

침낭 밖으로 고개를 내미니 희미한 여명이 비추인다. 바로 하늘이 보이니 늘 보던 하늘도 오늘은 왠지 낯설다. 6시가 예정된 기상시간이지만 5시 30분 밖에 안되었는데도 벌써부터 주위는 새소리에 섞여 웅성웅성한다. 인원 점검하고 간단한 스트레칭 후 아침 식사 시간을 준다. 아침 식사는 특별식인 '떡국' 이다.

식사 후 헬기장을 향해 출발하였다. 능선을 타고 가던 중에 칼날능선 또는 톱날바위라고 하는 곳은 모두 빠지지 않고 넘어 올랐던 것 같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바위를 오르락 내리락하기도 하고 절벽 옆으로 붙어서 돌아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곡예 하듯이 뛰어넘기도 하였다.

이번 톱날바위 릿지 등반은 지난번 3주차 실기교육에서 오후 릿지 등반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무거운 배낭 탓을 해본다.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배낭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인지 높은 곳만 올라서면 여지없이 내두 다리는 떨림으로 반응을 한다. 동기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해보지만…….

릿지 등반을 2시간 넘게 하고나서 바위로 된 휴식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안자일렌'에 대해 강의를 듣고 우리 조는 자일을 이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 자일을 늦추고 가까워지면 자일을 감고 가다가 바위를 만나서는 앞사람이 선등자가 되어 확보를 해주고 바위를 내려갈 때는 역으로 뒷사람이 확보를 해준다. 처음이라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 외에는 모두들 침착하게 잘하였다. 안자일렌을 마치고나서 나머지 동기들이 모두 마칠 때까지 무장해제하고 오랜만에 담소하며 한결 더 가까워진 동기애를 느꼈다.

파계봉을 넘어서 파계재에서 파계사를 향해 내려가면서 대구등산학교 수료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는 왠지 뿌듯한 자부심이 생겼다.

회무소식

2008년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임원 명단
대의원회 의장단
시군의사회 회장 명단
본회 각종 위원회 명단

- 고문단
- 법률 및 세무고문
- 윤리위원회 위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명단

(임기 : 2006. 4. 1 ~ 2009. 3. 31)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회 장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249-2820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부 회 장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452-1986	구미시 원평1동 1064-4
	백 승 인	백승인소아청소년과의원	(054) 746-0002	746-0002	경주시 성건동 340-1
	권 세 홍	안동병원	(054) 840-0566	821-1165	안동시 용상동 1592-31
	이 규 춘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48-9300	770-8500	경주시 석장동 1090-1
	최 을 임	최소아청소년과의원	(054) 281-8788	281-8788	포항시 북구 득량동 155-2
기획이사	김 광 만	지곡그린의원	(054) 221-4950	278-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한 형 원	한형원내과의원	(054) 272-5700	272-5730	포항시 남구 효자동 253-130
학술이사	이 경 섭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70-8266	771-0769	경주시 석장동 1090-1
재무이사	서 영 진	상쾌한항구병원	(054) 282-7752	282-7754	포항시 북구 죽도2동 95-2
법제이사	황 석 순	황석순내과의원	(054) 246-1977	246-1978	포항시 북구 대신동 68-26
보험이사	신 명 준	신명준외과의원	(054) 285-8001	285-357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55
의무이사	서 보 균	포항교도소 부속의원	(054) 262-1100	262-39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95-1
공보이사	이 봉 구	이피부과의원	(054) 742-1494	742-1494	경주시 동부동 141
정보이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592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정책이사	장 기 호	사랑애의원	(053) 814-8071	814-8072	경산시 옥산동 731-1
	이 석 주	녹십자의원	(054) 331-7071	331-7071	영천시 야사동 182-6
	백 두 현	고령백의원	(054) 954-3669	956-3669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이 원 석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054) 973-1147	974-4201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0-2
	성 후 식	선린병원	(054) 245-5819	245-5311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권 규 돈	권&오연합내과의원	(054) 536-5757	531-2193	상주시 서성동 117-5
	정 원 모	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054) 634-7655	634-7655	영주시 가흥1동 1381-505
감 사	정 만 진	전 울릉군보건의료원	011-506-6427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62-1
	정 능 수	동산연합의원	(054) 861-0076	861-167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9
	천 종 욱	천내과의원	(054) 771-0503	771-0503	경주시 동부동 113-3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임기 : 2006. 4. 1 ~ 2009. 3. 31)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의 장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814-8877	경산시 중방동 538-3
부 의 장	이 웅 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054) 555-4797	555-4759	문경시 점촌동 245-9
	허 석	영덕아산병원	(054) 730-0114	730-0154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 **중앙(의협) 대의원 명단**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정대의원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249-2820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814-8877	경산시 중방동 538-3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452-1986	구미시 원평1동 1064-4
	권 영 철	권영철정형외과의원	(054) 274-3636	272-5439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5-8
	김 재 왕	김재왕내과의원	(054) 856-7111	856-7109	안동시 동부동 74
교 체 대 의 원	이 웅 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054) 555-4797	555-4759	문경시 점촌동 245-9
	허 석	영덕아산병원	(054) 730-0114	730-0154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김 동 욱	조은i의원	(054) 455-4080	455-4080	구미시 봉곡동 387-9
	신 명 준	신명준외과의원	(054) 285-8001	285-357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55

□ **중앙(의협)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의협부의장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중 앙 이 사	장 기 호	사랑애의원	(053) 814-8071	814-8072	경산시 옥산동 731-1

경상북도 시군의사회 회장 명단

(2009. 3. 1 현재)

시군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포항시	김광만	지곡그린의원	(054) 221-4950	278-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경주시	황병욱	황내과의원	(054) 746-7701	771-9001	경주시 성동동 43-5 2층
김천시	이경엽	김천남산종합의원	(054) 435-2111	434-730	김천시 남산동 12-6
안동시	김묵환	김묵환학문외과의원	(054) 857-8875	854-8875	안동시 서부동 73-1
구미시	이경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471-1676	구미시 황상동 280-9
영주시	최경렬	최내과의원	(054) 635-5105	635-5105	영주시 하망동 346-22
영천시	배경일	경일의원	(054) 334-6661	334-6662	영천시 완산동 1069-19
상주시	이원두	이원두의원	(054) 536-7553	536-7554	상주시 남성동 84-59
문경시	박봉기	박내과의원	(054) 553-6577	555-5221	문경시 흥덕동 793
경산시	장유석	장유석외과의원	(053) 851-7007	851-7007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3-5
군위군	이승석	서광외과의원	(054) 383-5677	383-5688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33-3
의성군	이건중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054) 861-5952	861-5952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202-12
청송군	이주섭	삼성의원	(054) 873-8275	873-8276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97
영양군	류수영	영남의원	(054) 683-3465	683-6166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32-1
영덕군	예호열	영남외과의원	(054) 733-7633	734-0285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39
청도군	이상헌	현광의원	(054) 372-2277	373-8826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62
고령군	백두현	고령백의원	(054) 954-3669	956-3669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성주군	방종경	덕산의원	(054) 933-0644	933-0645	성주군 성주읍 경산8리 713-4
칠곡군	전용성	영남외과의원	(054) 975-2567	975-2568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48
예천군	장필식	경북의원	(054) 655-2800	655-8228	예천군 예천읍 백전2리 94-36
봉화군	조진만	조가정의학과의원	(054) 673-2332	674-0740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19-30
울진군	이종규	연세가정의학과의원	(054) 787-9654	787-9655	울진군 평해읍 평해1리 873-1
울릉군	정만진	전 울릉군보건의료원	011-506-6427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62-1

경상북도의사회 각종 위원회

□ **본회 고문단 명단**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고 문	이 병 채	고려병원	(054) 262-2022	246-3845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292
	남 주 현	남주현외과의원	(054) 857-7360		안동시 북문동 47-9
	신 은 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247-3379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최 종 두	최정형외과의원	(054) 857-8864	857-8865	안동시 남부동 169-5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 **본회 법률 및 세무고문**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법률고문	김 인 수	김인수법률사무소	(053) 742-3100	742-3031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4-1
	정 연 경	정연경법률사무소	(054) 742-9222	742-9223	경주시 동부동 141
	서 한 규	법무법인 아성	(054) 437-7447	435-9669	김천시 삼락동 1243
	김 희 수	김희수법률사무소	(054) 859-0710	858-9336	안동시 정하동 242-5
세무고문	박 경 운	박경운세무사무소	(054) 244-1006	247-1008	포항시 북구 덕수동 54-4

□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위 원 장	신 은 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247-3379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부위원장	최 유 근	최유근안과의원	(054) 854-5775	854-5775	안동시 남문동 202-2
위 원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743-5516	경주시 사정동 101-27
	안 길 룡	안외과의원	(054) 432-9999	432-0009	김천시 남산동 16-5
	손 병 욱	손병욱내과의원	(053) 815-7900	815-7977	경산시 중방동 862-3
	이 웅 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054) 555-4797	555-4759	문경시 점촌동 245-9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452-1986	구미시 원평1동 1064-4
	김 대 환	베드로내과의원	(054) 331-5522	331-5524	영천시 금노동 584-3
간 사	황 석 순	황석순내과의원	(054) 246-1977	246-1978	포항시 북구 대신동 68-26

□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위원장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054) 854-5775	854-5775	안동시 남문동 202-2
위 원	하상호	하상호 · 김남주산부인과의원	(054) 273-3665	275-314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30
	손병욱	손병욱내과의원	(053) 815-7900	815-7977	경산시 중방동 862-3
	박경욱	박경욱내과의원	(054) 439-4551	437-5115	김천시 평화동345-129
	조충래	한일산부인과의원	(054) 453-9789	453-7322	구미시 원평1동 361-15
	이동욱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48-9300	770-8160	경주시 석장동 1090-1
간 사	박재영	경상북도의사회	(053) 941-7785	941-5557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위원장	권세홍	안동병원	(054) 840-0566	821-1165	안동시 용상동 1592-31
위 원	이봉구	이피부과의원	(054) 742-1494	742-1494	경주시 동부동 141
	박정돈	박정돈산부인과의원	(054) 465-2225	465-2226	구미시 신평1동 124-4
	하달봉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054) 333-0079	334-6949	영천시 금노동 566-3
	이덕영	하양중앙내과의원	(053) 856-4567	856-3777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8-9

□ 본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팩 스	주 소
위원장	김장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592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위 원	김기홍	제일외과의원	(054) 281-0300	281-03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29-1
	정재엽	안동제일안과의원	(054) 855-7582	855-7580	안동시 대석동 259-7
	이숙영	순천향소아청소년과의원	(054) 461-0488	461-0489	구미시 비산동 504-4
	하달봉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054) 333-0079	334-6949	영천시 금노동 566-3
	김종영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053) 816-3748	816-3749	경산시 옥산동 863-5

□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소 속	성 명	직 책	전 화	팩 스	휴대폰	주 소
경상북도의사회	박재영	사무처장	(053) 941-7785	941-5557	011-512-043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권순길	대 리	(053) 941-7785	941-5557	011-9365-7268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김태희	대 리	(053) 941-7785	941-5557	016-520-8200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포항시의사회	김두중	사무국장	(054) 281-0995	281-0992	010-2502-9786	포항시 북구 죽도2동45-7
	오순지	간 사	(054) 281-0995	281-0992	010-6474-4933	포항시 북구 죽도2동45-7
경주시의사회	김송희	간 사	(054) 774-9991	774-9986	010-3898-2362	경주시 서부동 255-31
안동시의사회	윤진영	간 사	(054) 857-6911	852-5356	010-8578-6406	안동시 송현동 298-5
구미시의사회	박민희	간 사	(054) 457-7646	457-7645	010-6866-2280	구미시 원평동 534-8
영천시의사회	김명숙	간 사	(054) 337-8022	337-8021	010-8213-1116	영천시 야사동 2차 주공아파트 201동 405호
경산시의사회	김세경	간 사	(053) 812-0030	812-1801	010-8568-6704	경산시 중방동 538-18





2008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경북의사회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금년도 예산 3억9,500만원 확정
회칙 개정으로 대의원수 90명 조정 등

본회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08년 3월 22일(토) 오후 6시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개최하고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된 3억9,500만원의 새해예산과 부서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대의원수 90명(고정 및 비례대의원) 조정과 더불어 자구수정 등 회칙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 주수호 협회장과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및 김영일 정무부지사, 본회 이병채 · 신은식 · 변영우 · 최종두 고문과 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 조우현 본부장등 내빈 다수와 대의원 83명(재적 102명)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석균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 의료수가 현실화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이 조기에 반영되기 위해 국회에서의 법 재 · 개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이번 제18대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오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도있는 의견개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회원들의 회비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어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첫출발부터 잘못되어 엄청난 국가재정의 파탄이 왔으며, 의약분업을 밀어붙여 오늘날까지 돈은 돈대로 엄청 들어가고 국민 모두에게 불편만 주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였으며, "지난날 국민들의 눈에 비춰진 의권투쟁의 잘잘못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의약분업 제도를 국민이 편리한 국민선택분업제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의협창립 100주년기념을 기념하여 제32회 종합학술대회 슬로건인 '한국의료백년 국민건강 백세' 라는 액자를 임태환 사무총장이 본회 이원기 회장과 최을임 부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권영무(포항) · 전우성(구미) · 최경태(경산) 대의원을 보조위원으로 선정하고 대의원 102명중 83명이 참석하여 회의성립을 선언하고 전년도 총회 회의록 낭독과 감사보고는 이의없이 박수로서 통과시켰으며, 2007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한 보고와 일반회계 및 적립금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8년도 사업계획(안)과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에서는 작년보다 1,500만원 증액된 3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또한, 회칙개정에 있어서는 지난 제22차 상임이사회와 2007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상정하여 대의원수 조정(고정 및 비례대의원 90명)과 더불어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는 등의 회칙 개정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의협 총회 상정안건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강보험심사 개선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및 개선대책 △대외 홍보활동 및 의협 봉사단 활성화 △언론사 왜곡보도 대응 강화 △보건소장 의사 임용 및 본인부담금 할인 · 면제 철회 △회원 관리 대책 및 연수교육 강화 △사무장 의원 집중 단속 △의협 공제회 및 배상공제 가입 △검진기관 환자 유인행위 근절 △의협 수익사업 등 11개항을 책택하여 건의키로 하는 한편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시상자 명단**

△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 김종국(구미), 김규태(문경)
△ 경상북도지사 표창(4. 7) : 이석주(영천), 최헌욱(안동), 서보균(포항)
△ 본회 대외시상 : 김태학(의협 의료정책국장), 임성강(경북지방경찰청 정보관), 송성철(의협 의협신문국 차장), 김영표(의협 홍보국 대리)
△ 본회 대내시상 : 임성길(동대경주병원 진료지원팀장), 최문훤(구미차병원 총무팀 주임)
△ 본회 유공회원 : 권영철(포항), 이진표(경주), 김석곤(안동), 김학근(구미), 권영수(영천), 윤종수(경산)
△ 본회 모범위원 : 하달봉(영천), 김종영(경산)
△ 본회 모범분회 : 문경시의사회
△ 사무직원 표창 : 박민희(구미시의사회 간사)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본회에서는 해마다 신지식을 배우는 춘계학술대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경북의학제등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2008년 5월 24일(토)~25일(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2008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경상북도의사회서는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차원의 보수교육을 지난 5월 24일(토)부터 5월 25일(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춘계종합학술대회는 이원기 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학술연제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천년 고도 경주에서 5월의 맑은 하늘과 함께 개최되는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축하하며, 이 행사를 통해 경북도내 전체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첫날 학술강연에는 이원기 회장의 의사윤리를 비롯한 의사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장과 의료현안 전반에 대한 주수호 의협회장의 강의가 있었고 외래에서 흔히 보는 피부질환의 강의로 영남의대 피부과 신동훈 교수등 3편의 학술연제가 발표되었다.

둘째날에는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신생아 질환에 대해 동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선주 교수등 5편의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2평점이 주어졌다.

※ 연제 및 연사

▣ 5월 24일(토) 14:00

▲의사윤리 - 이원기(경상북도의사회장) ▲외래에서 흔히 보는 피부질환 - 신동훈(영남의대 피부과) ▲고지혈증의 진단 및 치료 - 배준호(동국의대 내과)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 - 오희종(대구, 오희종신경과의원) ▲의사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 - 정만진(울릉군보건의료원) ▲의료현안 - 주수호(대한의사협회 회장)

▣ 5월 25일(일) 09:00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신생아 질환 - 이선주(동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어깨 질환 진단과 치료 - 문기혁(포항성모병원 정형외과)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 박성환(대구가톨릭의대 외과) ▲비만과 간질환 - 권영오(경북의대 내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 요령 - 정승필(영남의대 가정의학과) ▲당뇨병치료, 운동으로 해결하는 비만 - 시청각(비디오)

□ 친선의 밤 행사서 안동시의사회 중창단 대상 수상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만찬과 더불어 그동안 회원의 취미활동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인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5월 24일(토)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한형원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11팀이 경연을 벌인 결과 안동시의사회 중창단이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협회장과 본회 이병채 · 신은식 · 최종두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이 색소폰 연주,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등의 장기자랑으로 선보여 바쁜 의업중에서도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정만진 심사위원장은 "회원들의 취미활동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회를 거듭할수록 나날이 발전하여 어느 무대에 선보여도 손색없는 솜씨다."라고 하였다.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은 안동시의사회 중창단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어린 자매들로 구성된 밸리댄스를 선보인 이동규(울진, 이동규산부인과의원) 회원 자매가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모든 참가한 회원들이 흥을 돋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큰 박수의 갈채를 받고 화려한 막을 내렸다.

장기자랑 시상 내역

· 대 상 : 안동시의사회 중창단
· 우수상 : 이동규(울진, 이동규산부인과의원) 자녀 - 밸리댄스
· 장려상 : 신명준(포항, 신명준외과의원) - 노래
이경섭(경주, 동국대경주병원) - 색소폰 연주
임지훈(경주, 서울내과의원) - 기타 연주
김동주(구미, 효장수요양병원) - 아코디언 연주
김도권(구미, 조은연합정형과의원) - 노래
서현호(경산, 서현호정형외과의원) 자녀 - 바이올린 연주
정원모(영주, 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부부 - 스포츠댄스
심진규(예천, 혜민의원) - 목관악 연주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 경북의학제서 남부지구 연속 우승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북의학제는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5월 25일(일) 오후 1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야외경기로 펼쳐진 경북의학제 행사에는 이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이병채 · 신은식 · 최종두 · 변영우 고문등 4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경북의학제에서 참석한 전 회원들과 가족들은 집행부 임원들이 선보인 무조건(가수 박상철) 반주에 맞





춘 율동을 선보였으며, OX퀴즈를 시작으로 한 의학제 행사는 단체경기인 바둑, 탁구, 윷놀이(남성 · 여성), 족구, 2인3각, 골프피칭, 단체줄넘기와 번외경기로 어린이 줄다리기, 투호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윷놀이(남성)와 2인3각릴레이에서 우승한 남부지구가 지난해에 이어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북부지구, 3위 동부지구, 4위 서부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행시에는 현대의료도입 100년을 맞이하여 '의협백년'과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화하여 실제 황룡사탑의 높이로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경주타워'를 시제로 진행되어 50여 편의 출품작 중에서 강준오(경주, 강남비뇨기과의원) 회원이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디지털카메라, 자전거, 선풍기 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켜 참석자 전원의 희비를 가렸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 종합점수표 〉

경기종목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비 고
바 둑		20	50	30	40	
탁 구		40	30	20	50	
윷놀이	남성팀	20	40	50	30	
	여성팀	40	30	50	20	
족 구		20	30	40	50	
2인3각릴레이		20	40	50	30	
골프피칭		50	20	40	30	
줄넘기		50	20	30	40	
OX퀴즈		27	18	12	9	
종 합 점 수		**287**	**268**	**322**	**309**	

▣ 종합우승 : 남부지구　　▣ 준 우 승 : 북부지구

2008년도 회원 친선등반대회 속리산서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최된 2008년도 회원 친선등반대회가 지난 2008년 5월 18일(일) 오전 10시부터 대한팔경의 하나이며 문장대와 법주사로 유명한 국립공원 속리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친선등반대회는 제8회 대한의사산악회 총회 및 등반대회와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김철수 의사산악회장과 주수호 의협회장, 각 시도의사회 산악회장과 전국에서 모인 300여 회원과 더불어 본회에서는 신은식 고문과 김경남, 신현국 원로회원, 본회 백승인 부회장등 회원 및 가족 70여명이 포항과 경주에서 출발한 관광버스 2대를 대절하여 참석하였다.

대한의사산악회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전국의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자"고 하였으며, 경북 상주시 속리산 화북분소에서 출발하여 문장대 정상을 지나 세심정, 법주사 경유하는 A코스와 법주사를 출발하여 세심성을 돌아 법주사로 돌아오는 왕복코스인 B코스로 진행되었다.

총 4시간여의 속리산 산행을 마치고 충북 보은에 위치한 덕림산채식당에 모여 산채비빔밥과 동동주로 회포를 풀었으며, 의사산악회 총회와 더불어 새회장을 선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회원 친선등반대회에서 본회는 관광버스대절비 40만원과 더불어 회식비를 지원하는 등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제23회 전북 · 경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서 화합과 우의 다져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2008년 9월 27일(토)부터 9월 28일(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김천파크호텔에서 제23회 전북 · 경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양도의사회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친선행사에는 본회 이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신은식 · 최종두 · 변영우 고문,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등 39명이, 전라북도의사회서는 양형식 회장과 김병주 · 장명규 · 천희두 명예회장 등 32명과 의협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과 장석일 보험이사 등 모두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원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남에서 영남으로 먼길을 한걸음에 달려오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화목과 격의없는 대화로 가을밤을 수놓아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의사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하였으며, 이어 양형식 전북의사회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훌륭한 환대에 감사하며, 자매결연 친선행사를 통해 더욱더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답사를 하고 이어 만찬과 더불어 친선행사 시간에는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튿날에는 친선골프과 더불어 1천6백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고 우리 민족의 가슴속



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심어온 직지사를 방문하여 김종규 교수의 해설로 아름다운 경내를 두루두루 살피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고유문화유산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등 알찬 행사로 꾸며졌다.

금년도 친선행사는 경상북도의사회의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을 열고 2009년도 전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 친선행사는 23년 전 88고속도로의 개통을 기회로 당시 오삼달 경북의사회장과 김병주 전북의사회장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양 지역을 번갈아 방문하며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08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성황리 개최



2008년도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10월 12일(일) 오후 1시부터 경북의대 테니스장에서 본회 이원기 회장과 이석균 의장, 서보균 의무이사와 선수들이 참석하였다. A · B조 각 3팀이 리그전으로 개최되어 김성연 · 김태진(문경) 선수조가 지난해에 이어 2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청명한 가을에 열린 2008년도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에서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여 테니스장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석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라고 하였다.

이날 개최된 단체전 예선리그에서는 조 추첨을 통해 A조에는 김성연 · 김태진(문경), 문종세 · 윤영묵(안동), 김지홍 · 최진교(포항)팀이 B조에는 김대연 · 권오양(영천), 김성환 · 김성완(포항, 구미), 전민 · 전태형(포항)팀이 배정되어 조별 리그전을 펼쳐 각 조 1.2위가 결선 토너먼트 경기를 가져 우승에는 김성연 · 김태진(문경)팀이, 준우승에는 문종세 · 윤영묵(안동)팀, 3위에 김성환 · 김성완(포항,구미)팀, 4위에는 김대연 · 권오양(영천)팀이 각각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200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성료



본 회는 지난 2008년 11월 2일(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에서 회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의학 발전과 회원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0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는 이경섭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개원 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를 선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최신의학 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본회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개원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술연제와 훌륭한 교수님을 초빙하여 추계종합학술대회를 준비하였으니 참석한 회원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어 경상북도 식품안전팀 김병국 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시작으로 학술강연으로는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권중구 교수의 만성변비의 원인과 치료 등 4편의 학술연제와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의 의사장터 설명회를 비롯하여 의협 주수호 협회장으로부터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이 주어졌다.

또한, 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역사와 사건을 중심으로 한 특별 사진 전시회를 열어 회원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키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연제 및 연사〉

△마약류 취급자 교육 – 김병국 경상북도 식품안전팀장 △만성변비의 원인과 치료 – 권중구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한통의 전화로 여섯 명의 생명을(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의사의 역할) – 조원현 계명의대 외과 교수 △의사장터 설명회 –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 △여행의학 – 이동욱 동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심장 돌연사의 예방 – 조용근 경북의대 내과 교수 △의료현안 – 주수호 의협회장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 안내

복지부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입소자에게 투약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 산정 방법 주요내용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요수급권자
대 상 자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장기요양 보험수급권자 및 동급외자)	
원 외 처방전 교부시	의 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교 부 비 용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 재진진찰료중 외래관리료
	본 인 부담액	외래 본인 부담율 적용(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불문 30%)	1,000원
약국약제비		별도산정	
기 타		·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원외처방전 교부 이외 행위등(가정간호 포함) 비용 산정 불가 ·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표시)에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 ·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가능 ·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 내용 적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추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제도(2008. 7. 1)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본회에 추천의뢰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였다.

○ 판정위원회의 구성 : 공단 지역본부 6개소에 50명 이내의 위원

○ 대구 · 경북지역본부 : 대구 16명, 경북 9명, 유관단체 25명(임기 3년)

○ 본회 추천 인원

과별	지역	성 명	근 무 처	비 고
정형외과	경 주	김 종 원	현대병원	
	경 산	박 종 완	경산정형외과의원	
신경외과	경 주	박 형 근	굿모닝병원	
	경 산	손 성 근	경상병원	
정 신 과	경 산	김 지 관	경상병원	
예방의학과	경 주	이 관	동국대학교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구 미	우 극 현	순천향구미병원	
내 과	포 항	황 석 순	황석순내과의원	
비뇨기과	경 주	서 영 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본회 권역별 자보대책위원 구성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허위 ·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집중보도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권역별로 자보대책위원을 구성하여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한 진료비 부당삭감 사례 및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보대책위원을 구성하였다.

○ 권역별 자보위원 명단

권역	지역	성 명	의료기관명	비 고
제1권역	포항, 영덕, 울진	임경삼	포항시티병원	
제2권역	경주	박춘근	서라벌정형외과의원	
제3권역	안동, 의성, 청송, 예천	권영대	용상정형외과의원	
제4권역	구미	윤영준	현대병원	
제5권역	경산, 청도	구자웅	구정형외과연합의원	
제6권역	칠곡, 고령, 성주	이태규	왜관정형외과의원	
제7권역	영천	이종형	대동정형외과의원	
제8권역	김천	정재호	한양정형외과의원	
제9권역	상주, 문경	민병국	민정형외과의원	
제10권역	영주, 봉화, 영양	정현식	영주제일신경외과	

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일정 안내

2009년 3월 21일 치러지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는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10만여 의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의협회장 선거 내용

- 선 거 명 :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 선거사유 :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정관 제12조)

○ 의협회장 선거 일정표

선거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1. 29) → 선거인명부열람 · 정정 (시도지부 · 분회) (2009. 2. 9 ~ 2. 23) → 선거인명부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2. 25)

투표용지회송 (선거인) ← 투 표 (선거인) ← 투표용지 우편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3. 5)

회송투표용지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3. 5 ~ 3. 20 18시) → 개 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3. 21) → 당선자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3. 21)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3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9년 2월 25일 제36대 의협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하였다.

○ 의협회장 선거인수

지 역	신고회원수	선거인수	지 역	신고회원수	선거인수
서울특별시	26,057	13,085	충청북도	1,910	1,011
부산광역시	6,290	3,605	충청남도	2,580	1,190
대구광역시	4,794	3,355	전라북도	2,973	2,049
인천광역시	3,001	1,679	전라남도	3,906	1,431
광주광역시	2,934	1,915	**경상북도**	**3,750**	**2,461(3사관)**
대전광역시	2,730	1,234	경상남도	3,750	2,332
울산광역시	1,218	970	제 주 도	772	533
경 기 도	12,263	5,103	합 계	79,776	43,284
강 원 도	2,209	1,331			

본회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제36대 의협회장 및 본회 회장 ·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선거관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의료기관명	구 분	성 명	의료기관명
위원장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안동)	위 원	조충래	한일산부인과의원(구미)
위 원	하상호	하상호 · 김남주산부인과(포항)		이동욱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주)
	손병욱	손병욱내과의원(경산)	간 사	박재영	경상북도의사회(대구)
	박경욱	박경욱내과의원(김천)			

○ 선거관리위원회 : 2009년 2월 11일(수) 19:30, 호텔제이스 자미정

- 선거관리위원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 및 선거일정 논의

대한의사협회장 입후보자 안내

○ 의협회장 입후보자

기호	성 명	출신의대	연령	주요경력	비고
1	전기엽	전북의대	54세	전주전일내과의원	
2	경만호	가톨릭의대	57세	서울의사회장(전), 적십자사 부총재	
3	주수호	연세의대	51세	의협 회장	
4	김세곤	가톨릭의대	62세	의협 상근부협회장(전)	
5	유희탁	고려의대	64세	분당재생병원장(전), 의협 대의원의장	

2008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 현황

의료법 제26조 제3항 및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6조의 2호(회원의 의무) 제2,3,4항에 의거 2008년도 회원정기신고가 시군의사회 및 병원을 통해 일제히 실시되었다.

○ 2008년도 회비내역

구 분	가. 회 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휴직	전공회원	공보회원	
의 협	330,000	242,000	242,000	137,000	105,000	연회비 · 구독료 · 연구소 회비 · 학술대회분담금
경 북	250,000	250,000	125,000	75,000	—	
계	580,000	492,000	367,000	212,000	105,000	

○ 본회 회비납부내역(2009. 2. 28 현재)

구 분	개원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과년도회비	총 액
금 액	227,750,000원	82,000,000원	2,625,000원	330,000원	14,110,000원	326,815,000원

2008년도 의협회비 납부현황(2009. 2. 28 현재)

구 분	의협 회비	의협 입회비	과년도 회비	총 액
금 액	437,903,000원	800,000원	24,896,000원	463,599,000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난 2008년 4월 9일(수)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의사회원 4명이 당선되었다.

○ 선거결과

지역구	당 명	이 름	비 고	지역구	당 명	이 름	비 고
성남 중원	한나라	신상진	당 선	서울 관악	한나라	김철수	
경남 마산	한나라	안홍준	당 선	경기 남양주	한나라	김연수	
부산 중동구	한나라	정의화	당 선	비례대표 14번	한나라	조문환	당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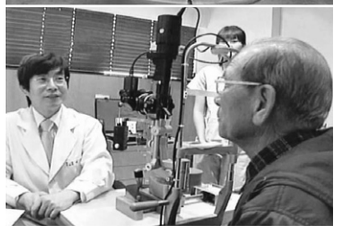
본회 홈페이지 가입 현황

○ 가입현황(2009. 2. 28 현재)

구 분	본회 회원수 (가입 회원 / 전체 회원)						기타 지역	일반 회원	비고
	전체	개원	근무	전공	공보	휴직			
내 용	1,088 / 2,590	834 / 1,225	214 / 977	2 / 103	30 / 220	8 / 62	280명	144명	
비 율(%)	42.0	68.0	21.9	1.9	13.6	12.9			

2008 무료개안수술, 이웃사랑 실천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는 2001년부터 대국민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의료인의 신뢰회복과 위상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TBC 대구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경북 안과개원의사회가 주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대구 · 경북내과의사회에서 후원한 '2008년 무료개안수술'에 모두 274명이 접수해 경북 34명(양안 2), 대구 67명(양안 12) 등 총 101명에게 밝은 빛을 안겨주었다.

전액 무료로 실시된 무료개안수술을 통해 2001년 90명, 2002년 50명, 2003년 60명, 2004년 84명, 2005년 64명, 2006년 78명, 2007년 112명, 2008년 67명 등 총 605명에게 밝은 세상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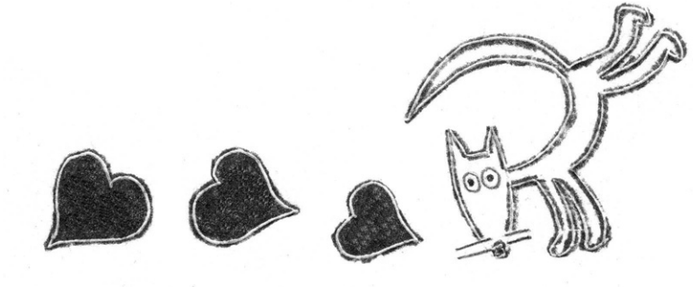
TBC 대구방송은 지난 2008년 11월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특집생방송을 진행 수술장면 등을 생생히 방영하였으며, 이번 2008 무료개안수술에는 대구경북안과개원의사회 소속 44개 의료기관에서 수술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물론 공단청구 진료비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내과개원회원도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봉사하였다.

시사 사행시 입선작

지난 2008년 5월 25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시사 사행시에 「의협백년, 경주타워」의 시제에 50여 작품이 출품되었다.

다음은 시상내역이다.

- ■ 장원 : 경주, 강남비뇨기과의원 강준오 회원
- ■ 차상 : 김천, 최인환결핵내과의원 최인환 회원의 부인 김태숙 / 안동, 김재왕내과의원 김재왕 회원
- ■ 차하 : 경주, 선린의원 변영우 회원의 부인 손혜영 / 김천, 한양정형외과의원 정재호 회원의 자녀 정유담
  경주, 민연합이비인후과의원 민정기 회원의 부인 김은단
- ■ 참방 : 구미, 이경수내과의원 이경수 회원 / 봉화, 제일의원 최예환 회원
  경산, 청십자의원 이석균 회원의 부인 박경희



제36회 보건의 날 행사 개최 보고



제36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의 건강증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7일(월) 오후 2시부터 영주시민회관에서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 기관장, 보건의료관련단체장, 시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로부터의 건강보호'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날 보건의날 기념을 맞아 유공회원으로 지사표창에는 이석주(영천), 최헌욱(안동), 서보균(포항), 장유석(경산)회원이, 장관표창으로 정만진 본회 감사가 녹조근정훈장 수상하였다.

의협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2008년 4월 20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63시티에서 의협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대의원 241명중 147명이 참석(본회 6명 참석)하였으며, 새로 선임된 집행부 추인 및 2007년도 회무보고 승인과 더불어 지난 임총서 보선된 김주필 · 정무달 감사는 자진사퇴하였고, 의협 대의원 일동의 결의문 낭독과 건보제도 개선 촉구를 하였다.

또한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안건은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회의성립에 필요한 122명의 대의원중 90여명 확인)하였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대구 · 경북의사회에서는 4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에서 중앙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원 징계요청 민원에 대한 본회 윤리위원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경남 김해에 소재하는 진정인 이○○으로부터 피진정인 본회 홍○○회원을 상대로 거액의 횡령 및 사기 등 변제 의혹으로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진정건이 본회로 이첩(접수번호 431호, 2008. 5. 6)해 옴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대구에서 본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신은식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9명 전원과 이원기 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황석순 간사(본회 법제이사)의 진행으로 회원 징계요청 민원(진정서)의 주요내용 보고와 피진정인의 소명자료 제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가 있은 다음 심의에서 이

진정건은 민사상 개인 채무건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회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회 윤리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나 다만 의사 회원으로서 사회적으로나 의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키로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독도경비대에 구급의약품 전달



우리영토의 동쪽 끝이자 경상북도의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철통같은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하여 본 회에서는 비상약품과 구급함을 구입하여 지난 2008년 8월 29일 독도경비대에 전달하였다.

비상약품에는 진통제와 소화제, 연고 등 일반의약품 8종과 구급함셋트 3개를 구입하여 독도경비대원들이 항상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울릉군보건의료원장을 통해 인계하였다.

경북도지사 초청 경북보건단체장 간담회

경북보건단체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8일(월) 오후 7시 포항 에이제한정식당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초청하여 도보건 행정 업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장과 김관용 도지사, 보건정책과 간부 등이 참석하였다.

경상북도의사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보고



본회에서는 회무안내와 회원들의 문예지 역할을 하고 있는 2009년도 제33호 경북의사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집방향 및 발간계획 등 논의하였다.

○ 회의개최일정

- 1차 : 2008년 11월 14일(금) 19:30 본회 사무처
- 2차 : 2009년 1월 23일(금) 19:30 본회 사무처
- 3차 : 2009년 3월 3일(화) 19:30 본회 사무처
- 4차 : 2009년 3월 10일(화) 19:30 호텔제이스

2008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 개최

지난 2008년 10월 15일(수)부터 10월 18일(토)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세계의사회 총회와 학술 심포지엄(건강과 인권), 사진전시회 등이 열렸으며, 본회에서는 이원기 회장과 이석균 의장, 변영우 의협부의장이 참석하였다.

행복경북 웰빙봉사단 발대식 참석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단체가 연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경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하여 웰빙봉사단을 구성하고 발대식 및 봉사한마당 행사를 지난 2008년 10월 18일(토) 오전 11시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단 발대식으로 지역봉사 다짐, 이원기 회장 축사 등이 있었으며, 의과 · 치과 · 한의과 · 약국 운영,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본 회에서는 의료 인력지원으로 내과,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등 8명과 의약품 및 제반 경비(의약단체 공동부담)가 지원되었다.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회의 개최



2008년도 회비납부 및 회무관련 교육과 사무직원 상호간의 팀워크 고취를 위한 사무직원 회의를 지난 2008년 10월 18일(토) 오후 5시와 12월 3일(수) 오후 4시 2차례에 걸쳐 포항시의사회 사무국에서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원기 회장의 주재로 서영진 재무이사를 비롯한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며, 2008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 현황과 연수교육 보고자료 및 평점카드 제출 요청등의 주요회무보고가 있었다. 또한 토의사항에서는 2008년도 의사회비 징수에 사무직원들이 만전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신용카드 징수의 방법을 건의키로 하였다.

심평원대구지원과 본회 간담회 개최

본 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6일(목) 오후 7시 포항 우미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 포항까지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양 단체의 허심탄회한 고충을 알아가자"고 하였으며, 오장영 대구지원장은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의협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의협은 2008년 11월 15일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2008년 11월 14일(금)부터 11월 16일(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펼쳤으며,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100세 건강 시대 여는 믿음직한 전문인"이라는 비전(Vision)을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100주년기념식, 심포지엄, KBS열린음악회, 건강달리기 등이 열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위원회 발대식 참석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 경북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2008년 12월 5일(금) 오전 11시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본 회 이원기 회장을 비롯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등 100여 명의 정계 및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의약품 및 첨단의료기기 등 첨단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37년까지 국비 등 총 5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정부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인천 송도, 대전 대덕, 충북 오송, 강원 원주 등 전국 10여개 단체가 준비 중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대구경북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시군회장회의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 개최



경상북도의사회서는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아 2009년도 신년인사회를 겸한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지난 2009년 1월 8일(목) 19:30 대구 호텔제이스 파티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임원, 의장단, 감사단, 시군의사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과 (주)위니즈-Law가 설계한 병의원 맞춤 세무서비스 상품 소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형원 기획이사로부터 200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안내, 방사선필름 상한금액 인상 보고 등의 주요회무보고가 있은 후 서영진 재무이사로부터 2008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에 대한 현황 보고가 있었다.

토의사항으로는 2008년도 의사회비가 지난해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사회장님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기축년에도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수교육 개최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관련한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및 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이 지난 2008년 3월 29일(토) 오후 5시 경북의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연수교육은 대구·경북 350명(경북 195명, 대구 155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3평점과 교육이수 스티커가 발부되었다.

처방전 바코드 출력 중지 안내

의협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전 바코드 프로그램의 사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안내하였다.

최근 약사회가 처방전 바코드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다. 의협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야 한다며 처방전 바코드에 대한 출력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DUR시스템 관련 의협 공지사항 안내

의협에서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시행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협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 개정고시를 공고함에 따라 제도시행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협 긴급이사회(3. 28)를 개최한 결과 청구반송과 같은 회원들의 실질적 피해를 감안하여 DUR시스템은 설치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의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팩스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S/W업체에 관련내용을 협조요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급여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지난 2008년 4월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진단비용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안내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그 외 해당 질병 확인 등을 위한 진찰료 및 진단에 소요되는 검진비용 등은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키로 되어 있다.

심평원대구지원 심사사례 등 소식 안내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의약단체 간담회(2008. 3. 6)에서 심사관련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함에 따라 개원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사례 및 주요내용 등을 담은 심평원대구지원 소식을 안내키로 하였다.

의협, 생동시험 자료 미제출 576품목 공개

2006년 터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토불가 의견을 낸 의약품 576품목이 공개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의협은 지난 2008년 6월 28일 토론회에서 93개 제약사의 576개 의약품 리스트 공개하기로 하고 한미(주) 31개, 신풍 21개, 참제약과 대원각 18개, 종근당 17개, 경동과 한국유나이트 16개, 국제 15개 등 생동성 조작 가능성과 해당 약을 바꿔 처방할 경우 약효 차가 클 수 있어 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UR시스템 관련 헌법소원 서류 제출

의협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의사의 진료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의함에 따라 회원들의 개설신고필증 및 면허증 사본 90부를 제출받아 의협에 보고하였다.

DUR시스템 확대 시범사업 불참

의협에서는 DUR시스템과 관련하여 강력한 반대입장과 더불어 청구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동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가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소속 요양기관에 DUR관련 시스템의 2, 3단

계 확대시범사업 요청이 오면 해당 요양기관에 불참 독려 할 것을 안내하였다.

유리앰플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치 안내

식약청에서는 유리앰플 주사제의 유리 파편 혼입과 관련하여 안전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협조요청 사항을 안내하였다.

○ 유리앰플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방법

- 앰플주사제 사용시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하여 유리 파편 등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 등을 필요시 사용하도록 권장
- 앰플주사제 사용시 쉽게 절단되어지는 것만을 사용하도록 권장
- 용이하게 절단되지 않는 앰플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절단하게 되면 유리 파편이 절단 강도에 비례해서 훨씬 많이 발생
- 앰플을 절단할 때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잘 절단되지 않는 제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반품조치하여 처리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무료진료행위 실태 파악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지역을 순회하며 아파트 노인정 등지에서 무료진료란 미명하에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하도록 유인하는 등 의료질서문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의협에서는 의료질서문란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자체 요청 공문 발송 등)를 취할 계획임에 따라 무분별한 무료진료행위 실태파악을 각 시군의사회에 요청하였다.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실태파악 요청

현행 약사법에 의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의약품 제조회사나 의약품도매상이 인터넷이나 영업사원을 통해서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의협은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청하였다.

지역별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협조요청

의협과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신고체계 구축사업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각 지역보건소에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의료기관으로 추천키로 하였다.

○현재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기준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장이 시 · 도지사의 추천 지정
- 보건소 전염병담당자는 관리가 수월한 의료기관 등 편의상 지정
- 전염병 신고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

○개선방안

- 독자적 지정이 아닌 지역의사회의 추천하여 지정하는 방안 추진

DUR시스템 위헌 소송 참여자 접수

의협의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수가 지난 2008년 8월 4일까지 총 2,146명으로 집계되면서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본회는 173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의료폐기물 전자테그 판매업체 현황 안내

지난 20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RFID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 시행으로 배출자 인식카드인 전자테그를 구매, 이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토록 변경됨에 따라 전자테크 판매업체 현황을 안내하였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지도점검 실시현황 파악

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또는 보수 · 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동 규정 위반시(자료제출 거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각 공단지사로부터 지도점검 명분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지도점검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안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방사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하였다.

○주요내용

- '진단용엑스선 방어 앞치마와 환자 생식기방어용기구 등'을 비치하여 사용
- 보호자로 하여금 환자를 부축하게 할 경우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착용
- 촬영 실내에 '환자를 부축하는 환자 보호자는 반드시 방사선장애방어용기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문 부착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관련 안내

최근 '전문의 없는 무늬만 ○○과 급증'이라는 언론보도로 지역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자율적 정비요청과 함께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단속을 강화할 것을 예고한바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및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행정단속의 확대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명칭표시 및 진료과목 표시' 사항을 안내하였다.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 변경 안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으로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의견 개진으로 2008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행하기로 변경되었다.

태반주사 관련 의료법령 준수 안내

최근 비의료인에 의한 태반주사제 불법유통은 물론 이를 직접 투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 · 처방없이 간호(조무)사들을 출장시켜 태반주사를 놓아주는 등 의료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태반주사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의협 제7차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의협은 의료배상공제 제7차년도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료사고 · 분쟁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의 가입을 안내하였다.

○ 시행시기 : 2008. 8. 1

○ 특이사항

- 7차년도 사업은 공제회 회무기간과 맞추기 위해 내년도 결산시점(2009. 10. 31) 조정
- 공제요율 등 가입사항은 동일한 조건

DUR시스템의 위헌성에 대한 입법청원 현황 보고

의협은 DUR시스템 기준고시의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원고 모집에 2,146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취지와 의사의 진료권을 근원적으로 보호코자 입법청원에 본회에서는 70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마약류 처방전 관리 철저 안내

최근 일부 환자가 직접 제작한 허위처방전을 이용하거나 병 · 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동 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이 있었다.

○ 협조내용

- 병 · 의원이 마약류 처방전 발급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청 요청으로 동 건 관련하여 각 시 · 도지사

가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및 지도 · 점검 실시 예정
- 약국에서 마약류 처방전 진위 여부 확인 요청시 협조

출산전 진료비 지원 안내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1일 4만원 이내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하였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위촉

심평원대구지원에서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기 위한 전문과목별 비상근심사위원 추천 대상자를 의뢰함에 따라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위촉되었다.

분과명	성명	분과명	성명
내 과	김대환	마취통증의학과	박준만
진단검사의학과	박경희	산부인과	박정돈
정 신 과	김창수	소아청소년과	조용훈
흉부외과	성후식	안 과	이재백
정형외과	박종완	비뇨기과	박종각
신경외과	이해철		

건강서비스 활성화 대책 TF 위원 추천

복지부에서는 건강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건강서비스 활성화 대책 TF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 의뢰해 옴에 따라 본회에서는 황석순 법제이사를 추천하였다.

○ 운영기간 : 2008. 4~10(7개월, 복지부 TF 운영기간)
○ 주요기능 : 건강서비스 제도 분석, 개념정립, 입법건의안 마련 등

대구 · 경북 의료산업 육성 자문단 구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를 위하여 입지 여건의 우수성과 지역유치 당위성을 대내외 널리 홍보하고 대구 · 경북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구 · 경북 의료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에 본회 이원기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개시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위하여 의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 업무개시 : 2009년 1월 9일(금)
○ 위 원 : 권오주 위원장외 위원 8명

본회 회칙 개정 및 인준 요청

본회에서는 지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2007. 3. 22)에서는 대의원수를 90명(고정 및 비례대의원)과 기타 자구 수정 등 회칙을 개정한바, 의협 정관 제43조(지부회칙) 제1항에 의거하여 지난 2008년 3월 27일 인준을 요청하였다.

포항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본회 및 포항시의사회 집행부는 포항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2008년 3월 18일(화) 오후 8시 우미향에서 이상득 의원(포항 남구 · 울릉군)과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협 임총 보류에 따른 서면결의 실시

의협 대의원회가 부의안건을 담은 서면결의가 지난 2008년 6월 11일(수) 전국 대의원 앞으로 발송되어 2006회계년도 특별감사보고서 및 2006년도 결산(안) 인준의 건 등 10건에 대해 서면결의가 있었다.

○ 서면결의 기간 : 2008. 6. 11(수)~6. 26(목) 기명실시
○ 서면결의 개표 : 2008. 6. 27(금) /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의협 대의원회 서면결의 결과

의협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지난 2008년 6월 11일(수)부터 6월 26일(목)까지 실시된 서면결의 결과가 2008년 6월 27일(금) 공고되었다.

○ 개표결과 : 서면결의 요구한 10개항중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 서면결의서 발송 241명(재적대의원)
- 투표참여대의원 197명, 기권대의원 43명, 반송 1명

의사의 날 준비위원회 개최

지난 2008년 4월 27일(일) 오후 2시 포항 대흥초등학교에서 제30회 경상북도 의사의날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종목으로 바둑, 탁구, 윷놀이(남성 · 여성), 족구, 2인3각, 골프피칭, 줄다리기, OX퀴즈의 단체경기와 제기차기, 훌라후프, 어린이경기(배점 없음)의 친선경기로 선정키로 하는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7년도 연수교육 미이수(누락)자 자료 요청

2007년도 의사연수교육 회원중 비대상자나 평점 누락자가 미이수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본회에서는 미이수 회원들에게 평점 확인 공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미이수대상 : 미이수회원 350명중 본회 회원 255명
○ 증빙자료 제출 : 연수평점 누락 및 면제대상자는 6. 18 까지 제출
※ 면제대상자
- 기초의학자, 대학원재학자, 비진료봉사자, 전공의, 군의관, 당해연도 6개월 이상 휴직자, 당해연도 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등

시군의사회별 반상회 활성화 요청

의협은 각종 정책 및 보험정보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핵심만을 간추려 회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2008년 6월부터 반상회보를 제작하여 임원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이에 각종 반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마지막주는 반상회 주간으로 정하여 반상회보를 바탕으로 각종 반모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개원의협 제21차 정기평의원회 참석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2007년도 결산안을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등 제21차 정기평의원회를 지난 2008년 6월 21일(토)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되었으며, 본회에서는 김종국 부회장과 전민 회원이 참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결산안 이의없이 통과, 2008년도 예산안 확정과 회칙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었다.

의협 쇼핑몰 '의사장터' 운영

의협에서는 신개념 회원 서비스를 위한 회원 공동구매 원스톱 쇼핑몰인 '의사장터'를 지난 9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원스톱서비스 등 회원들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 의사장터 취급품목
- 의료용 소모품 : 주사용품, 처치 · 수술재료, 병원인쇄물, 의료비품
- 사무용 소모품 : 문구사무, 잉크토어, 생활용품, 가전가구, 판촉물

○ 의사장터전용카드인 '삼성메디클럽카드'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제공
※ 본회에서 홍보리플릿, 마우스패드 등 개별 발송(2008. 10. 1)

2009년도 제52차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20일(월)부터 10월 24일(금)까지 본회 사무처에서 직접 응시원서 교부하였다.

의료상담 답변의사 지원 안내

의협은 의료상담 제공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자 의료상담 답변의사를 모집하였다.

○ 주요 지원내용

- 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 및 신청서 확인
- 지원 회원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답변의사를 선정할 예정

의료기관 세무서비스 제휴

의협에서는 개원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위니즈-Law와 병의원 특화 세무서비스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제휴업체 : (주)위니즈-Law

○ 제공서비스

- 세무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
- 매월 결산 보고서 제출, 세무조정

○ 상품가격(연매출 10억 이하)

- 대행서비스/월결산보고서 : 8만원/월
- 세무조정료 : 50~1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신청 안내

정부에서 오는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인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예방접종 행위료의 적정금액 확정 등 동 사업의 합리적인 진행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보토록 안내한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확대사업 대책회의(2/18)서 예산이 부족하여 완전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수년내 예산을 확보해 전액 무료화 추진을 표명하여 참여키로 하였다.

대구 ·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서명서 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유치 동참 서명서를 요청해 옴에 따라 본회에서는 483명의 서명서를 제출하였다.

○ 성명서 제출

구 분	서명자수	제출일	비고
내 용	483명	2009. 2. 2(월)	

본회 고문단 간담회 개최



지난 2008년 2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인터불고호텔 동보성에서 본회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은식, 변영우, 최종두 고문과 이원기 회장, 이석균 의장, 한형원 기획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회 회무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고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하였으며, 이석균 의장은 '앞으로도 의사회를 위해 고문님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한형원 기획이사로부터 2008년도 본회 주요 행사 보고와 더불어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 및 입후보자에 대한 안내가 있은 후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회,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 수상



지난 2009년 3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회장 안윤식) 연찬회에서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여 적십자회원으로서 적십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회가 대한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은장을 수상하였다.

이날 연찬회에는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와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경상북도적십자사 안윤식 회장과 매일신문 · TBC사장, 안동의료원 신현수 원장, 포항의료원 변승열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상북도 7개 시군의사회 새 회장 선출



▲ (왼쪽부터) 김묵환, 박봉기, 이경엽, 이승석, 이원두, 전용성, 최경렬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서는 지난 1월과 2월 시군의사회별로 정기총회를 열고 7개 시군의사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먼저 안동시의사회는 1월 20일 오후 7시 신라예식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김묵환 회원을 선출했다. 김묵환 회장(김묵환학문외과의원)은 1960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했다.

칠곡군의사회는 2월 12일 오후 7시 독도회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전용성 회원을 선출했다. 전용성 회장(영남외과의원)은 1964년생으로 영남의대를 졸업했으며, 칠곡군의사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천시의사회는 2월 26일 오후 7시 길조한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이경엽 회원을 선출했. 이경엽 회장(김천남산종합의원)은 1962년생으로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김천시의사회 총무이사 · 감사 등을 거쳤다.

문경시의사회는 2월 27일 오후 7시 청정골한우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박봉기 회원을 선출했다. 박봉기 회장(박내과의원)은 1958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했으며, 문경시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이번에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상주시의사회장에는 이원두 회원(이원두의원)이 선출됐다. 상주시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침체돼 있던 의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임이사 수를 늘리는 등 회칙을 개정해 새롭게 임원을 구성했다.

영주시의사회는 최경렬 회원(최내과의원 · 계명의대졸)을, 군위군의사회는 이승석 회원(서광외과의원 · 영남의대)을 신임 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의협 중앙 비례대의원 책정

의협 정관 제24조제2호(비례대의원)에 의해 중앙비례대의원의 책정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 지부 등에 대한 중앙대의원 정수를 책정하였다.

○ 비례대의원책정

- 근거 : 정관 제24조 제2호(비례대의원)
- 방법 : 대의원정수(250명)중 고정대의원(112명)을 뺀 나머지 (138명) 배정
- 본회 : 7명(고정 2명, 비례 5명)



연초에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가셨다. 하나님에게서 귀띔이라도 있었던지 집안의 대소사를 말끔하게 정리해놓고 마실 가시듯 훌쩍 떠나셨다. 회지 발간을 앞두고 바쁜 일손 중에도 마음은 실 끊긴 연처럼 황황했다. 왜 하필 특집을 '나의 어머니'로 했을까 후회도 하면서 「묵계」 시 한 편을 다듬으며 마음을 추슬렀다.

그러나 장례 일정과 사후 처리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향한 그 분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고, 또 크신 은혜로 위로해 주셨다. 또한 원근 각처 의료계 동료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힘입은 바 컸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끝으로, 지난 3년간 본지를 성원해주신 여러 회원들과, 더불어 수고하고 고민했던 편집위원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권세홍 위원장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0에서 80, 길어야 100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있는 삶이 될까요?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테지만…….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기억을 지우는 일에도 대단한 속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08년 경북의사회의 활동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편집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눈에 띕니다. 회원님들께 너그러이 양해를 구하며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좀 더 두툼하고 알찬 내용이 담긴 회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 이봉구 위원

솔직히 편집위원회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회지에 대해 그리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 년에 한 번씩 경상북도의사회에서 배달되어 온 책을 뒤적거리다 눈에 띄는 글 몇 편 읽어 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편집위원이 되어 지난 3년간 활동하면서 회지에 대해 느낀 점은 비록 인터넷이라는 빠르고 훌륭한 미디어에 밀려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사실이지만 그래도 의사회원님들의 생각과 말들이 정제된 글로서 엮어지고 또한 후손들에게 오늘 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 사무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정돈 위원

눈이 비로 바뀌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며 다시 훈훈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가 지나고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동삼(冬三) 석달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벌레들도 꿈틀거린다는 경칩(驚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다소 춥긴 하지만 따뜻한 봄날이 곧 올 것을 예감해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려는 설렘으로 경북의사회지 제33호를 펼쳐보면 한 장씩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원기 회장님, 권세홍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장님과 직원분들의 땀방울이 그대로 베여있는 듯합니다.

— 하달봉 위원

경북의사회의 집행부 임원으로서 앞에서 끌어주고, 혹은 일반 회원으로서 늘 의사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제33호 경북의사회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활동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경북의사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평소 경북의사회의 한 식구로 지내면서도 자주 뵙지 못하고 타인처럼 지냈던 많은 동료 선생님들의 풋풋하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묻어나는 진솔한 원고들을 접하면서 그 분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인술로서 봉사하며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진료 중에 틈틈이 귀한 원고를 준비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

— 이덕영 위원

경북의사회지

2009년 33호

편 집 위 원

권 세 홍
이 봉 구
박 정 돈
하 달 봉
이 덕 영

인쇄 · 2009년 3월 15일
발행 · 2009년 3월 22일

발행인 · 이원기
편집인 · 권세홍, 이봉구

발행처 ·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 : 053) 941-7785, FAX : 053) 941-5557
Homepage : http://www.igbma.or.kr
E-mail : cugkma14@hanmail.net

제작처 · **만인기획**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743-7번지
TEL : 053)422-0550, FAX : 053)426-9543
Homepage : http://www.maninsa.co.kr
E-mail : maninsa@hanmail.net



Expect More 프리토™
(텔미사르탄)

당뇨병, 초기신증 동반 고혈압 환자의 1차 선택약 [1,2]

References 1.Diabetes Care 2004 ;27(Suppl 1):S79-83 2.Diabetes Care 2006 ;29(Suppl 1):S4-42

[Prescribing Information]

■ 주성분 1정 중 텔미사르탄 40mg, 80mg ■ 효능 · 효과 본태성 고혈압 ■ 용법 · 용량 1. 성인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40밀리그램이며, 환자에 따라 1일 1회 20밀리그램으로 유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1일 1회 80밀리그램까지 증량할 수 있다. 2. 이 약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의 티아지드계 이뇨제와 병용투여시 추가적인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용량을 증가할 때는 치료시작 후 4-8주에 최대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냄을 주지해야 한다. ■ 경고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에 투여하는 경우 자라나는 태아 또는 신생아에게 병적 상태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신중기 3개월 및 말기 3개월 중의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저혈압, 신생아 두개골 형성저하증,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및 사망을 포함한 태아 또는 신생아의 손상과 관련성이 있다. 태아의 신기능의 저하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양수과소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양수과소증은 태아의 사지연축, 두개안면기형, 폐의 형성저하증과 관련성이 있다. 미숙, 자궁내 성장 지연, 동맥관열림증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 노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 금기사항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설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임신 중기 및 말기각 3개월의 임부 및 수유부, 담도폐쇄 질환이 있는 환자, 중증의 간질애 환자 ■ 신중 투여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환자, 동맥판 또는 승모판협착증 환자나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 간장애 환자, 활동성 위 또는 십이지장궤양 등 위장관계 질환 환자, 신혈관 고혈압 환자 ■ 이상반응 감염증후, 인두염 및 부비동염을 포함한 상기도 감염, 복통, 설사, 소화불량, 위장질환, 습진과 같은 피부이상, 관절통, 좌골신경통과 같은 배통, 다리경련 또는 다리통증, 근육통 등이 보고되었다. 저혈압이 나타난 사례가 있으므로, 이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 일반적 주의 이 약은 소르비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전성 과당불내성 환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 상호작용 이 약은 다른 혈압강하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ACE 저해제와 리튬을 병용투여했을 때, 혈청 리튬치의 가역적인 증가와 독성이 보고된 바 있다. 매우 드물게 안지오텐신 II 길항제 또한 이런 독성이 보고되었다. ■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이 약을 임신중인 여성에 투여한 적절한 자료는 없다. 이 약은 임신초기 3개월 동안은 되도록 투여해서는 안 되며,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적절한 다른 치료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2. 수유부: 수유하는 동안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 과량투여시의 처치 환자를 잘 모니터 해야 하고 대증적 보조적 치료를 실시한다. ■ 개정년월일 2007년 11월 5일 ■ 이 개정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www.gskkore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프리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1002-PRT-08-111-AD

gsk GlaxoSmithKline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국제빌딩 9층 140-012) Tel 02)709-4114, Fax 02)796-4710 /학술정보 (수신자 요금부담) 080-901-4100